차 례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굴속에서 쿨쿨 자던 다람쥐가 밖으로 나와 따스한 해빛을 쪼이고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옆에서 부스럭소리가 나더니 두더지가 불쑥 솟구쳐올랐습니다.

《얘 다람쥐야, 너두 깨여났니?》

《응, 너도 일어났구나.》

둘이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기쁨으로 부둥켜안고 한동안 돌아갔습니다.

《야, 밖은 참 좋구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따가운 해빛도 쪼이는게 막 날것만 같구나.》

다람쥐가 콩콩 뛰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예 땅우에다 집을 짓고 살아볼가?》

두더지가 엉뚱한 생각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좋겠다.》

다람쥐도 대바람에 찬성해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다람쥐와 두더지는 조금씩 떨어져 서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지들을 주어다 차곡차곡 쌓기도 하고 검불을 주어다 깔기도 했습니다. 넓은 떡잎을 주어다 지붕도 두툼히 해씌웠습니다. 한동안 땀을 빨빨 흘리며 저마다 문짝도 해달았습니다. 문짝을 달고보니 제법 그럴듯한 집이 되였습니다. 다람쥐와 두더지는 난생처음으로 땅우에 집을 정하게 된 기쁨을 안고 당실당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초저녁부터 단잠에 콜콜 들었습니다.

얼마쯤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두더지네 집 문을 똑똑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주인 계시나요?》

잠기가 밝은 두더지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습니다.

《누구인지?》

두더지가 급히 문을 열고보니 글쎄 온몸에 촘촘히 가시돋힌 고슴도치 한마리가 문밖에 댕그랗게 서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미안하지만 길을 잃었는데 한밤을 쉬여갈수 없을가요?》

고슴도치가 두더지의 눈치를 살피며 더듬거리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비좁은 집에 가시쟁이까지 들여놓다니… 혹시 잠이라도 갈개자면 가시로 꼭꼭 찔러놓을걸.)

두더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자지 못해요. 저 건너집에나 가보세요.》

그리고는 문을 홀깍 닫고말았습니다.

고슴도치는 무참해서 한참이나 그대로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수없이 얼마쯤 떨어져있는 다람쥐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계시나요?》

《누구신지?》

다람쥐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는데 한밤을…》

고슴도치는 뒤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람쥐는 그 마음을 다 알수가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좁아서 불편할테지만 그런대로 한밤을 쉬고가세요.》

다람쥐는 머뭇거리는 고슴도치의 손을 잡아 집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슴도치까지 들어서고보니 집안은 어찌나 비좁은지 돌아앉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슴도치가 불편해할가봐 마음을 썼습니다.

《저, 집이 좁아서 안됐군요.》

《무슨 말씀을…》

다람쥐와 고슴도치는 앉아서 밤을 밝히는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퍽 깊었습니다.

어느새 얼레빗같은 쪼각달이 서산너머로 기울어져갔습니다.

그러나 곤한 두 꼬마짐승은 어느새 잠이 들어 밤이 지새는줄도 몰랐습니다.

아침이였습니다. 둥근 해가 동산우에 머리를 살며시 쳐들자 그제야 잠에서 깨여난 두 꼬마짐승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간밤에만 해도 좁아서 돌아앉기조차 힘들었는데 다리를 쭉 펴고 편안히 누워잔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사이 집안이 훨씬 커진것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고슴도치가 너무나 신기해서 눈을 비비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글쎄요. 옛날부터 마음이 좁은건 못살아도 집이 좁은건 산다더니 정말 마음이 좋으니 집도 제절로 넓어지는군요.》

다람쥐는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하루밤을 편히 쉰 고슴도치는 다람쥐가 고마와 그냥 떠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도움을 줄 생각으로 다람쥐네 집을 살피며 일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보니 집이 좀 컴컴하군요. 창문을 하나 내야겠어요.》

고슴도치는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아니 둬두세요. 제가 천천히 창문을 해달지요.》

다람쥐가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반나절이 실히 걸려서야 멋진 창문을 하나 해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일을 돕지 못하고 간다고 오히려 제편에서 미안해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람쥐는 멀리까지 바래워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다람쥐네 집은 하루사이에 두곱으로 커지고 창문까지 있는 멋진 집으로 되였습니다.

그날밤입니다.

똑똑… 또 어떤 짐승이 두더지네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밤에도 성가시게 손님이 찾아오더니…)

두더지는 신경질이 나서 문을 콱 열어제꼈습니다.

문밖에 어미너구리가 새끼너구리 둘을 데리고 오돌오돌 떨고있었습니다.

《저, 이사를 가다가 밤이 깊어서… 비좁은대로 하루밤 쉬여갈수 없을가요?》

어미너구리가 사정을 하는 사이에도 새끼너구리들은 어찌나 졸렸던지 고개방아를 찧고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렴치도 없지.)

두더지는 입이 쓰거웠습니다.

《저 건너집에나 가보시라요.》

두더지는 귀찮다는듯 문을 콱 닫고말았습니다.

《엄마 졸려. 아무데서나 자자.》

새끼너구리들의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한번 닫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미너구리는 한지에서 그냥 자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슬을 맞으면 새끼너구리들이 병이라도 걸릴가보아 할수 없이 건너집 문을 똑똑 조심히 두드렸습니다.

《계시나요?》

《누구신지?》

다람쥐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밖에 어미너구리가 새끼 둘을 데리고 덜덜 떨고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묻지 않아도 사연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어서 빨리 들어오세요.》

인정많은 다람쥐는 새끼너구리들부터 먼저 집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끼너구리 둘이 들어앉고보니 집안은 더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와 어미너구리는 겨우 비집고 머리만 집안에 들여밀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미안하군요.》

《아니, 괜찮아요. 애들만 편히 쉴수 있다면 나야 주인인데 일이 있나요.》

그런데 기적은 그날밤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여나보니 집이 그만큼 또 커졌던것입니다. 그러고보니 다람쥐와 너구리네 세식구는 밤사이에 발편잠을 잔것이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집이군요. 다람쥐아주머니가 마음이 좋으니 집도 꼭 그 마음을 닮은것 같군요.》

어미너구리는 그냥 떠날수가 없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라도 해주고싶었습니다.

어미너구리는 다람쥐가 한사코 만류하는것도 듣지 않고 우득부득 새끼너구리 둘을 데리고 고개너머에 가서 싸리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키높이 울바자를 둘러주고야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밤 잘 쉬고갑니다.》

어미너구리는 다람쥐의 그 마음이 하도 고마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같은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람쥐도 그 말을 곱씹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몇갑절 커지고 울바자까지 멋지게 두른 다람쥐네 집은 멀리서도 한눈에 척 안겨왔습니다.

그러나 두더지네 집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삼일째 되는 날 밤입니다.

그날밤엔 때아니게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람쥐와 두더지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제집에서 포근한 잠을 잘수가 있었습니다.

얼마쯤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두더지네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건너집에 사는 다람쥐가 빠금히 문을 열고 내다보니 두더지네 집앞에 집보다 몸집이 몇갑절 더 큰 메돼지 한마리가 우뚝 서있었습니다.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자 급해맞은 메돼지는 아무 집문이나 세차게 두드렸던것입니다.

그러나 두더지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아니면 시끄러웠던지 아예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람쥐가 급히 뛰여나가 메돼지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좁은대로 우리 집에서 하루밤 쉬여가세요.》

《이거 정말 고맙네.》

메돼지는 다람쥐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어찌나 큰지 며칠사이에 퍽 커진 다람쥐네 집도 그의 몸을 다는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대로 메돼지는 하루밤 쉬여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밤에도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여나보니 어느새 메돼지와 다람쥐는 의좋게 누워있었습니다. 간밤새에 집이 그만큼 또 커졌던것입니다.

메돼지는 다람쥐의 마음이 고맙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꼭 도와주고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이 집에 구들이 없군요. 겨울을 나자면 온돌을 놓아야지.》

메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온돌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불까지 지펴보고야 길을 떠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엔 구새먹은 통나무를 지고가던 곰서방이 그의 집에 들렸습니다.

《계시우, 길을 가던 곰서방인데 하루밤을 쉬여갈수 없을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다람쥐는 곰서방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래서 곰서방도 하루밤을 편히 쉬게 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곰서방은 구새먹은 통나무를 굴뚝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아니, 그 구새먹은 통나무야 곰아저씨가 쓰려던것이 아닌가요?》

《난 또 얻어다 쓰면 되지.》

곰서방은 맘좋게 허허 웃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다람쥐는 며칠사이에 집을 크고도 아늑하게 꾸릴수 있었습니다.

두더지는 이 며칠사이에 다람쥐네 집이 자꾸만 커지는게 이상스러웠습니다.

자세히 눈여겨보니 다람쥐네 집에서 자고난 메돼지며 곰

서방이 도와주어 그렇게 되는것 같았습니다.

(다람쥐가 머리를 쓴단 말이야. 나도 이제부터 지나가는 길손들을 재우고 그 값으로 집을 늘궈달래야지.)

어느날 저녁 두더지가 행길을 살피고있는데 산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양아저씨,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서 쉬고가세요.》

두더지의 말을 들은 산양은 그의 집을 살펴보고나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유, 집이 작아 어디 앉을 자리나 있겠니. 저기 큰 집으로나 가봐야겠다.》

산양은 맞은쪽의 다람쥐네 집으로 가는것이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녁길을 걷는 짐승들은 모두 다람쥐네 집에서 묵어갔습니다.

그럴수록 다람쥐네 집에서는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고 생활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골짜기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두더지네 작은 집을 모두 걷어안고 날아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네 큰 집은 끄떡도 안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음씨 고운 다람쥐는 멋진 집에서 살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두더지는 집을 잃고 영영 땅속에 들어가 살게 되였답니다.

주체75(1986)년

1

먼 옛날 어느 양지바른 동산에 아담한 돌기와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그 돌기와집에는 커다란 종이 매달려있었는데 그 종은 참으로 신기한 종이였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지동산에 기여들기만 하면 그 종은 저절로 《땡! 땡!》 하고 울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어찌나 요란하였던지 10여리밖에서도 쉽게 가려들을수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만 하면 양지동산의 착한 짐승들이 급히 돌기와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와 힘을 합쳐 사나운 짐승들을 쳐물리치군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돌기와집은 양지동산의 행복을 지켜주는 더없이 소중한 집이였습니다.

바로 이 행복의 동산에 착한 길짐승들과 함께 부

지런한 거부기가 살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고 동작이 굼뜬 거부기이지만 마음씨만은 매우 착하고 어지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자기 집농사를 지으면서 이웃들의 일손을 제일처럼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돌기와집으로 남먼저 올라와서 신기한 종을 닦기도 하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양지동산의 착한 짐승들은 이런 거부기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늦은 봄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이른아침에 돌기와집을 찾아 언덕우에 올라 온 거부기는 때아니게 가슴이 섬찍하였습니다. 찬찬히 보니 어쩐지 돌기와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것 같았기때문이였습니다. 몇걸음 뒤로 물러가서 보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도 집이 한쪽으로 기우는것이 헨둥하게 알리였습니다.

그 돌기와집은 세운지가 하도 오래되다보니 세월이 가면서 점차 기울어져갔던것이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왜 이것을 보지 못했을가? 이대로 두다가는 큰 변이 나겠군.)

거부기는 집주위를 빙빙 돌며 이궁리저궁리 하다가 기울어져가는 기둥밑의 주추돌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추돌이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인지 썩돌이 되여 부스러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던것입니다.

당장 집을 고쳐지어야 하겠으나 곧 장마가 시작될텐데 공사를 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둥밑을 파

헤쳐놓고보니 인차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간 집이 무너질것만 같아 어쩔사이가 없었습니다.

거부기의 눈앞에는 금시에 집이 주저앉으면서 행복을 지켜주는 그 소중한 종이 산산이 부서지는 끔찍한 광경이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이에도 돌기와집은 점점 더 기울어져갔습니다.

거부기는 이 신기한 종을 믿고 사는 마음 착한 짐승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앞에 얼른거렸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거부기는 이윽고 무엇을 결심한듯 주먹을 꾹 부르쥐였습니다.

2

다음날 이른아침이였습니다. 꼬마점박이사슴이 거부기네 집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거부기아저씨 계시나요?》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는 또 불렀습니다.

《계시나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돌기와집으로 가셨나?)

별다른게 생기면 꼭 거부기를 찾는 산양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꼬마점박이는 곧장 돌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도 거부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를 돕느라 또 집을 나갔겠지.》
심부름을 갔다온 점박이의 말을 들은 산양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거부기네 집은 비여있었습니다.
《얘, 점박아, 아무래도 심상치 않구나. 벌써 3일째나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냐?》
산양할아버지가 신중해지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글쎄요. 왜 돌아오지 않을가요?》
꼬마사슴은 저도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점박이가 서러워하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언제인가 갓 걸음을 떼기 시작한 점박이가 독풀을 잘못 먹고 배를 그러안고 돌아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부기는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꼬박 사흘밤을 밝혔습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던 꼬마사슴은 저절로 눈물이 글썽해졌던것입니다.
《얘야, 거부기는 약을 잘 지으니 그때처럼 또 약을 가지고 이웃 곰동산에 갔는지 알겠느냐? 혹시 그곳에 환자가 생겼는지?…》
《글쎄요?》
머리를 기웃거리던 점박이는 곰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지런한 곰들은 밤나무숲에다 덧거름을 주고있었습니다.
《곰할아버지, 여기에 우리 거부기아저씨가 오지 않았나요?》
꼬마사슴은 그중 나이든 할아버지곰에게 물어보았습

니다.

《그 맘좋은 거부기말이냐?》

《네, 그래요. 사흘째나 거부기아저씨가 집을 비웠어요.》

《한 보름전에 우리 꼬마곰이 배앓이를 해서 약을 지어주고갔단다.》

《사흘전에 왔다간 일은 없어요?》

《없단다. 요사인 왔던 일이 없어.》

곰할아버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얘, 오소리네 동산에 찾아가 보아라. 누가 그쪽으로 가는걸 본 일이 있다더라.》

점박이는 오소리네 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소리들이 도토리숲의 김을 잡고있었습니다.

《오소리아주머니, 여기에 우리 거부기아저씨가 오지 않았나요?》

《그 맘용한 거부기말이냐?》

《네, 그래요. 사흘동안이나 아저씨가 집에 없어요.》

《왔다갔지. 열흘전에 우리 꼬마가 입맛을 잃었다고 펄펄 뛰는 잉어를 메다주고갔단다. 그리고는 못보았지.》

점박이는 양지동산으로 맥없이 돌아오고말았습니다. 사연을 들은 산양할아버지는 더욱 걱정이 되였습니다.

《얘, 거부기는 남의 일손을 잘 도와주군 했으니 저 속새골에 찾아가봐라. 지금 그곳에서는 한창 밭을 일군단다.》

꼬마사슴은 속새골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괭이를 든 메돼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메돼지아저씨, 여기에 거부기아저씨가 오지 않았

나요?》
《그 맘착한 거부기말이냐? 왔다갔지. 닷새전에 와서 저 속새밭을 일구는 일을 도와주었다.》
쌍이발메돼지는 신이 나서 대답하였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용한지 온몸을 쿡쿡 찔러대는 가시덤불을 제껴버리며 이틀씩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았단다. 그리고는 더 돕지 못하고 간다고 제편에서 미안해 하지 않겠니. 지금쯤은 또 어데가서 누구를 돕는지?…》
점박이꼬마사슴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울먹하다가 큰바위골을 찾아갔습니다.
물이 바른 큰바위골에서는 한창 샘줄기를 찾느라고 온 골안이 법석 끓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거부기가 나흘전에 왔다간 일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산으로 돌아온 점박이꼬마사슴한테서 그 사연을 들은 산양할아버지는 더는 그대로 있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산의 길짐승들이 모두가 떨쳐나서 거부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부기가 다니던 곳이라면 어디든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동산에서도 거부기를 찾아나섰습니다. 심지어 날짐승들도 거부기를 찾느라고 하늘을 빙빙 감돌았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거부기를 찾고 부르는 소리는 쩌렁쩌렁 메아리가 되여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3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나고 두해가 지나고 세해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거부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세번씩이나 변해도 종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해마다 그맘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때아닌 우뢰가 울었는데 그 우뢰소리는 신통히도 《거북아! 거북아!》 하는 짐승들의 부름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이 동산을 《거북골》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거부기와 함께 살던 길짐승들은 거의나 세상을 떠나고 새 짐승들이 올망졸망 태여났습니다.

그들은 그때 마을에서 제일 꼬마였던 점박이사슴으로부터 언제인가 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부기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거부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마을의 그 어느 곳에서 그와 함께 살고있는듯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하루는 뜻밖에도 그 신기한 종이 《땡! 땡!》 세차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승냥이들이 무리를 지어 이 거북골에 기여든다는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거북골의 착한 짐승들은 급히 몽둥이와 창을 들고나섰습니다. 그들은 승냥이무리들이 기여

드는 길목을 미리 지켜섰다가 단숨에 그놈들을 제껴버리였습니다.

어둠을 타서 불시에 기여들던 승냥이무리들은 대갈통이 부서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간신히 제 소굴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거북골에서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큰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길짐승들은 오래간만에 돌기와집에 모여앉아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의 기념으로 낡은 돌기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새 돌기와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하긴 그 돌기와집은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 기와도 낡고 벽들에 이끼가 새파랗게 끼였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청기와로 번듯하게 잇고 추녀도 날아가는 학의 나래처럼 멋지게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낡은 돌기와집을 허물고 주추돌을 파낼 때였습니다.

갑자기 짐승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개의 주추돌중에서 한개의 주추돌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겼기때문이였습니다.

그 《주추돌》은 한 주추돌우에 겹씌워있었는데 난생 보지 못한 이상한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찬 길짐승들은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그 《주추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짐승들은 점박이사슴할아버지를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북골의 좌상인 사슴할아버지는 본것도 들은것도 많아서 꼭 알수 있을것 같았기때문이였습니다.

꼬마노루의 손에 이끌리여 지팽이를 똑똑 짚으며 돌기와집에 올라온 점박이사슴할아버지는 눈을 가느스름

히 뜨고 그 《주추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뭇짐승들은 숨을 죽이고 사슴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구름같이 새하얀 수염을 날리며 서있던 사슴할아버지는 갑자기 《거부기아저씨!》 하고 목멘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추돌》우에 어푸러졌습니다. 후두둑 굵은 눈물방울이 비오듯 《주추돌》우에 떨어졌습니다.

한참후에 《주추돌》을 쓸어만지던 사슴할아버지는 눈물이 번쩍이는 눈을 들어 뭇짐승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애들아, 이 〈주추돌〉이 바로 너희들이 옛말로 들어오던 그 거부기할아버지다. 거부기할아버지는 30년 기나긴 세월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이 귀중한 돌기와집 기둥을 떠받들고있었구나. 한생을 주추돌이 되여 바쳐왔구나.》

뭇짐승들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어도 옛말로 들어서 너무도 잘 아는 거부기였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닌 30년씩이나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 말없이 주추돌이 되였으니 정말 거부기할아버지는!…》

그들은 돌로 굳어진 그 거부기의 잔등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애들아, 거부기들은 보통 300년도 넘게 산다는데 우리 동산의 거부기는 그 반의 반도 살지 못했구나. 그러나 결코 짧게 산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며 백발수염을 쓸어내리는 사슴할아버지의 손은 떨리였습니다.

점박이사슴할아버지가 주동이 되여 새 청기와집을 짓는

일이 시작되였습니다. 웅장한 지붕을 떠받든 네기둥밑에는 이 마을의 소문난 석공들이 쪼아 만든 거부기모양의 주추돌이 고여졌습니다.

그 거부기의 참된 마음씨를 영원히 자랑하며 빛내이려는 뭇짐승들의 마음이였습니다.

그후 이 마을에서는 거부기처럼 살기를 바라서 집을 지을 때면 주추돌을 거부기잔등처럼 다듬어놓았습니다. 지어 비석을 세울 때도 받침돌을 거부기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짧게 살아도 동산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삶은 영원한가봅니다. 거부기가 오래 사는 상징으로 된것도 아마 그 까닭일것입니다.

지금도 동해기슭의 굽이굽이를 지나서 거북골에 가면 그 주추돌을 볼수 있습니다.

주체71(1982)년

해빛이 쟁글쟁글 웃어주는 어느 중학교 교정에 커다란 종 하나가 걸려있었습니다.

그 종은 세아름도 넘는 종이였는데 구리로 만들었다는 아이도 있고 무쇠로 만들었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도 그 종의 정확한 재질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것은 이곳 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마음속에 종소리가 땡! 땡! 울려오는것이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심장이 쿵쿵 세차게 뛰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무리 어려운 수학문제도 단숨에 척척 풀어나가는것이였습니다.

이 종을 두고 이곳 학교아이들은 《부름종》이라고 불렀는데 그 리유는 제가끔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여 앞날의 역군으로 불러준다고 하여 《부름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언젠가 이 학교를 졸업한 상급생인 부름이란 아이가 이 종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말이 사실이라면 부름이란 그 상급생이 혼자서 무슨 힘으로 이 커다란 종을 만들었는지 믿기가 퍽 어려웠습니다.

어느 말이 더 정확한지는 이제 이 동화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모저모로 보아 수수께끼같은 이상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의 글줄을 세세히 읽어가느라면 종에 깃든 사연을 저절로 알게 될것입니다.

1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이곳 학교 1학년 2반에 분단위원을 하는 부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름이는 사업에서 열성은 높았지만 공부는 그리 잘하는 축이 못되였습니다.

그래서 분단위원으로 선거되기는 했으나 뒤에서 입을 삐쭉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름이의 마음은 밝지 못했습니다.

(내가 꼭 공부를 잘해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후부터 부름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는것은 물론 그날 배운 문제는 그날로 꼭꼭 소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름이는 이날도 책상에 마주앉아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문제만은 알쏭달쏭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골을 싸쥐고 암만 머리를 짜내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시계종이 8점을 치고 9점을 치더니 어느새 10점을 또 쳤습니다. 그런데 풀리기는커녕 이젠 머리속까지 흐리멍텅해졌습니다. 게다가 심술궂은 졸음이 속눈섭에 야금야금 달라붙었습니다.

(에라— 래일 아침 일찌기 일어나 풀고말아야지.)

부름이는 끝내 숙제문제를 다 풀지 못한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자리에 누우니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치락거리는데 어디선가 딸랑—딸랑— 하는 가느다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종소리일가?)

부름이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뚜릿뚜릿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이 흘러드는 집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밤일을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어머니의 팔목을 베고 씩씩 단잠에 들었습니다.

(잘못 들은 모양이구나.)

부름이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하는 이상한 종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흥얼흥얼 곡조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숙제문제 따알랑
못하고서 따알랑
잠이 오나 따알랑

어찌보면 그 종소리가 군대에 가서 영웅이 된 형님의 목소리와 비슷하였습니다.

중학교 전과정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형님은 군대에 가면서 부름이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부름아, 그날 할 일을 래일로 미룬다면 앞으로 수많은 날을 잃게 된단다. 그러니 숙제를 못하면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단다.》

부름이는 형님의 그 말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러고보면 형님의 그 말이 지금 종소리로 울리는것만 같았습니다.

부름이는 사방을 두릿두릿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른 기척은 느낄수 없었습니다.

쿵쿵 심장의 박동소리만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장에 손을 얹고보니 그 가느다란 종소리가 바로 자기의 가슴속에서 딸랑딸랑 울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종소리를 듣고나니 졸음이 싹 달아나고 정신이 초롱초롱 맑아졌습니다.

부름이는 그만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사람의 가슴을 끓게 하는 저런 종이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있구말구. 있구말구.》

심장이 쿵쿵 화답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여보려마!》

눈감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부터 열까지 세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엉?!)

정말 구슬알만한 재롱스럽게 생긴 종이 가슴우에 난딱 얹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종은 딸랑딸랑 저절로 울리더니 소방울만 해지고 딸랑딸랑 저절로 커지더니 어느새 고무공만큼해졌습니다.

종소리도 딸랑딸랑 가냘프게 울리던것이 이윽고 땡땡 야무진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고마와요, 형님. 난 형님의 마음이 종소리로 울린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종소리는 부름이를 불러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날밤, 부름이가 종소리를 들으며 책상에 다시 마주앉으니 어렵던 수학문제가 쉽게 풀리였습니다.

그후부터 부름이는 매일매일 그 종소리를 들으며 숙제공부를 하였습니다.

2

날이 갈수록 부름이의 성적은 쑥쑥 높아만 갔습니다. 한달만에는 벌써 중간축에서 벗어나고 학기말이 가까와오자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승철이와 첫자리를 다투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무들이 종종 그를 둘러싸고 저마다 학습경험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름이는 빙긋이 웃으며 그저 적당히 대답하였습니다.

《경험이라는게 따로 있니. 그저 그날 배운 문제는 그날로 다 알고지나는거지 뭐.》

이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부름이는 어쩐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들이 혹시 신기한 종의 비밀을 알고나 있지 않을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지지벌개지는걸 부름이는 애써 참았습니다.

하루는 열성자선거때 입을 삐쭉거리던 재수라는 아이까지 부름이에게 슬쩍 다가붙었습니다.

《부름아, 너 학습방법을 좀 알려줄수 없겠니?》

《흥, 나라고 밤낮 공부를 못할줄만 알았지.》

부름이는 시뜩해서 밸이 꼬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얘, 사내가 뭐 그리 꽁하니? 나같은 애가 있기에 네가 그만큼 각성하게 된것이 아니냐?》

재수는 반죽좋게 히물히물 웃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모두들 나에게 달라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부름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밤 부름이는 또 신기한 그 종소리를 들으며 숙제문제를 척척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밝지 못했습니다. 동무들 생각이 자꾸만 그의 글줄을 잡아당겼던것입니다.

(이제라도 동무들에게 신기한 종의 비밀을 알려줄가? 그리고 종도 학교교정에 걸어놓고. 아니야,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게 될텐데 내가 빛이 날수가 없지.)

애써 학급에서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함부로 내놓고싶지 않았습니다.

(에라— 학급에서 단연 첫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할 때까지 그 비밀을 대주지 말자.)

부름이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에서는 학과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부름이는 그 신기한 종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야지.)

한창 수학문제를 풀어나갈 때였습니다. 아니나다를가 그 종이 책상밑에서 땡땡! 울렸습니다. 그 순간 부름이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랐습니다.

때아닌 종소리에 놀란 동무들이 사방을 뚜릿뚜릿 살펴보기때문이였습니다.

바빠맞은 부름이는 책상밑에 손을 넣어 종을 쥐여박았습니다.

《좀 가만있지 못하겠니?》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울릴수록 커지던 종이 그후부터 점점 작아지는것이였습니다.

축구공만 하던것이 하루, 이틀사이에 고무공만 해지고 또 며칠이 지나자 다시 소방울만 해졌습니다.

종소리도 땡!— 땡!— 야무지던것이 어느새 딸랑딸랑하는 가냘픈 소리로 변하였습니다.

부름이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지 못

하는 날엔 그는 정말 한지에 건 가마신세가 될것입니다.
(제발 작아지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만 말아다오.)
그런데 어느 하루 부름이가 학교에 갔다오니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았던 종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부름이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는 눈이 빨개서 책상밑도 더듬어보고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종은 없었습니다.
(야, 종이 진짜 없어졌구나.)
실망한 부름이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부남이가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가운 일이라구야. 부남이의 손에 그 소방울만큼 작아진 종이 쥐여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 맹꽁아. 그 종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탄줄 아니?》
부름이는 너무도 반가와 눈물이 다 핑 돌았습니다.
《형, 이 소방울을 나에게 달라.》
아마 부남이는 그걸 소방울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유치원에서 이걸 울리며 하나, 둘 셈세기를 했더니 모두모두 빨간 별을 탔어. 난 래일 또 가지고갈래.》
《야, 이 바보야. 그 종이 무슨 종인줄 알고 함부로 들고다니니?》
부름이는 동생의 손에서 종을 나꾸어챘습니다.
그러자 응석받이 동생은 방안바닥에 대굴대굴 굴며 울었습니다.
《형, 나 달라, 달라! 난 래일 또 가지고간다고 아이들과 약속했어.》

부남이는 징징 울었습니다.

부름이는 할수없이 주먹을 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때엔 이 주먹맛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날밤 부름이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동생까지도 다 제또래들을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동생보다도 못한것 같았습니다. 학급에는 아직도 45분 수업시간이면 늘 뒤구석에서 쩔쩔매는 수남이와 은철이도 있고 수학문제라면 겁부터 먹는 영순이와 달호도 있었습니다. 그들모두가 이 종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면 최우등생이 되는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 이튿날 부름이는 때늦게나마 그 종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동무들,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이 종의 덕입니다.》

부름이는 동무들앞에서 종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자기 가슴속에서 나왔다는 말만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말하면 누구나 쉽게 곧이듣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학급생모두가 최우등생이 되면 부름이는 더 바랄것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종은 학교교정에서 땡! 땡! 힘차게 울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 종소리를 들으며 글소리를 높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나갔습니다.

종은 울릴수록 커가더니 한해가 지나서는 한아름이 되고 두해가 지나서는 두아름이 되였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의 성적은 높아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름이네 학급이

학교에서 맨 처음으로 최우등생학급이 되더니 나중에는 학교의 학생전체가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부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부름이는 그 신기한 종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는 부름이네를 축하하는듯 그 신기한 종이 땡! 땡! 울려주었습니다.

저 종소리를 두고 교정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종소리를 들으며 새로 자라나는 수많은 동생들이 모두가 최우등생이 될것을 그려보니 마음이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부름이는 더욱 활짝 밝아질 미래를 생각하며 정든 교정을 떠났습니다.

주체89(2000)년

봄이면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고 가을이면 과일향기 그윽한 어느 아담한 문화주택처마밑에 제비둥지가 있었습니다.

이 제비둥지에는 엄마제비와 지배라고 부르는 새끼제비가 오붓이 살고있었습니다.

엄마제비는 어쩌다가 외동이로 태여난 새끼제비에게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커가는 새끼제비를 바라보는 엄마제비의 마음은 은근히 기뻤습니다.

(얘야, 어서 커서 저 푸르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라.)

간절한 소원을 안은 엄마제비는 맛있는 먹이들을 얻어다가는 새끼제비의 입에다 꼭꼭 넣어주며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귀염둥이야, 먹이를 많이 먹어야 빨리 큰단다.》

엄마제비가 귀속말을 할 때마다 새끼제비는 《아이 맛있네, 정말 맛있네!》 하고는 입을 짝짝 벌리며 먹이를 받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그래서 엄마제비는 힘든줄도 모르고 한시간에도 열번, 스무번, 하루에 수십, 수백번이나 맛있는 먹이들을 물어다주었지요.

그리하여 새끼제비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보시시하던 털도 제법 새까만 윤기가 흐르고 만만하던 부리도 점차 돌처럼 딴딴하게 굳어져갔습니다. 이따금 새끼제비는 둥지안에서 깃을 팔딱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커가는 새끼제비를 바라보는 엄마제비의 마음은 흐뭇하였습니다.

(다 커가는데 이제는 먹이찾는 법을 배워주어야지…)

엄마제비는 별들이 총총한 밤이면 지배를 품에 껴안고 지혜를 키워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배야, 저 파리라는 먹이는 집근처에 있고 모기는 물웅뎅이주변에 많이 산단다.》

엄마제비가 먹이찾는 법을 대주기 시작하자 지배는 귀담아듣는지 머리를 까닥거리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팔랑팔랑 나비는 꽃을 찾아다니니 나비를 잡으려면 꽃밭을 먼저 찾아야 한다. 배가 똥똥한 베짱이는 풀숲에 있고…》

엄마제비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열심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새끼제비는 말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덮어놓고 머리를 까닥거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얘야, 네가 정말 듣니?》

《엄마두, 정말 듣지 않구요.》

새끼제비는 제법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참, 엄마두, 크며는 저절로 알게 될걸 가지구 자꾸 시끄럽게 구네. …)

그러나 엄마제비는 귀여운 지배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얘야, 귀담아듣거라. 그리고 비가 올무렵이면 모기나 하루살이들은 날개가 무거워 땅우에 낮게 떠도니 그것을 잡자면 땅을 스치면서 날아야 한단다. 알아듣니?》

새끼제비는 또다시 머리를 까닥거렸습니다.

엄마제비는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을 하나, 둘 세여보며 다시 먹이잡는 법을 차근차근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대답이 없어서 들여다보니 지배는 어느새 쿨쿨 자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얘가 몸이 고단한 모양이구나.)

엄마제비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으나 단잠이 든 새끼제비를 깨울수가 없어서 그냥 포근히 껴안고 함께 자고말았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뜰앞에 있는 배나무에 꽃이 지고 주먹만한 열매가 맺히더니 어느덧 지배의 날개도 한뽐이나 자라났습니다.

한낮이면 지배는 제법 둥지에서 날아나와 배나무가지에 앉아있기도 했고 이따금 푸르른 하늘가로 나래쳐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먹이를 찾는 법은 그만하구 이젠 나는 힘을 키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엄마제비는 어린 새끼제비를 뒤에 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배야, 인젠 나는 힘을 키우면서 엄마하구 들구경을

나가자.》
《엄마, 그게 정말이예요? 아이, 좋아라.》
새끼제비는 앉은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며 춤을 추더니 곧 엄마제비를 따라 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늘가로 솟구쳐오르면 자기도 솟구쳐오르고 엄마가 날개를 치면 같이 날개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발아래를 굽어본 새끼제비는 저도모르게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말 그림같은 정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없이 펼쳐진 푸르른 남새밭에 철탑같은 무쇠막대기들이 줄을 지어 열병행진을 하고있는데 글쎄 그 철탑끝에서 바람개비같은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약비를 뿌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배는 구름 한점없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녹두알만한 눈알을 떼굴떼굴 굴렸습니다. 그가 눈알을 굴리는 사이에 남새밭에 뽀얀 물안개가 한벌 자욱히 덮이더니 그 물안개속에서 비단필같은 칠색무지개가 곱게 비끼면서 크고 작은 다리를 수없이 아롱아롱 수놓는것이였습니다.
글쎄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눈깜빡할사이에 그 무지개다리밑에서 갖가지 꼬마남새들이 우쭐우쭐 키를 솟구치더니 금시에 고무풍선처럼 팽팽 불어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무쇠철탑의 이마에 내려앉아서 이 놀랍고도 희한한 광경을 바라보던 지배는 연신 《지—배, 지—배.》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지배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땅이란다. 너도 어서 날개에 힘을 키워서 저 남새밭에 벌레 한마리 얼씬 못하게 부지런히 일해야 한단다.》

엄마제비는 지배에게 이런 의미깊은 말을 해주며 벌판에서 숲속으로, 숲에서 하늘가로 끝없이 날아올랐습니다.

지배는 엄마를 따라 줄곧 깃을 쳤습니다.

솟구치면 흰구름이 닿을것만 같았고 몸을 숙이면 푸르른 남새밭이 한가슴에 안겨오는것만 같아 지배는 정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날아보니 지배는 어느새 날개죽지가 막 나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젠 딱 쉬고만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가지에 살그머니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쉬고보니 날개죽지가 더더욱 아파나는것만 같아 더는 날고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인젠 그만 날자요.》

《조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 순간을 이겨내야 나는 힘을 키울수 있단다.》

《엄마, 나는 련습을 해서 뭘하나요?》

《응, 그래야 잘 날게 되고 먹이도 많이 잡을수 있지.》

《날개가 자라면 저절로 날게 되는데 엄마는 공연한 걱정만 하시네.》

지배는 전선줄에 내려앉으며 깃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지. 첫날이니까 힘이 들어서 그럴테지!)

엄마제비는 깃을 접은 지배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지배는 엄마제비를 따라 얼마쯤 날다가는 전선줄에 내려앉아 눈알을 굴리며 남새밭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그것도 싫어졌는지 둥지 안에서 뱅뱅 돌아치며 아예 날아오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니 얘가 점점 게을러져가는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힘으로 먹이를 잡을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지.)

엄마제비는 어느날 아침 지배를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지배야, 오늘 나는 몸이 좀 아파서 벌레잡이를 못 나가겠구나.》

그러자 새끼제비는 깜짝 놀라며 《엄마, 어떻게 아파요. 그럼 딱따구리의사네 집으로 가자요.》 하고 엄마제비의 깃을 붙잡았습니다.

《일없다. 크게 아프지 않으니 며칠만 집에서 쉬면 나을게다. 그러니 네가 오늘부터 수고를 좀 해야겠구나.》

《수고를 하다니요?》

《응, 먹이를 잡아오는걸 네 혼자의 힘으로 해보란 말이다.》

《나 혼자의 힘으로요? 그건 걱정마세요.》

지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듯 생긋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님이 동산마을에 얼굴을 갸우뚱 내밀자 지배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내가 벌레를 얼마나 잘 잡는가 엄마에게 보여줘야지.)

지배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조그마한 자루까지 척 차고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먹이를 쪼물짝하게 한마리 두마리씩 물고올것이 아니라

한자루 가득 채워서 지고올 생각이였습니다.

(그때면 엄마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랄거야.)

지배는 엄마제비의 눈이 휘둥그래지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집주위를 한번 돌고나서 하늘가로 나래쳐올랐습니다.

그러나 집을 날아나온 지배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가? 내가로 갈가? 숲으로 갈가?)

지배는 집둘레를 뱅뱅 돌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에 가면 무슨 벌레가 있다고 했던가? 그리고 숲속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먹이야 넓다란 하늘에 많겠지. 그래서 엄마가 하늘가로 솟구쳐오르는 법부터 먼저 배워주지 않았나.)

지배는 흰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아득한 하늘가로 그냥그냥 솟구쳐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좋게 발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배가 살고있는 네귀번듯한 기와집이 언젠가 엄마와 함께 본 일이 있는 꿀벌통만 하게 보이더니 차츰차츰 작아져서 성냥곽만 하게 보이고 나중에는 하나의 점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무척 높이 올라왔구나.)

지배가 이렇게 생각하며 날개를 치니 글쎄 흰구름이 깃에 닿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본때있게 벌레잡이를 해보자. 이 자루는 먹이가 가득 찰 때까지 구름우에 얹어놓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거야.)

지배는 하늘을 가로세로 썰며 쏜살같이 날아다녔습니

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넓고넓은 하늘에 벌레 한마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두알만한 눈알을 뗴룩뗴룩 굴리며 잠시 구름우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지배는 언젠가 별이 총총하던 날 밤에 엄마가 대주던 이야기가 꿈속에서처럼 아리숭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까닥까닥 졸면서 귀담아듣지 않았던 탓에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더듬어도 물웅뎅이와 풀숲, 꽃밭이라는 말마디밖에는 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야, 엄마가 이래서 딴생각을 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고 했구나. 할수 없지. 물웅뎅이나 찾아보자.)

지배는 구름우에 얹어놓았던 빈자루를 옆에 끼고 아득한 하늘가에서 땅우로 날아내려왔습니다.

정말 맥이 났습니다.

해별이 쨍쨍 내려쪼이는 물웅뎅이를 찾아가보았으나 거기에도 먹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웅뎅이주변을 몇번 날아돌았으나 땀만 줄줄 흐르고 날개죽지만 아파났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제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으니 풀숲에 숨었던 모기와 하루살이들이 서늘한 저녁녘에야 무리를 지어 물우에 날아오른다는것을 알수 없는 지배였습니다.

지배는 너무도 맥이 빠지고 지쳐서 웅뎅이옆 풀밭에 빈자루를 집어던지며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풀숲에서 풀색옷을 입은 방아깨비 한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옳지, 저놈을 잡아다 엄마한테 드려야지.)

지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갔습니다. 방아다리는 다

시 풀숲에 내려앉아 갈색눈알을 번들거리다가 날면서 잡자고 하면 풀숲으로 홀짝홀짝 뛰여들고 풀숲을 헤치면 다시 날개를 치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한사코 쫓아가니 이번에는 풀숲에 잦아들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방아깨비는 풀잎과 똑같은 색갈의 옷을 입었기때문에 지배와 같은 풋내기는 얼마든지 속여넘길수 있었던것입니다.

지배는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풀밭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날개죽지가 막 불로 지지는듯 아프고 맥이 빠져 이제는 방아깨비가 앞에 날아들어도 잡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야, 엄마가 이래서 나는 힘을 키우라고 했구나.)

지배는 때늦게나마 엄마제비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던 지난날을 눈물겨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먹이 하나 구하지 못하고 온종일 날아돌기만 했더니 배까지 쪼르륵쪼르륵 고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자신의 이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앓고있는 엄마제비한테 빈손으로 돌아갈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럭무럭 자라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날기련습도 안하고 제멋대로만 놀았으니…)

지배는 서산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제 설음에 못이겨 눈물을 뚝뚝 떨구며 콜짝콜짝 울었습니다. 이때 그우로 날아지나던 까치아주머니가 지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왜 섧게 우니? 엄마를 잃었니?》
지배는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니?》
《아니예요.》
지배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낀 자루는 뭐니?》
《… …》
까치아주머니는 온갖 새들이 다 포근한 잠자리를 찾아드는 이 저물녘에 풀밭에 외로이 앉아서 슬피 우는 이 어린 제비에게 무척 동정이 가서 차근차근 캐여물었습니다.
《까치아주머니, 사실은…》
지배는 떠듬떠듬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까치아주머니는 《그것 참 안됐구나. 그럼 잠간만 기다려라.》 하고는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이윽하여 큼직한 방아깨비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자, 이걸 엄마에게 가져다드려라. 내 이제 더 큰걸 잡으면 너의 집에 가지고 가지.》
지배는 까치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몇번이나 머리숙여 인사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떠날 때에 먹이를 한가득 잡아오겠다고 벼르고벼르던 그 조그마한 자루속에 방아깨비 한마리를 넣어가지고말이지요.
해가 지도록 나타나지 않는 지배를 기다리며 속을 조이던 엄마제비는 지배가 날아들자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

습니다.

《늦도록 수고했구나.》

지배는 엄마제비가 깃을 쓰다듬어주는 바람에 막혔던 설음이 또다시 북받쳐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네가 방아깨비를 다 잡고 정말 용쿠나!》

엄마제비는 지배를 포근히 껴안아주었습니다.

새끼제비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게 아니예요. …》

지배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제비의 품에 볼을 마구 비볐습니다.

《엄마, 용서하세요. 제가 철부지였어요.》

지배는 하루동안에 있은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난 엄마가 대주는것을 잘 배우지도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날기련습도 안했어요. 엄마, 날 용서해주세요.》

울먹거리며 몸부림치는 지배를 꾹 껴안은 엄마제비의 눈에도 반가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체67(1978)년

집터를 잘 골라서 집을 짓는것은 뭇새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집터를 잘 골라야 아담하고 포근한 집도 지을수 있고 또 자기의 알과 어린 새끼들을 잘 보호할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착한 새들은 집터를 고르는데 늘 큰 관심을 둔답니다. 심심산골에서 흐르는 개울을 끼고사는 물쥐새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쥐새는 사철 새까만 옷을 입고 사는 병아리만한 작은 새인데 얕은 물에 사는 딱정벌레와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산답니다.

언제나 물에서 사는 물쥐새는 어떻게 하면 제 생김새와 제 살림살이습성에 꼭 알맞는 곳에 집을 지을것인가를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째나 개울을 훑어보았으나 별로 마음에 드는 집터를 물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낼수 없었습니다.

(한번 다른 새들과 의논해볼가?)

어느날 물쥐새는 집터를 잘 고르기로 소문난 꾀꼴새를 찾아갔습니다.

물쥐새가 한참 숲속을 누비며 꾀꼴새를 찾고있는데 어데선가 《고— 고빌리》 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

려왔습니다. 노래소리에 반해서 한참이나 넋을 잃은듯 서있던 물쥐새가 깃을 치며 나무우에 날아오르니 글쎄 그 새가 바로 누런빛으로 곱게 몸치장을 한 꾀꼴새가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물쥐새는 꾀꼴새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건늬였습니다.

《아니 네가 개울을 끼고사는 물쥐새가 아니냐?》

꾀꼴새가 제법 아는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물쥐새는 한결 마음이 가뜬해져서 《사실은 집터를 고르는 일을 너와 좀 의논하러 왔는데…》 하면서 찾아온 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물쥐새의 이야기를 듣고난 꾀꼴새는 좀 난처해하였습니다.

《글쎄 새들마다 이렇게 의논하러 오니 고맙기는 한데 우리라고 무슨 특별한 재간이 있는것은 아니란다. 그저 남들보다 집터를 고르는 일에 더 마음을 쓸뿐이란다.》

사실 그랬습니다.

꾀꼴새들은 집터를 고르는데 여간만 마음을 쓰지 않는답니다. 꾀꼴새들이 따뜻한 남쪽에서 벌레잡이를 하고있을 때에 그중에서 경험많은 꾀꼴새 하나가 먼저 북쪽에 와서 집터를 잡아놓은 뒤에야 남쪽으로 되돌아가서 제무리를 이끌어오군 한답니다.

《그러나 네가 우정 이렇게 찾아왔으니 우리가 어떤 곳에 집터를 정하는가를 보고 가려무나.》

꾀꼴새는 물쥐새에게 집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꾀꼬리의 집은 황철나무의 제일 우듬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은 제 몸무게나 겨우 견디여낼수 있

는 가지의 맨끝에 둥지를 묘하게 대롱대롱 매달아놓은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소슬바람만 불어도 둥지가 한들한들 춤추는것이 마치도 그네를 뛰는것만 같았습니다.

(저런 집에서 사니 노래소리도 구슬을 굴리는듯 아름다울수밖에…)

물쥐새는 꾀꼴새가 정말 묘한 집터를 잡았다고 몇번이나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꾀꼴새의 집은 어지럼증을 잘 타는 물쥐새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하자면 자기는 개울에 가야겠는데 여기서는 개울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집을 구경시켜주어서 정말 고맙다.》

물쥐새는 꾀꼴새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숲속 어디에선가 《따르륵 따르륵…》 하고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쥐새는 그 새가 딱따구리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물쥐새는 딱따구리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딱따구리의 집은 분비나무의 허리에 구멍을 뚫고 안에 보드라운 짐승의 털이나 마른 이끼, 엷은 풀잎들을 두툼하게 깔아놓아 보기만 해도 저절로 잠이 올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딱따구리의 집도 물쥐새의 생김새와 성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터도 좋고 꾸리기도 잘했구만요. 그러나 내 재간으로는 이런 집을 지을수가 없군요. 나는 여태까지 나무에 구멍뚫는 일이란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물쥐새는 딱따구리에게 듣기 좋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물쥐새는 부리가 얄팍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을수도 없었고 또 물가에서 살다보니 밝고 시원한 곳을 좋아하는 제 성미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찌르레기의 집처럼 여기에서도 개울이 너무 멀었습니다.

물쥐새는 오는 길에 숲속에서 동고비며 나무발바리, 접동새, 개구마리, 어치, 긴꼬리올빼미도 다 만나보았으나 역시 그들의 집터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사는 새들한테서는 별로 도움을 받을수 없군. 나야 물에서 살다보니 물새들과 의견을 나눠보아야지.)

물쥐새는 물에서 사는 새들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원앙새부터 찾아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필경 원앙새야 아름다우니까 집터도 물가 경치좋은 곳에 잡았을테지.)

물쥐새는 이렇게 생각하며 원앙새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원앙새는 맑고 시원한 찬물에서 은행나무잎모양으로 곱게 생긴 깃털을 씻고있었습니다.

물쥐새의 이야기를 듣고난 원앙새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집터란 그저 정하기탓이란다. 나는 흔하디흔한 물가의 바위틈에다 자리를 잡는단다.》

(아니 뭐 바위틈에?!)

물쥐새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앙새를 따라가보니 정말 집터를 벼랑바위의 틈사리에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그저 평범한 바위틈에다가 자리

를 잡다니?)

물쥐새는 깃이 축 처져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앙새는 물쥐새가 이런 심정에 잠긴줄도 모르고 더더욱 신나서 한수를 더 떴습니다.

《나는 이런 돌틈도 맞춤한 곳이 없으면 키높은 나무의 구새통에다가 자리를 잡기도 한단다. 나는 집터를 고르는 일보다 집안팎을 잘 꾸리는데 늘 더 마음을 쓰거던.》

원앙새의 집터는 평범했지만 집안팎만은 정말 멋지게 꾸렸습니다.

집주변에 동글납작한 조약돌을 깔아 마당을 아담하게 꾸린것만 봐도 그것을 대뜸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쥐새는 집터를 보러 왔지 집안팎을 꾸리는 방법은 듣고싶지 않았습니다.

(원앙새와 집터를 고르는 일을 의논해야 더 얻어들을것이 없군.)

물쥐새는 이런 생각을 하니 맥이 풀렸습니다.

《하여튼 집을 구경시켜주어서 고맙다.》

물쥐새는 원앙새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개울을 따라 헤엄치며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개울을 따라 내려오느라니까 앞에서 무슨 자그마한 떼목배같은것이 둥둥 떠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니 뒤에서는 어떤 새가 그것을 잡고 헤엄을 치고있었습니다.

(헤엄치기를 익히는 모양이군.)

물쥐새는 그 물새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주리라고 생각하고 빨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보니 그 새

는 이미 알고있는 뿔농병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떼목배》는 다름아닌 뿔농병아리의 집이였습니다.

《아니 뭘 하길래 둥지를 물우에 띄워놓았니?》

《넌 아직도 내가 물우에다 둥지를 트는줄을 모르니?》

뿔농병아리는 도리여 의문된다는듯 물쥐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　…》

뿔농병아리는 집터를 한곳에다 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마른 풀줄기와 잎을 모아서 둥그런 떼목배와 같은 둥지를 만들어 물우에 둥둥 띄워서 틀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짐승들은 이 새의 둥지를 찾아내지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사는 도적갈매기같은것이 둥지를 습격하여 알과 새끼를 먹어치울수 있으므로 뿔농병아리는 자리를 뜰 때면 둥지우에다 풀을 덮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리할 때는 지금처럼 물에서 헤염을 치면서 둥지를 가슴으로 슬슬 밀어서 다른쪽 물가로 옮겨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물속에서 자맥질도 잘하며 물안에서 수백메터씩 헤염쳐가는 뿔농병아리에게는 이런 집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물쥐새에게는 조금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쥐새는 뿔농병아리의 집을 함께 떠밀어주고는 되돌아섰습니다.

(물새들한테서도 집터를 고르는 일을 두고 시원한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물쥐새의 생각은 허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출출》 하는 물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들고보니 맞은편 강가의 흙벼랑을 파고있는 물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날아가보니 다름아닌 물촉새였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서 뭘하니?》

언제나 물고기들을 노리면서 물가의 돌짝대기에 까딱않고 앉아있군 하던 물촉새가 흙벼랑을 파길래 물쥐새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응, 집을 짓는중이야.》

물촉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바람에 물쥐새의 귀는 번쩍 띄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집문제를 먼저 묻자던 참이란다.》

물쥐새는 물촉새에게 마지막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물촉새가 집을 짓는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처음 물쥐새는 물촉새가 흙을 파서 그 흙으로 어떤 다른 곳에 집을 짓는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나 지켜보니 글쎄 물촉새는 덮어놓고 진흙벼랑에 구멍만 깊숙이 파고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넌 이 진흙벼랑에 집터를 정했니?》

물쥐새는 보다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구. 나는 이렇게 구멍을 깊숙이 파고 구멍의 제일 안쪽에 둥지를 튼단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이나 잔물고기가시들을 깔고 거기에 알을 낳는단다. 나는 그저 굴을 파고 집을 짓는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거던.》

(야— 이건 숲속의 딱따구리와 집터를 정하는 방법이 꼭 같구나.)

물쥐새는 더 볼 재미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 성미에 꼭 알맞는 집터에서 사는 새들은 없구나.)

물쥐새는 집터를 고르는 일을 두고 다른 새들과 더는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위우에 깃을 가다듬고 넌떡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이때 물쥐새가 집터를 보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뻐꾸기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구나.》

뻐꾸기는 제법 반가운체를 하며 할딱거렸습니다.

(이 건달군같은 녀석이 왜 징글맞게 굴가?)

물쥐새는 저도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자 뻐꾸기는 한걸음 다가오며 《얘, 물쥐새야! 공연히 집터를 보러 다니느라고 수고할게 있니. 나처럼 실컷 놀다가 남의 집에다 슬쩍 알을 낳으면 될텐데…》 하고는 또다시 징글맞게 웃었습니다. 물쥐새는 뻐꾸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놈은 알낳이철이 되면 새매의 흉내를 내며 착한 새들을 집에서 내쫓고는 그 새들의 집에다가 슬쩍 제 알을 낳고 가군 하였습니다.

뻐꾸기는 이렇게 남의 《신세》로 알을 깨우고 새끼를 기르는 건달이였습니다. 물쥐새가 노기를 참으며 말이 없자 뻐꾸기는 그가 자기의 말에 귀가 솔깃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저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 이제라도 나하고 산천구경이나 가자꾸나.》

그바람에 밸이 울컥 치민 물쥐새는 《짝—짝!》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건달같은 놈아! 입을 다물고 썩 물러가지 못하겠니.》

뻐꾸기는 뒤걸음을 치면서 비실비실 물러갔습니다.

물쥐새는 뻐꾸기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밸이 그냥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집터를 골라잡느라고 돌아치니까 제놈과 배속이 꼭같은줄 아는 모양이지. 내 네놈이 보란듯이 집터를 골라서 멋진 집을 짓고야말테다.)

인제는 자기의 힘으로 집터를 골라잡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집터를 꼭 골라잡을테야.)

물쥐새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물가를 다시금 훑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결심을 품어서인지 걸음새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던 곳도 그저 지나칠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송사리떼—… 소리치며 흐르는 여울, 그 여울목에 날리는 물갈기—… 그리고 이끼돋은 너럭바위, 물가에 그늘을 지으며 휘늘어진 버드나무…—

어디를 둘러보나 그저 지나칠수 없는 정다운 곳이였습니다.

물쥐새는 어느덧 폭포수밑에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한낮에도 뽀얀 물안개를 일구며 떨어지는 폭포수는 보기에도 멋있었지만 그옆에 서니 가슴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안개속에 어리는 칠색무지개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생각같아서는 당장 소소리높은 그 폭포수우에다 집터를 정하고싶었습니다.

물쥐새는 그런 욕망에 잠겨 줄곧 폭포수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폭포수를 뚫고 들어가볼가. 그러다가 세찬 물벼락에 날개라도 상하면 어쩌나?)

물쥐새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감돌기만 하였습니다.

(아니야. 좋은 집터를 구하는 일인데 망설여서는 안되지.)

물쥐새는 큰 마음을 먹고 대담하게 폭포수를 뚫고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글쎄 떨어지는 폭포수뒤에 물이 닿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꿈같은 일이로구나!)

물쥐새는 너무도 기뻐 꼬리를 달싹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빈 공간에다 집터를 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른 풀이끼며 잔나무가지들을 물어다가 부지런히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딱따구리처럼 보기만 해도 잠이 소르르 올것만 같은 집을 짓자면 하르르한 깃털들도 물어와야지. 그리고 원앙새처럼 집주변에 동글납작한 조약돌도 깔아놓고…》

물쥐새는 새들의 집을 둘러보고나서 얻은 좋은 점도 한두가지 참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물쥐새가 묘한 집터를 골랐다는 소문을 듣고 숲속의 꾀꼴새며 딱따구리, 개구마리, 어치, 물에서 사는 원앙새며 뿔농병아리, 물촉새 지어는 바다새들인 갈매기와 갈버지, 호구니까지 앞을 다투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쥐새의 집앞에 당도한 새들은 저저마다 폭포수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물갈기를 날리는 폭포수에 기가 질렸던 모양입니다.

《일없어요. 나도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정작 뚫고들어가면 아무일도 없어요.》

새들은 물쥐새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폭포수를 뚫고들어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멋진 집이 어데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상쾌한 폭포수를 문으로 삼고 천년 이끼덮인 벼랑에 잔나무가지들을 차곡차곡 덧쌓아 만든 벽이며 지붕 그리고 방 옹근 한면에는 덧창문을 크게 해달았습니다.

또 깃털을 깔아놓은 잠자리며 사철 물안개가 어리는 샤와실은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그리고 쉼없이 들려오는 폭포소리는 또 어떻구요.

그 폭포소리를 들으면 가슴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집이 더는 있을것 같지 않았습니다.

밝고 시원한것을 좋아하는 물새의 성미와 사철 물에서 사는 그의 생활습성에 꼭 들어맞는 집이였습니다.

더더욱 좋은것은 물줄기뒤에 생기는 빈 공간에다 집을 지었으므로 집을 드나드는것이 꼭 물속으로 들어가는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알과 새끼를 까고 기르기에도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정말 폭포수를 위장물로 삼고 《물속》에 지은 더없이 훌륭한 집이였습니다.

집안팎을 들락날락하며 구경하던 새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쥐새가 명당자리를 잡았지요.》

《이런 명당자리야 꼭 제 눈으로밖에는 볼수 없다니까요.》

《그렇구말구요.》

뭇새들의 칭찬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쥐새의 집을 두고 제일처럼 기뻐하며 웃고 떠들던 새들은 어둠이 깃들자 모두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물쥐새는 그후에도 오래동안 한자리에 그린듯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지. 제 식에 맞는 집터야 제 눈으로 골라잡는것이 제일이구말구. 남의 경험을 듣고 보는것도 좋지만 역시 제 눈이 밝아야 한다니까.)

물쥐새는 만족감에 휩싸여 흐뭇이 웃었습니다.

주체68(1979)년

해마다 더운 물줄기가 밀려오는 오뉴월이 되면 우리 나라 동조선만에서는 물고기들의 헤염치기경기가 벌어진답니다. 여기서 1등을 한 물고기에게는 《명수》칭호와 큰 메달을 수여하는 굉장한 모임을 가지군 합니다.

물고기들은 누구든지 이 경기에 한번 나서보려고 언제나 맹렬한 훈련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밤색의 연한 옷을 입은 낙지의 경우만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경기에서 우승할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는 하면서도 감히 경기에 나서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낙지랍니다.

왜냐하면 낙지에게는 물고기의 기본운동기관인 지느러미가 발달되지 못한데다가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엉덩이지느러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삼각형모양으로 된 두리뭉실한 꼬리지느러미가 있기는 한데 그 지느러미마저 통짜로 너풀거려 다른 물고기들처럼 헤염치는데 유리하게 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뿐인줄 압니까? 글쎄 낙지는 이상스럽게도 뼈도 없고 둥근 통처럼 생긴 몸뚱이에다가 10개의 다리가 붙어있고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한가지 낙지에게 우월한 점이 있다면 먹물주머니가 몸뚱이안에 있어 다른 물고기들이 해를 주려고 할 때에 루두로 먹물을 쏘아 물을 흐리게 하고 도망치는 재간뿐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어디까지나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만 쓸뿐이지 헤염치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내가 경기에 참가한다는건 부질없는 장난에 불과해.)

낙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경기에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낙지는 어지간히 깊은 바다에서 친한 이웃들인 대구랑, 가재미랑 함께 숨박곡질을 하며 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딱!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씽 하고 날아와 그들의 곁에 떨어지는것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낙지가 저도모르게 뒤걸음치면서 가만히 쳐다보니 그것은 언제나 땅속에 파묻혀사는 밥조개였습니다.

《아니, 너도 헤염쳐다니니?》

사실 여태까지 낙지는 조개들이란 움직이지 못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자 밥조개는 피씩 웃으며 《왜 우리라고 그런 재간이 없겠니? 자— 봐라.》 하고는 조가비를 열었다 닫았다하면서 물을 세차게 뒤로 밀며 헤염치는것이였습

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헤엄치는 련습을 안하니? 오면서 보니까 숱한 고기들이 다 경기에 참가할 련습을 하던데…》

밥조개가 숨박곡질만 하는 이들이 이상해서 묻는 말이였습니다.

《우리들은 헤엄치는 재간이 없어그런다.》

가재미와 대구가 어설프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별나구나. 고기마다 숨은 재간이 다 있다는데…》

밥조개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또다시 《딱! 딱!》소리를 내며 헤엄쳐가는것이였습니다.

그날부터 낙지의 귀가에는 《참 별나구나. 고기마다 숨은 재간이 다 있다는데…》라고 하던 밥조개의 말이 언제나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았습니다.

고기마다 숨은 재간 모두 있는데
우리라고 재간이 어이 없으랴
락심말고 헤엄치기 익히고 익혀
기어이 명수가 되고야말리

낙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마침내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후부터 낙지는 10개의 다리로 물을 휘저어도 보고 꼬리지느러미를 너풀거려도 보면서 부지런히 헤엄치기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는것이 없었습니다. 가끔가다 루두로 먹물을 쏠 때면 몸뚱이가 앞으로 갈 대신에 오히려 뒤로 재빨리 물러나군 하였습니다.

(이것 참 기막히는 노릇이군.)

낙지는 생각다못해 헤엄치기에서 소문난 물고기들을 찾아가 그들의 재간을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경기에서 선수권을 쟁취한 날치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망망한 바다에서 어떻게 날치를 쉽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낙지는 하루종일 바다를 헤매였으나 날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는 벌써 수평선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멀리서 새 한마리가 총알같이 씨잉 날아왔습니다.

(애타게 찾는 날치는 나타안나고 청하지도 않는 새만 나타나는군.)

낙지가 혼자말로 두덜거리는데 날아오던 새는 철썩하고 물에 떨어지며 코앞으로 쑥 미끄러져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지는 흠칫 놀라며 뒤걸음질쳤습니다.

여차하면 먹물을 쏘아줄 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낙지의 이러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낙지앞으로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뒤걸음질 잘하는걸 보니 분명히 낙지로구나.》

낙지는 그만 벙벙해졌습니다. 물고기도 아닌 날새가 자기를 알아보는것이 여간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뜯어보니 그것은 날새가 아니라 그토록 찾고있던 날치였습니다.

《날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낙지가 너무도 기쁜김에 푸념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뭐, 나를 찾아다녔다구?》
날치는 점잔을 빼며 이렇게 말을 되뇌였습니다.
《사실은 너에게서 헤엽치는 재간을 배우려고…》
《오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열리는 헤염치기경기에 나서보려구.》
날치는 한동안 낙지의 생김생김을 훑어보더니 이윽고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얘, 헤염치기라는건 지느러미로 하는 일인데 그 두리뭉실하게 생긴 고깔모자같은걸 가지고 어떻게…》
날치는 말을 하다말고 깔깔 웃었습니다.
《나를 좀 보려무나. 암만 못해도 이쯤이야 돼야지.》
날치는 언제나 자랑하기 좋아하는 한쌍의 가슴지느러미를 쭉 펴보였습니다. 그 가슴지느러미는 몸뚱이로부터 꼬리끝까지 잇닿아있었는데 금시에 물을 차고 오를것만 같았습니다.
《내 가슴지느러미는 말하자면 새들의 날개와 같거던.》
날치는 이렇게 제 자랑을 하다가 물에서 튀여나와 공중을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날아가다가는 물에 떨어지고 물에 떨어졌다가는 다시 날면서 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눈 깜박할 사이에도 자그만치 200메터쯤은 식은죽먹기로 난단다. 그래 내가 너에게 헤염치기재간을 배워준다고 해도 네 고깔모자로써야 경기에 어떻게 나가겠니.》
날치는 지느러미를 잔뜩 추켜세우고 으시대다가 불쑥 물을 차고 날아가버리는것이였습니다.

날치한테서 모욕을 당한 낙지는 단번에 온몸이 고추빛이 되였습니다.

(내가 네놈의 코대를 반드시 꺾어버리고말테다!)

낙지는 다시한번 속다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에서 돛배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오고있었습니다.

(야, 나도 저 돛배처럼 돛이라도 있었으면!)

낙지는 돛배가 여간만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돛배는 어느새 낙지의 곁에 와 문뜩 멈춰섰습니다.

찬찬히 보니 배가 아니라 돛을 달고 다니는 물고기였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어떤 물고기인데 그렇게 쉽게 바다를 헤염쳐다니는가요?》

그러자 그 고기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헤염치기재간이 부럽단 말이지?》

그 고기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내 헤염치기재간이라는게 별게 아니란다. 네가 보다싶이 나는 돛처럼 높은 등지느러미를 물밖에 내밀고 물우에 둥둥 떠서 바람에 밀려다닌다. 달리는 원리가 돛배와 꼭같다고 하여 모두들 나를 〈돛고기〉라고 부른단다.》

돛고기는 이렇게 말하며 그 높은 등지느러미를 쭉 펴보였습니다. 정말 그 등지느러미는 돛과 꼭같았습니다.

(저런 등지느러미를 가지고있으니 바다를 쉽게 헤염쳐다닐수밖에 없지.)

낙지는 돛고기의 등지느러미를 한참이나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제 몸뚱이를 보니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차라리 뱀장어를 찾아가보거라. 뱀장어는 지느러미가 없어도 헤염을 썩 잘 치더구나.》

《그래요?》

낙지는 무등 기뻤습니다. 자기와 같이 지느러미가 없는 뱀장어를 어서 만나 헤염치기재간을 배우고싶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물속은 컴컴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지는 쉬지 않고 헤엄쳐 감탕이 많은 어느 해안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불쑥 낙지의 옆으로 몸을 꾸불딱거리며 지나가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낙지는 자칫하면 그 고기를 놓칠가보아 무작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 앞에 가는게 뱀장어가 아니냐?》

그러자 그 고기는 우뚝 멈춰섰습니다. 마침 뱀장어였습니다.

멈춰선 뱀장어를 쳐다보던 낙지는 그만 허거프게 웃었습니다. 글쎄 몸뚱이의 길이는 자기의 곱이나 되지만 마름처럼 약해서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돛고기한테서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낙지는 정색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지느러미도 없이 어떻게 헤염을 잘 치니?》

그러자 뱀장어는 소리없이 웃으며 《나는 이 가느다란 몸뚱이를 꾸불거리며 바다를 주름잡는것이 더 빠르단다.》

뱀장어는 이렇게 말하며 얼마쯤 헤염쳐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말보다도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심산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낙지에게는 뱀장어의 그 헤염치기재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낙지는 뱀장어처럼 쉽게 몸을 꾸불거릴수도 없었거니와 또 정작 그렇게 헤염친다 해도 날아다니는 고기를 따라잡을수 없을것만은 뻔한 일이였습니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다 모두 다녀도
내 몸에 맞는 재간 배울수 없네
하나부터 열까지 열부터 백까지
내 식으로 헤염쳐 배워가리라

낙지는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후부터 끼니도 잠도 잊으면서 헤염치기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나면 그 어떤 방법이 떠오를것만 같았습니다.

낙지는 날치의 가슴지느러미나 돛고기의 등지느러미 그리고 뱀장어의 마름처럼 생긴 몸뚱이처럼 재빨리 헤염치기에 필요한 그런 남다른것이 자기에게는 무엇일가 하고 궁리해보았으나 좀처럼 떠오르는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낙지가 헤염치기재간을 배워보려고 온 바다가를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재미와 대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좀 배워온 재간이 있니?》

가재미가 물었습니다.

《뭐 특별한게 없더구나.》

낙지가 시무룩해서 하는 대답이였습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우리같은 평범한 물고기들이야 그저 구경만 해도 과한 일이지.》

가재미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보려무나, 이렇게 미끈하게 생긴 나도 아직 한번 헤염치기경기에 나가본 일이라곤 없어. 공연히 망신을 사서 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것이 제일이라니까.》

대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긴 낙지 네가 먹물을 쏠 때같으면 넓은 바다를 단숨에 헤여건늘것 같더구나.》

시무룩해있는 낙지를 위로하며 가재미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 순간 낙지에게는 번개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먹물을 쏜다?… 옳지!)

낙지는 환성을 올리며 가재미와 대구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말은 그럴듯하다만은 그게 그렇게까지 은을 내겠니?》

《아니 나는 꼭 될수 있다고 생각해.》

확신에 찬 낙지의 말이였습니다.

그후 낙지가 헤염치기훈련을 어떻게 하였는지 제 눈으로 본 고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지는 깊은 바다에 나가 그야말로 맹렬하게 헤염치기련습을 했습니다.

드디여 헤염치기경기가 벌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온 바다가 들썩했습니다.

수천종의 물고기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다포유류들인 고래와 곱등어, 숄피, 물개와 넝에 그리고 파충류들인 자라와 거부기, 악어, 연체류들인 오징어와 문어, 호드기…

정말 별의별 물고기들과 바다동물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저 북극에 사는 흰곰과 바다코끼리, 바다사자, 남극의 얼음바다에 사는 펭긴새까지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윽고 심판장인 갈매기가 신호총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수백리밖에 있는 동해의 자그마한 섬을 돌아오는것입니다.
갈매기는 곧 모든 선수들이 출발선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수권보유자인 날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날치를 찾고있는 때에야 저 멀리서 씨잉 날아오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날치였습니다.
선수들과 구경군들에게 날치는 자신만만하다는듯 가슴지느러미를 쭉 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출발선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바로 선수권보유자인 날치의 곁에 낙지가 곧추 서있는것이였습니다.
모든 구경군들의 시선이 날치와 새 선수인 낙지에게 쏠렸습니다.
《준비!》 하는 구령이 울리자 모든 물고기들과 바다동물들이 바싹 긴장되였습니다. 그 순간 낙지는 재빨리 거꾸로 돌아섰습니다.
(벌써 겁을 먹고 기권하자는 모양이군!)
날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땅!》
드디여 한방의 총소리가 귀전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날치는 물을 차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숭어는 물우로 껑충껑충 뛰여오르고 고래는 분수를 뿜고… 정말 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뭇시선들이 낙지에게로 쏠렸는데 그 헤엄치기방법이 여태껏 볼래야 볼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였습니다.

낙지는 몸을 가로 뉘고 머리와 몸뚱이사이에 있는 루두로 먹물대신에 물총을 쏵쏵 쏘며 그에 반작용하는 힘을 리용하여 뒤로 번개같이 달리는것이였습니다.

그 모양은 흡사 로케트와 같았습니다.

다르다면 로케트가 가스를 내뿜으며 달린다면 낙지는 가스대신에 물을 쏘는것이였습니다.

날치가 물에서 튀여나와 씨잉 날아가다가 물에 떨어지고 또 한참 헤엄치다가 다시 날아가는 사이에 벌써 낙지는 섬을 에돌아섰습니다.

경기시작부터 승패가 결정된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이 세상에 로케트보다 더 빠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지는 바로 바다의 로케트였습니다. 그 생김생김이 흡사 로케트와 비슷했지만 더더욱 비슷한것은 그 헤엄치기방법이였습니다.

날치는 있는 힘을 다하여 헤엄쳤으나 낙지의 그 물총을 당할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결승테프가 낙지의 그 만만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 바다가 법석 끓어번졌습니다.

경기에 나가지 못했던 수많은 구경군들이 일시에 낙

지에게 달려와 해초를 뜯어 저마다 큼직한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낙지를 자기의 몸에 태우고 빙빙 돌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전기가오리가 자동사진기를 들고 장면장면을 찰칵찰칵 사진찍었습니다.

이윽고 《명수》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낙지가 부르던 노래가 높이 울리는 가운데 무게가 130톤이나 되는 흰수염고래가 천년이나 묵은 삼발이를 압착해서 만든 큰메달과 진주산호로 된 관을 낙지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러자 곱등어가 초음파마이크를 들고 명수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낙지앞에 나섰습니다.

바다의 속보원인 왕문어가 속보를 쓰겠다고 비자루만한 큰 붓을 들었습니다.

낙지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들고 한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때 헤염치기명수가 되는것은 지느러미가 잘 발달된 물고기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떼고는 장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낙지와 눈길이 맞부딪친 날치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돛고기와 뱀장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와 같이 평범한 물고기에게는 힘도 재간도 없는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남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자기의 재간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기에게 꼭 알맞는 헤염치기방법을 련마한

다면 누구든지 경기에서 이길수 있고 또 명수도 될수 있습니다.》

낙지의 말은 신심에 넘치고있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과 바다동물들이 낙지의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갈채는 모두가 낙지를 따라배워 자신을 알고 자기의 재간을 련마하겠다는 물고기들의 한결같은 결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운데는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가재미와 대구도 있었습니다.

주체67(1978)년

해삼포 앞바다에는 달처럼 둥글게 생겼다 하여 달섬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달섬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는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기 흉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아귀바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달섬과 아귀바위를 둘러싸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달섬밑에는 들쑹날쑹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싱그러운 해초들이 길길이 자라올라서 날치, 우레기를 비롯한 마음착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섬우에 있는 벼랑바위에는 마음이 어진 뿔사슴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사슴의 집으로부터 물가에는 언제부터인지 무지개다리가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좋아하는 뿔사슴이 이따금 그 무지개다리를 타고 물가에 내려와서 바다물을 몇모금씩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물고기들과 뿔사슴은 한달에 한번씩 휘영청 보름달이 솟아오르는 날이면 그 무지개다리에서 서로 만나군 했답니다.

그들은 함께 만나서는 춤과 노래로 밤이 새는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들과 뿔사슴은 바다의 흥취가 풍기는 진주산호와 천년이끼 덮인 바위에서 피는 희귀한 돌꽃을 서로 바꿔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벼랑바위에 뿌리내린 소나무가지가 키를 솟구고 푸르러갈수록 그들의 우정은 깊어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물고기들은 불길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란 이러하였습니다.

달섬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다 깊은 곳에 바다아귀란 놈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사슴뿔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을 얻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아귀놈이 사슴이 사는 섬을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그날부터 이웃에 사는 뿔사슴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물고기들과 뿔사슴이 만날 날은 아직도 스무날이 넘는데 그 소식을 땅에 사는 사슴에게 알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뿔사슴이 그것을 모르고 무지개다리를 타고 물가에 내려서다가 바다아귀놈을 만나면 큰일입니다.

보나마나 한입에 삼켜버릴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바다아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있었습니다.

원래 바다아귀놈은 바다중에서도 제일 크고 깊은 물속에서 살면서 넓으나넓은 대양을 제 집뜨락처럼 싸다니는 놈이였는데 얼마전에 물고기가 많은 이곳 달섬 앞바다에 기여들었던것입니다.

이놈은 고래와도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몸뚱이를 가졌는데 우악스럽게 생긴데다가 사나운 이발을 사려문 아가리가 귀밑까지 쭉 째져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덟개의 다리와 여덟개의 꼬리를 가지고 요동을 칠 때면 바다에 보름나마 태풍이 일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은 얼마나 셌던지 꼬리지느러미를 한번 툭 치면 물속에 있는 큰 바위도 쩍쩍 갈라지고 대가리로 들이받으면 어지간한 섬도 물속에 거꾸로 곤두박혔습니다.

바다아귀놈은 심보 또한 사나와서 물고기떼를 만나면 닥치는대로 잡아삼키기도 했지만 꼬리로 쳐서 죽이는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더없이 포악한 바다아귀놈이 착한 사슴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니 어떻게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무지개다리를 쳐다보며 물고기들이 속을 조이고있던 어느날, 바다아귀놈이 불쑥 달섬에 기여들었습니다. 아마 이놈은 달섬에 뿔사슴이 산다는 이야기를 어데서 얻어들었던 모양이였습니다.

바다아귀놈이 달려들자 물고기들은 일시에 들쑹날쑹한 바위짬과 풀숲에 몸을 숨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달섬마을에서 몸집이 제일 큰 자게만은 끝내 그놈의 꼬리에 휘감기고야말았습니다.

바다아귀놈은 자게를 공기돌 다루듯이 집어들고 족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놈아, 너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저 무지개다리에서 뿔사슴과 만난다는데 그날이 언제이냐?》

(아니, 이놈이 뿔사슴과 만나는것까지도 다 알고있구나.)

그러나 순순히 휘여들 자게가 아니였습니다.

바다아귀놈은 무섭게 족쳐댔으나 굳게 닫긴 자게의 입을 열수는 없었습니다.

바다아귀놈은 을러대다 못해서 끝내 자게를 한입에 삼켜버리고야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물고기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놈들아, 너희들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와서 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삼켜버리고말테다!》

펄펄 뛰던 바다아귀놈이 돌아간 뒤 풀숲과 바위짬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하나하나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곁을 떠나간 자게를 두고 저저마다 분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그놈이 다시 올것만은 틀림없는 일인데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수도 없고…》

우레기의 말에 겁이 많아서 눈이 한쪽구석에 박힌 가재미와 가오리가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차라리 우리모두 이 섬을 떠나고말자!》

그래도 제 생각에 잠긴 물고기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바른 날치가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섬을 떠날수도 있고 다른데 가서도 얼마든지 살수가 있어. 그러나 헤엄칠줄 모르는 저 사슴은 어떻게 하겠니?》

그러자 우레기와 가재미는 눈을 슴벅거릴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럴 때 저만 살겠다고 이웃을 버리고 간다는건 우리 물고기들의 곧은 마음씨에 어긋나는 일이야. 나는 어쨌든 이 섬에 남아있겠다.》

날치의 불같은 말이였습니다.

《나도 남아있겠어.》

뿔치도 선뜻 나섰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은 뿔치의 뒤를 이어 너도나도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뿔사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소문난 포악한 바다아귀놈이지만 땅에 기여오를 재간이 없는 이상 뿔사슴은 다치지 못할것이였습니다.

하루이틀이 지났습니다.

물고기들에겐 그 하루하루가 백날맞잡이로 길게만 여겨졌습니다.

벌써 이틀사이에도 바다아귀놈은 다섯번씩이나 달섬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헛물만 켜고말았습니다.

물고기들은 조금도 긴장성을 늦출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무지개다리만을 애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또다시 바다아귀놈이 달섬에 기여들었습니다.

바다아귀놈은 물고기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놈은 물고기들한테서 사슴을 해칠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제힘을 믿고 직접 대가리로 섬을 들이받아서 뒤집어엎을 생각을 했습니다. 섬을 뒤집어엎기만 하면 물에 빠진 사슴을 영낙없이 삼킬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고래나 상어와 같은 크고 기름진 먹이만을 골라서 잔뜩 배를 채운 다음 슬며시 달섬에 기여들었던것입니다.

바다아귀놈은 섬을 몇바퀴 빙빙 감돌며 땅우를 낱낱이 훑어보고는 꼬리로 무섭게 요동을 치면서 대가리로 섬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바람에 달섬 앞바다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은 산같은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는 섬을 금시에 삼킬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굽이돌아 시오리나 되는 달섬은 한번 들썩거렸을뿐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아귀놈의 대가리에 바위만한 혹이 툭 삐여져오를뿐이였습니다.

그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바다아귀놈은 응당 뒈져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검질긴 이놈은 용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후에 몸을 간신히 추세운 이놈은 다시 달섬을 뒤집어엎고 사슴을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물고기새끼들은 입을 안열지, 섬을 뒤집진 못하겠지, 어떻게 한다?)

그런데다가 약처방을 뻔히 알면서도 약을 쓰지를 못하니 병은 점점 더 심해가는것 같았습니다.

바다아귀놈은 안달이 나서 제 속을 썩일대로 썩였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생각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아귀놈은 꼬리로 대가리를 철썩 때리며 흉물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마름으로 바줄을 꼬아서 섬에 칭칭 휘감고 물속깊이에 섬을 끌어당겨 처박기만 하면 사슴이야 갈데가 없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바다아귀놈은 아가리가 째지게 웃어대면서 바다에 있는 마름이란 마름은 다 걷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름은 흔하기도 했지만 댕기처럼 길다랗게 생겨서 바줄을 꼬기에도 알맞춤했습니다.

바다아귀놈은 열날열밤을 꼬박 밝혀가며 자리에 틀고앉아 여덟개나 되는 다리로 솜씨있게 마름을 꼬았습니다.

이놈은 네다리로 풀을 섬기고 네다리로 바줄을 꼬는데 순식간에 둬발쯤은 쉽게 꼬아나갔습니다.

드디여 백겹으로 된 바줄을 다 꼬고난 바다아귀놈은 한번 시험삼아 물속에 깊숙이 박힌 바위에다 바줄을 걸고 힘을 써보았습니다.

바다아귀가 끙— 하고 안깐힘을 쓰자 그 바위가 밑뿌리채 뽑히워나갔습니다.

《흐하하…》

바다아귀놈은 너무나 흡족해서 미친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아가리를 다물었습니다.

(그렇지. 웃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마름을 더 뜯어서 백겹, 천겹으로 바줄을 꼬자. 그렇게 되면 달섬쯤은 문제가 없다!)

바다아귀가 마름을 더 겹겹으로 꼬는 사이에도 하루하루 날자는 흘렀습니다.

드디여 물고기들이 무지개다리만을 쳐다보며 애타게 기다리고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이제 밤이면 뿔사슴이 무지개다리를 타고 물가에 내려올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이미 짜고든대로 자기들의 등으로 저 륙지에서부터 섬으로 다리를 놓아서 사슴을 뭍으로 옮겨가면 바다아귀놈은 영영 사슴을 삼키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한발 늦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바다아귀놈은 끝내 수천겹으로 꾄 바줄을 질질 끌며 달섬에 나타났습니다.

그 바줄을 보는 순간에 물고기들은 모든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놈이 끝내 섬을 뒤집어엎자고 발악하누나. 야— 이 일을 어쩐담?)

물고기들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그들은 지느러미에 괴여들었던 힘이 금시에 다 빠져나가는것만 같았습니다.

벌써 새우는 실망하다못해서 뒤걸음치고 가재미는 모래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날치가 한걸음 쑥 나섰습니다.

《얘들아, 일이 기왕 이렇게 된바엔 모두가 달라붙어 마름을 죽기내기로 끊어보자. 백겹이면 백이 달라붙고 천겹이면 천이 달라붙어서 한오리씩만 말자꾸나!》

그러자 이발이 센 보가지는 자기는 열겹쯤 쉽게 끊어낼수 있다고 했고 칼치와 뿔치도 그쯤은 자기들도 끊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크게 걱정되는것은 물고기들이 바줄에 매달리는 순간에 바다아귀놈의 눈에 들키는것입니다. 들키기만 하면 바다아귀놈은 틀림없이 물고기들을 꼬리로 쳐서 없앨것이였습니다.

그때 낙지가 앞에 나서며 그것만은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어느새 바다아귀놈은 섬주위를 빙빙 감돌며 바줄을 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섬을 몇겹으로 칭칭 휘감은 바다아귀놈은 바줄 한끝을 제놈의 째진 아가리에 가로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였습니다.

갑자기 수백수천마리의 낙지들이 풀숲에서 달려나오며 찍! 찍! 먹물을 냅다 쏘았습니다.

순식간에 바다는 새까매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아귀놈은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흥, 네놈들이 먹물을 풀어놓으면 섬을 못끌어갈줄 알구…)

그러나 바다아귀놈은 왜 낙지들이 먹물을 풀어놓았는지다는 몰랐습니다.

금시에 바다물속이 새까매지자 숱한 물고기들이 오구구

뛰쳐나오며 바줄에 아랑다랑 매달렸습니다.

미련한 바다아귀놈은 제힘만 믿던 나머지 이런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물속이 캄캄하다나니 볼수도 없었습니다.

바다아귀놈은 너털웃음을 치며 바줄을 한치한치 끌고갔습니다.

물고기들은 그 순간을 리용하여 바줄에 한사코 매달려서 한오리, 두오리… 물어끊었습니다.

칼처럼 생긴 칼치는 칼로 싹싹 베여내고 뿔치는 뿔로 싹둑싹둑 썰어내고 이발이 센 보가지는 입으로 오동오동 씹어끊었습니다.

이발이 없는 물고기들은 아가미힘으로 나꿔채서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겹겹으로 꼰 바줄이라 오리오리가 다 끊어지려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벌써 굽이돌아 시오리나 되는 어지간히 큰 달섬이 바다속으로 점점 끌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치한치 섬은 물속에 잠기고 위험은 각일각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더는 그대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날치는 물우에서 훌쩍 날아오르며 피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놈아, 우리 사슴은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 하고 웨치면서 날치는 무작정 바다아귀놈의 밥사발같은 눈통에 뛰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물고기들의 눈앞에는 착한 사슴의 모습이 못견디게 얼른거렸습니다.

바줄을 끊느냐 못끊느냐 하는것이 착한 사슴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판가리싸움이기때문이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물고기들의 온 몸뚱이에 걷잡을수 없는 힘이 우쩍우쩍 솟구쳐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물고기들이 기운을 쓰며 지느러미를 추켜세우자 그 지느러미는 물론 온 몸뚱이를 뒤덮고있는 숱한 비늘까지 꼿꼿이 일어서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선 지느러미와 비늘은 금시에 번쩍번쩍 빛을 내는 시퍼런 칼이 되여 바줄의 오리오리를 뭉텅뭉텅 끊어버렸습니다.

섬이 물속에 거의거의 잠기는 순간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수천겹으로 꼰 바줄이 마침내 뭉청 끊어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다아귀놈은 악을 쓰며 끌던 제힘에 못이기여 그대로 앞으로 쏜살같이 내달리며 물속에 있는 커다란 칼바위를 우지끈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때아닌 우뢰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칼바위를 들이받은 바다아귀놈의 대가리가 두쪽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끝내 바다아귀놈은 대가리가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피를 흘리며 뒈지고말았습니다.

이윽고 물속에 잠길번한 달섬은 서서히 솟구쳐올랐습니다.

뿔사슴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물가에 뛰여내려왔을 때에는 벌써 바다아귀놈의 더러운 몸뚱이가 물우에 둥둥 떠있는 뒤였습니다.

모든 사연을 알아차린 뿔사슴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후 얼마 안있어 달섬주변에 난데없는 바위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는데 그 바위는 바다아귀놈의 갈라진 대가리 한쪽이 물우에 뜨면서 그대로 굳어져 생긴것이라 합니다.

물고기들은 그 새로 생겨난 바위를 아귀바위라고 불렀는데 그 바위는 보기에도 괴물처럼 더없이 흉했습니다.

그후 물고기들은 이 바위를 보며 두고두고 치를 떨며 바다아귀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로부터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아득한 옛일로 되여버렸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소중히 전해지고있습니다.

자기를 바쳐 착한 이웃들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세월이 흘러도 위훈으로 새겨져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주체69(1980)년

아득한 옛날에 있은 일입니다.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던 구름도 잠시 쉬여간다는 오봉산기슭에 여러가지 약풀과 신기한 약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약풀은 수십수백가지나 되고 약샘으로 말하면 다 죽은 짐승도 한번 바르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반달산의 얼룩사슴과 재빛산양은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슴뿔은 아무 쓸모도 없는 뿔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뿔이 없는 너구리는 그 뿔이 하도 부러워 삭아떨어진것을 하나 주어다가 굴천정에 걸어놓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어느해인가 굴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그 너구리가 배는 고프고 량식은 떨어진지 오래여 할수없이 그 뿔을 울궈 먹어봤더랍니다.

그런데 글쎄 봄이 올 때까지 배가 든든하고 힘이 나더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굴에서 나온 너구리는 얼룩사슴네 집부터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사슴, 그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 아마도 걸음이 빠른 자네가 이산저산 뛰여다니며 갖가지 약풀을 좀 더 뜯어먹으면 혹시 그 뿔이 귀중한 보약으로 될지 알겠나.》

그 말을 들은 얼룩사슴은 얼핏 생각되는것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약풀을 뜯어먹는 여름철에는 확실히 뿔에 기운이 뻗쳤는데 한두가지 풀만 먹는 겨울이 되면 뿔이 맥을 추지 못하고 삭아떨어지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먹는것이 뿔에 쏠리는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혹시 신기한 약풀만 자꾸 뜯어먹는다면 너구리의 말대로 세상에 다시 없는 약뿔로 될수 있을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귀중한 보약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해에 한번 뿔갈이를 할 때마다 삭아떨어지는것으로 몸이 약한 이웃짐승들의 몸을 추세워준다면 온 동산 짐승들이 튼튼해져서 일을 더 잘할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한 약풀이 많다는 오봉산기슭으로 급히 떠나게 되였던것이랍니다.

얼룩사슴과 함께 떠나는 재빛산양은 산양대로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빛산양네는 그전부터 반달동산의 아찔한 벼랑우에서 살다나니 어쩌다가 발을 헛디디여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애기산양도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재빛산양은 한번 바르기만 하면 죽은 짐승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오봉산의 그 신기한 약샘을 꼭 자기가 독차지하고싶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오봉산기슭을 찾아 함께 떠났던것입니다.

모진 고생끝에 얼룩사슴과 재빛산양은 마침내 여러가지 약풀과 신기한 약샘이 있다는 오봉산기슭을 찾아냈습니다.

오봉산기슭에 집을 짓고 약풀과 약샘을 찾아 헤매다나니 언뜻언뜻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여 어느덧 십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십년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얼룩사슴에게는 새끼 셋이 생기고 재빛산양에게도 귀염둥이 하나가 자라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얼룩사슴과 재빛산양은 아직도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번 마음먹고 나선 길인데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산골에서 외롭게 자라는 저 어린것들을 볼 낯이 없지 않는가.)

새끼사슴들이 콩당콩당 뛰노는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얼룩사슴이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귀중한 보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서야 아무리 높은 뜻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새끼들에게 보람없이 살았다는 말만 남겨놓고말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룩사슴은 거의나 밤잠을 잊고 생각하였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보약을 만드는데는 큰 비결이 따로 있을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약풀들을 먼저 뜯어먹어야 하는지 그 조화를 알아내기만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일이 아니였습니다. 글쎄 수백가지도 더 넘는 약풀들을 어느것부터 먼저 뜯어먹어야 하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년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낯을 붉히며 자신을 돌이켜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룩사슴은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하루에도 오봉산 아흔아홉봉우리를 메주밟듯 오르내리면서 제궁리대로 이풀, 저풀을 엇바꾸어 뜯어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자라는 뿔을 조금씩 긁아서 몸이 약한 짐승들에게 나눠먹이며 그 효과를 알아보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뿔을 먹어본 짐승들은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 힘도 좀 나는것 같은데 아직도 몸은 추서지 않는다는것이였습니다.

속이 상한 얼룩사슴은 낮에 밤을 이어 더욱 극성스레 일했습니다.

재빛산양도 발편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누가 먼저 약샘을 찾을세라 오봉산 아흔아홉골짜기를 누벼가며 여기저기를 다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샘을 찾을 때마다 일부러 다리에 상처를 내고 그 물을 발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낫기는커녕 아픔만 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재빛산양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솟는 아침, 달지는 밤을 벼랑에서 맞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그대로 쓰러져 새우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재빛산양은 험한 골짜기에서 발통으로 땅을 파헤치며 약샘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때 얼룩사슴이 때아니게 벙실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산양아주머니, 이 가루약이 내 뿔에서 얻어낸것인데 어디 한번 잡숴보시오.》

얼룩사슴이 은근한 기대를 품고 하는 말이였습니다.

재빛산양은 얼룩사슴이 요즈음 밤잠을 통 잃고 산발을 찾아다닌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먼저 보약을 만들어낼가봐 시샘도 났지만 겉으로는 《이번에라도 성공해야 할텐데요.》 하고 입에 침바른 소리를 하며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하루밤을 자고 깨여보니 글쎄 자기 몸이 뚱뚱한 곰처럼 되고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조글조글하던 주름살도 불돌로 밀어놓은것처럼 반반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힘까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땅을 파헤치는 발통에 어찌나 힘이 솟는지 굳은 땅도 모래밭을 파헤치는것처럼 쉬웠습니다.

얼룩사슴이 끝내 뜻을 이룬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느새 얼룩사슴이 귀중한 보약을 만들어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전에 얼룩사슴이 살던 마을에서도 찾아오고 그 이

웃동산의 착한 짐승들도 앞을 다투어 먼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중한 보약을 받아먹었습니다.

보약은 정말 보약이였습니다.

몸이 빼빼 말랐던 너구리도 오소리처럼 똥똥해지고 골골 앓기만 하던 난쟁이 복작노루도 키가 서너발나마 껑충 커졌습니다.

그런데 야단이 난 일은 찾아오는 짐승들마다 그 보약을 다 나눠줄수 없는것이였습니다. 이미 보약이 다 밑창이 났던것입니다.

얼룩사슴 혼자의 힘으로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돌볼수 없었습니다.

얼룩사슴은 이웃에 살던 사슴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뜯어먹던 풀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꺼내보이며 서슴없이 보약을 만드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귀중한 약풀들이 오봉산기슭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숲속 어디에서나 눈을 밝히면 다 찾을수 있는 약풀들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뿔나는 사슴이면 누구나 다 그 귀중한 보약을 만들줄 알게 되였습니다.

얼룩사슴이 귀중한 보약을 만들어내자 재빛산양은 더욱더 안달이 났습니다.

(흥, 나라고 못찾아낼가.)

그후 재빛산양의 눈에는 피발이 섰습니다.

어느날 재빛산양은 오봉산기슭의 어느 한 벼랑턱 바위짬에서 이따금씩 똘랑똘랑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상한 돌샘을 찾아냈습니다.

그 샘물은 하루종일 받아야 한공기도 되나마나하게 고였는데 여느 샘물과는 색이 좀 달랐습니다. 어찌보면 파르스름하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노르스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별난 색갈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누구인지 다급하게 재빛산양을 불렀습니다.

《산양아주머니,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요. 그 집 귀염둥이가…》

하늘을 가로세로 썰며 녹두알만한 눈으로 천하를 굽어보며 날아다니던 산제비가 목이 메여 하는 말이였습니다.

《아니, 우리 집 매매가 어떻게 되였단 말이예요?!》

재빛산양은 속이 덜컹해서 물었습니다.

들으나마나 뻔한 일이였습니다. 까불기를 좋아하는 새끼산양이 재주를 부리다가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였습니다.

다 죽은 새끼산양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재빛산양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그리도 맥없이 죽는단 말이냐. 아이고, 원통해라!…)

한참이나 제정신없이 땅을 치던 재빛산양이 무심결에 이상한 약샘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발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리에 바르면 다리가 꿈틀거리고 몸뚱이에 바르면 몸뚱이가 움씰거렸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험한 상처도 말끔히 아물었습니다.

머리에까지 바르자 새끼산양이 금시에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방금 깊은 잠에서 깨여난것처럼 눈을 쓱쓱 비비며 먹을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내 귀염둥이가 살았구나! 살았어.》

재빛산양은 너무나 기뻐서 새끼산양을 끌어안고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던 산제비도 재빛산양의 머리우를 빙빙 감돌며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끝내 해냈구려! 성공하셨군요. …》

소문이란 참 빠르기도 하였습니다.

새끼산양이 자리를 차고 일어선지 얼마 안되여 사향노루가 눈물을 흘리며 제 새끼를 안고 오봉산기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철없는 노루새끼는 독풀을 먹고 숨을 거두었던 모양입니다.

재빛산양은 새끼노루에게 샘물을 한방울 먹여보았습니다.

새끼노루도 금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담.》

사향노루가 재빛산양의 앞다리를 꼭 잡으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얼룩사슴도 우정 재빛산양을 축하해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십년 공을 들인것이 헛일이 아니였구려.》

《흥, 그럼 사슴아주머니만 성공할줄 알았댔소.》

재빛산양은 뾰족한 턱을 들까불며 툭 내쏘았습니다.

그러나 얼룩사슴은 그를 탓하지 않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후 재빛산양은 일약 명의로 동산에 이름이 났습니다.

그가 길에 나서기만 하면 모두가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귀한 음식이 생길 때면 잊지 않고 재빛산양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빛산양은 아글타글 십년나마 공들여 찾은 샘물이니 저 혼자 덕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 샘물을 어떻게 찾아낸것이라고 남에게 알려준담. 또 그 샘물을 남이 알면 그만큼 시세가 떨어질것이 아닌가. …)

그래서 재빛산양은 사경에 처한 짐승들이 찾아올 때면 일단 그 샘물을 발라주고는 한방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그 샘물을 찾아낼가봐 해묵은 가랑잎을 두번세번 덮어놓았습니다.

약샘이 있는데를 알려달라는 짐승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빛산양은 그 신기한 약샘의 비밀을 영원히 자기만 알고싶었습니다. 그래야 그 보수를 영영 독차지할것이기때문이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새끼산양도 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엄마산양에게 그 약샘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군 하였습니다.

《얘야, 때가 되면 엄마가 어련히 알려주지 않으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궁리는 달랐습니다. 글쎄 새끼산양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기만 하면 그 촉새같은 새끼산

양이 남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끼산양에게도 그것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미 길어온 약샘을 다 써버린 재빛산양은 남몰래 오봉산마루의 벼랑가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가다가는 뒤를 돌아보고 조금 가다가는 또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꼭 누가 자기뒤를 몰래 따르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헛눈을 팔다가 그만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고야말았습니다.

저물녘이 되여 숨이 간간히 붙어있는 엄마산양을 찾아낸 새끼산양은 소리쳐울면서 샘물이 있는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빛산양은 마지막힘을 다해서 입을 열려고 했으나 이미 혀가 굳어져 소리가 입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빛산양은 《오… 오…》 하다가는 끝내 마지막숨을 거두고야말았습니다.

결국 재빛산양은 공을 들여 신기한 약샘을 찾아내고도 자신은 그 덕을 조금도 입지 못한채 죽고말았습니다.

새끼산양은 엄마산양을 안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 비밀만 대줬어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거예요. 흑― 흑…》

그래서 오늘까지도 얼룩사슴이 만들어낸 그 귀중한

보약은 잘 알려지고있지만 재빛산양이 그렇게도 힘을 들여 찾아낸 그 신기한 약샘은 영영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슴들은 누구나 다 그 귀중한 보약뿔을 만들줄 안답니다.

우리는 그 보약을 《록용》이라고 한답니다.

일은 늘 그런 법입니다.

깨끗한 량심은 영원히 전해지지만 자기만을 아는 얼룩진 마음은 오히려 자기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오기마련입니다.

주체71(1982)년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나라 동해바다가에는 살기 좋은 룡포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에는 굽이돌아 사십리나 되는 큰 말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에 언제부터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말이 많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것만은 사실입니다.

말섬에는 저절로 자라서 새끼를 치는 야생말들이 많았는데 그 수는 무려 수십수백마리를 헤아렸습니다.

그 야생말들은 모두가 사납고 날래여서 아직은 그 누구도 한번 길들여본적이 없었습니다.

야생말들이 무리를 지어 달릴 때면 그 발구름소리가 십리밖에 있는 이 룡포나루에까지 들썩하게 들렸고 말발굽에서 피여나는 먼지구름이 뽀얗게 하늘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룡포나루사람들은 부림말이 있어도 그 말을 어떻게 부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생말들은 성질이

사납고 갈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던 외적들이 또다시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습니다.

외적들이 우리 나라에 그때 처음으로 쳐들어온것은 아니였습니다.

외적들은 땅이 기름지고 온갖 과일이 무르익어 살기 좋은 우리 나라에 자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른, 아이할것없이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룡포나루사람들은 모두가 떨쳐나서 창칼을 잡고 외적을 쳐물리치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외적들은 이 룡포나루에서 된서리를 맞고 뿔뿔이 도망치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외적들은 남의 땅을 넘겨보는 그 더러운 야심만은 조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해인가 외적들이 우리 나라 땅에 또 침략의 검은발을 들여놓았다는 소문이 룡포나루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날부터 룡포나루사람들은 손에 손마다 창과 칼을 비껴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것은 타고싸울 말이 엄청나게 모자라는것이였습니다.

더더구나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언제나 앞장서 싸운 룡포나루사람들이고보니 싸울 때마다 많은 말이 상하여 그 마리수는 더욱더 모자랄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없이야 어떻게 말타고 달려드는 외적과 맞서싸울수 있겠습니까!

생각같아서는 당장 말섬에 있는 그 날래고 기름기가 찰

찰 흐르는 살찐 말들을 끌어내오고싶었지만 누가 어떻게 그 날랜 말들을 길들여서 자갈을 물린단 말입니까.

또 자갈을 물린다쳐도 작은 매생이밖에 없는 이 룡포나루사람들이 어떻게 십리나 떨어져있는 그 섬에서 말무리들을 실어올수 있겠습니까. 물결사나운 십리바다에 다리를 놓을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한 느티나무아래는 물론 어느 집 사랑방이나 발머리에 한둘만 모여도 얼굴을 맞대고 궁리를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신통한 방도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걱정들만 하면서 한숨만 쉴뿐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지금 있는 말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창과 칼을 더 잘 벼려서 원쑤를 치는수밖에 없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만은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는 키가 작고 날씬한 룡녀라는 처녀애였고 다른 아이는 그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몸도 실팍한 검봉이라는 총각애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였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나물바구니를 옆에 낀 룡녀가 느티나무아래에 서있다가 꼴짐을 지고 돌아오는 검봉이에게 말했습니다.

《얘 검봉아, 내가 그 말들을 끌어내올가?》

《아니, 네가?》

검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룡녀로 말하면 연약한 처녀애인데다가

나이도 이제 겨우 열댓살밖에 안되는 너무나 애어린 소녀였기때문이였습니다.

룡녀는 그 언젠가 있은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정다운 이웃들의 보살핌속에서 살아가는 애였습니다.

그는 비록 몸이 약하고 나이가 어려도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나물을 캐고 조개를 줏는 일이 끝나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지혜를 키우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달이 알고 별이 반가와하는 소녀였습니다.

그 언제인가는 말타기경기에서 검봉이와 첫자리를 다투다가 그만 아쉽게도 말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자리를 차지한적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지혜가 있고 말을 잘 탄다 해도 한다하는 어른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힘든 일을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또 이 일은 말타는 재주나 지혜로써만 해낼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검봉이는 그만 입을 벌리고 멍하니 그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검봉이는 룡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 말들을 끌어내올 무슨 수라도 생각해냈니?》

룡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직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신통한 수가 떠오른건 아니야. 그러나 원쑤놈들의 말발굽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오는데 군마

로 쓸수 있는 말을 눈앞에 두고 이대로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니. 나는 어쨌든 말섬에 건너가서 그 말무리들을 끌어내오겠다.》

룡녀는 작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였습니다.

검봉이는 그러는 룡녀를 한참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일은 내가 해야겠다.》

검봉이는 룡녀를 넘겨다보며 어깨를 으쓱이는것이였습니다. 아마 룡녀보다 자기가 나으리라는 사내다운 은근한 자존심이 머리를 쳐들었던가봅니다.

사실 검봉이는 말타기에서 첫손가락에 꼽혔습니다. 다만 말 잘 타고 활 잘 쏜다고 좀 우쭐렁대는것이 탈이였지만 그게 무슨 큰 상관이겠습니까.

검봉이와 룡녀는 한참이나 서로 제가 가겠다고 악의없는 다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룡녀가 누그러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

《나 혼자서도 꼭 해낼테니 념려말아.》

검봉이는 슬며시 웃어보였습니다.

둘은 싱갱이질끝에 나이도 룡녀보다 두살 더 먹고 몸도 실팍한 검봉이가 이 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검봉이는 룡녀의 바래움을 받으며 흰물결이 부서지는 바다가로 향하였습니다.

이윽고 검봉이는 작은 매생이를 타고 물녁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와락와락 노를 저어 말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소리를 치고 말섬으로 건너갔지만 어쩌는수가 없었습니다.

검봉이의 눈앞으로 수많은 야생말들이 얼핏얼핏 스쳐지나갔지만 단 한마리도 붙잡아서 입에다 자갈을 물릴수가 없었습니다.

검봉이는 하루종일 말무리들을 뒤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길목을 미리 지켜섰다가 말무리속에 뛰여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높은 나무가지에 몸을 숨겼다가 기회를 노려 말잔등에 뛰여내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산에 해가 기울도록 검봉이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봉이는 생각다 못하여 나지막한 산언덕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수십수백마리나 되는 제 무리를 이끌고가는 길잡이 가라말을 향해 저도모르게 활을 겨누었습니다.

활로 발꿈치를 쏘아 부상을 입혀서라도 붙잡자는 생각이였습니다.

가라말만 붙잡아서 길들이면 다른 놈들은 그대로 줄레줄레 따라나설것만 같았습니다.

검봉이는 활에 힘을 주었습니다.

활줄이 팽팽하게 늘어났습니다.

가라말은 그런줄도 모르고 제 무리를 이끌고 뚜거덕뚜거덕 검봉이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인기척을 느꼈는지 우뚝 멈춰서며 목을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검봉이는 힘껏 당겼던 활줄을 슬쩍 놓았습니다.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서 가라말의 발꿈치에 들

여박혔습니다.

그러자 가라말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습니다.

순간을 노리던 검봉이는 언덕에서 쏜살같이 뛰여내리며 화살을 뽑고 가라말의 갈기를 휘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호홍!》 놀라서 태질을 치는 가라말의 입에다 날쌔게 자갈을 물렸습니다.

그리하여 검봉이는 길잡이 가라말을 사로잡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가라말은 좀처럼 결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라말은 자갈을 문 후에도 여전히 오호홍소리를 사납게 내지르고 껑충껑충 길길이 뛰여오르며 뒤발질을 하였습니다.

(이런 놈은 채찍으로 길들여야 한다.)

검봉이는 덮어놓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으나 가라말은 길들여지기는 커녕 점점 더 갈개기만 하였습니다.

검봉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습니다.

(아직도 채찍맛이 덜 들었구나.)

사흘째 되던 날에야 겨우 말잔등에 올라탄 검봉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순간 가라말이 몸을 사납게 뒤채며 앞발을 들고 우뚝 일어섰습니다. 그바람에 검봉이는 말잔등에서 공중제비로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가라말이 떨어지는 검봉이를 뒤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사흘만에 검봉이는 말발굽에 채워 심한 부상을 입

고 뭍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룡녀가 섬으로 건너가게 되였습니다.

룡녀가 매생이에 올라타자 푸른 파도가 흰갈기를 날리고 백사장에 붉게 핀 해당화가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꼭 말무리들을 이끌고 뭍으로 돌아오라는 고향산천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맙다. 고향바다야, 반갑구나. 해당화야, 내 꼭 고향의 간절한 부탁을 잊지 않으마.)

룡녀는 가슴에 그 부탁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룡녀가 섬에 이르니 수십수백마리나 되는 말무리가 먼지를 뽀얗게 말아올리며 뚜거덕뚜거덕 눈앞을 스쳐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크고 호함진것은 역시 길잡이 가라말이였습니다.

그런데 말무리를 이끌고가는 가라말은 며칠전 검봉이의 화살에 맞아 다리를 절고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룡녀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검봉아, 고향을 지키겠다는 애가 이 땅에 있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말 한마리라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리고 쏘아서야 되겠니?)

룡녀는 검봉이가 곁에 있기라도 한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제인가 있은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룡녀와 검봉이가 풍년가을을 끝내고 무술을 익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룡녀와 검봉이는 말을 타고 험한 산발을 주름잡

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룡녀가 우지끈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글쎄 검봉이가 칼을 휘두르며 우쭐우쭐 키를 솟구는 나무들의 우듬지를 썩뚝썩뚝 잘라버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도 외적들의 목을 뭉청뭉청 잘라내는것처럼…

《얘, 검봉아! 정신있니?》

룡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검봉이는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술을 키우는데 그까짓 나무 몇대가 무슨 큰 문제란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룡녀가 어느새 검봉이의 손목을 날쌔게 꽉 부여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키자고 무술을 닦지 않니. 이 나무 한그루한그루가 다 이 땅에서 자라는것인데 그렇게 마구 잘라버리면 무술은 닦아 뭘하겠니?》

룡녀는 검봉이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검봉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있은 일을 돌이켜보며 룡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좀 더 따끔하게 일깨워주지 못했을가. …)

룡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도 말들은 쉽없이 눈앞을 스쳐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번 놀란 말들을 다시 사로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룡녀는 이미 말먹이로 쓰려고 매생이에 싣고간 삶은 콩 몇섬을 한 아름드리나무밑에 무두기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가지우에 몸을 숨기고 말무리들이 밀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난생처음 풀만 뜯어먹던 말들이 구수하게 풍기는 콩냄새를 맡고 나무밑으로 앞을 다투어 밀려들었습니다.

룡녀는 말무리중에서도 길잡이 가라말이 가까이에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가라말이 다리를 절며 나무밑에 다가왔습니다.

순간을 노리던 룡녀는 나무가지에서 번개같이 뛰여내리며 가라말의 갈기를 휘여잡고 그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놀란 가라말은 투레질을 하며 무작정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얼결에 놀란 말무리들이 죽기내기로 가라말의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그 모양은 흡사 수십수백마리나 되는 말들이 동시에 달리기경기라도 벌리는듯 하였습니다.

일찌기 어린 나이부터 말을 타온 룡녀였지만 이렇게 갈개는 말은 처음이였습니다.

가라말은 잔등에 올라탄 룡녀를 떨궈버리려고 줄곧 껑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나 룡녀는 두손으로 갈기를 꽉 잡고 한사코 잔등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룡녀를 떨구려고 하루내내 내달리던 가라말은 저물녘에야 기운이 지쳐서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그때 룡녀는 슬쩍 굴레를 씌우며 말잔등에서 뛰여내려 아름드리나무에 고삐를 감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라말의 잔등을 쓸어주며 룡녀는 애타게 말하였습니다.

《가라말아, 지금 우리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왔단다. 몸이 추서야 너도 우리가 나서자란 정다운 산천을 짓밟는 원쑤놈들과의 성스러운 싸움에 나서지 않겠니. …》

가라말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무릎을 꿇고앉으며 고개를 주억거렸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종일 가라말을 다루기에 지친 몸은 금시에 땅에 잦아드는듯싶었습니다.

그러나 룡녀는 쉴수 없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가라말의 상처를 한시라도 빨리 보살펴주어야만 하였습니다.

룡녀는 달빛을 밟으며 약초를 뜯으려 산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한참이나 골짜기와 골짜기를 더듬어가는데 어느 한 바위우에 이상한 풀 한포기가 달빛에 유난히 반짝이는것이 안겨왔습니다.

달빛은 희끄무레한 어둠속에서도 그 한포기에만은 밝은 빛을 뿌려주는것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둥근달아, 내 동무야.)

룡녀는 불시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무술을 익히려고 밤을 샐 때에는 달빛이 어둠속을 밝혀주더니 지금은 그 진귀한 약초를 가리켜주는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룡녀는 그 풀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알싸한 약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오는것이 신기한 약초가

옮았습니다.
룡녀는 그 약초를 짓뭉개서 가라말의 발꿈치에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라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라도 부르는듯 조용히 달래였습니다.
《가라말아, 용서해라. 지금 내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단다. 이 약이 천만가지 약들을 대신해서 얼른 잠간 다리가 다 낫게 해다오.》
그리고는 자기의 길량식으로 싸온 얼마 되지 않는 깨묵까지 아낌없이 가라말의 입에 넣어주면서 속삭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튿날 아침, 룡녀가 가라말의 발에 싸맨것을 갈아대려 하는데 어느새 상처가 씻은것처럼 깨끗이 나은것이 아니겠습니까.
룡녀는 가라말의 갈기에 막 볼을 비볐습니다.
말 못하는 가라말도 두눈을 슴벅이였습니다.
그래서 룡녀는 그날 아침부터 가라말을 타고 골짜기와 골짜기를 뛰여넘기도 하고 아찔한 산마루로 치달아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면 숱한 말무리들이 뒤를 따라 가라말이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룡녀는 수십수백마리나 되는 말무리를 이끌고 굽이돌아 사십리나 되는 섬을 감돌면서 맹렬한 훈련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룡녀는 기울어가는 저녁해를 쳐다보며 안타깝게 물을 건

너다보았습니다.

(지금쯤 외적들은 어디까지 밀려왔을가. 이밤에라도 룡포나루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룡녀는 가라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하였습니다.

그밤따라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정다운 룡포나루사람들생각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삼태성이 기울어갔습니다.

더는 이렇게 시간을 보낼수 없었습니다.

룡녀는 말잔등에 뛰여올라 새벽안개를 헤가르며 훈련을 더욱 맹렬하게 벌렸습니다.

룡녀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라말이야 오죽하랴.)

정말 가라말의 잔등은 온통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룡녀는 쉴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하면 그만큼 외적들의 피묻은 발자국이 이 땅을 더럽히기때문이였습니다. 룡녀는 더 힘있게 말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가라말은 웬만한 골짜기는 한달음에 뛰여넘기도 하고 한번 발을 구르면 단숨에 산마루에 치달아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낮 하루밤사이에 말은 퍼그나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룡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원쑤치는 싸움에 나서자면 용맹을 더 키워줘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해가 지고 달이 솟더니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룡녀는 눈만 감으면 시퍼런 창칼을 든 외적들이 금

시에 마을을 불사르고 짓밟는 광경이 보이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놈들의 창에 맞고서도 피흐르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적진속으로 뛰여들어 칼을 휘둘렀다는 아버지의 잊지 못할 모습도 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제 룡포나루에 놈들이 다시는 기여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시바삐 이 말들을 뭍으로 넘겨가야 한다.)

룡녀는 외적들의 스산한 말발굽소리가 지척에서 들리는것만 같아 더더욱 고삐를 휘감아잡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룡녀가 그렇게 속을 조이는 그날은 너무도 빨리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룡포나루에서 요란한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봉화대에 홰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룡포나루의 망원초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룡녀는 그 북소리를 듣자 아찔했습니다.

이제 말들을 한마리씩 매생이에 태워 뭍으로 끌어가느라면 어느 세월에 싸워보겠습니까. 그러는 사이면 싸움은 다 끝날것입니다. 손맥이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룡녀는 주저앉을수가 없었습니다.

룡녀는 가라말의 귀에 대고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가라말아, 이젠 별수가 없구나. 우리 함께 물고기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뭍을 향해 바다를 건너뛰자!》 하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가라말을 바다가로 내몰았습니다.

수십수백마리의 말들도 가라말을 탄 룡녀를 따라나섰습니다.

말섬 제일 끝에 있는 너럭바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너럭바위까지 다가간 가라말은 바위에 부딪쳐 길길이 솟구치는 시퍼런 물결에 겁을 먹었던지 한동안 선자리에서 맴돌아치며 투레질만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산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새하얀 물갈기를 날렸습니다.

그 아우성치는 파도속에 빠지기만 하면 아무리 헤염을 잘 치는 말이라 하더라도 다시 물우에 솟구칠수 없을것이였습니다.

오직 바다를 건너뛰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라말은 아마 한걸음에 십리를 뛰여넘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라말아, 용기를 내라. 우리가 여태까지 산발을 주름잡으며 땀을 흘린 수고가 과연 이것으로 끝나야 한단 말이냐?!》

시간이 급한 룡녀는 저도모르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오호홍…》

성난 가라말은 그자리에 우뚝 일어서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룡녀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잔등에 우뚝 일어서서 박차를 가하며 있는 힘껏 고삐를 나꾸어챘습니다.

그러자 가라말은 땅을 차며 허공으로 껑충 뛰여올랐습니다.

그바람에 룡녀는 말잔등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말았습

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때아닌 우뢰가 울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꽝! 꽈르릉!》

하늘과 바다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마 하늘도 무정한 가라말을 질책하는지 창살같은 비줄기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세찬 비줄기는 룡녀의 얼굴에 사정없이 들씌워졌습니다.

찬비를 맞은 룡녀는 얼마후에야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룡녀가 눈을 떠보니 가라말과 숱한 말들이 룡녀를 둘러싸고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룡녀는 저도모르게 눈굽이 뜨거웠습니다.

《고맙다. 내 비록 너희들을 이끌고가지 못하면 내 한몸이라도 뭍으로 건너가서 이 몸이 열백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쑤를 족치고말테다!》

룡녀는 눈물을 뿌리며 노대를 틀어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가 일시에 멎어버리고 말섬으로부터 뭍으로 때아닌 칠색무지개가 공중다리를 놓았습니다.

《야!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룡녀의 머리에는 엉뚱한 생각이 번개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저 무지개를 타고 뭍으로 말들을 몰고가자!)

룡녀는 힘껏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가라말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쑥—쑥 돋아나기 시작했

습니다. 가라말은 그 날개를 저으며 오호홍소리를 내지르며 무지개다리를 타고 하늘중천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눈깜박할 사이에 가라말은 룡녀가 그렇게도 바라던 뭍으로 기세좋게 내려섰습니다.

가라말의 뒤를 이어 숱한 말무리들이 저저마다 날개가 돋혀 앞을 다투어 무지개다리를 타고 뭍에 내려섰습니다.

혹시 무지개다리에서 한두마리의 말들이 실수하여 떨어질 때면 푸른 파도가 갈기를 날리며 떠받들어주고 수많은 고기떼들이 자기들의 등으로 다리를 놓아 말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고향의 바다야, 그래서 네가 때아닌 파도를 일으켰구나.)

… … …

룡포나루로 기여들던 원쑤놈들은 날개돋힌 말무리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눈이 휘둥그래서 벌벌 떨며 뒤걸음질쳤습니다.

룡녀가 가라말을 타고 고향사람들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말에 올라 원쑤놈들을 족칩시다!》

놈들을 막아 힘겹게 싸우고있던 룡포나루사람들은 저마다 날개돋친 말을 타고 적진으로 쏜살같이 뛰여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의 모가지가 뎅겅뎅겅 날아나고 외마디 비명소리가 길게 울리였습니다.

신이 난 룡포나루사람들은 꽁무니를 빼는 적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모조리 삼대베듯 쓸어눕혔습니다.

승리한 룡포나루사람들은 룡녀를 둘러싸고 저저마다 그의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어주었습니다.

《네가 나서자란 고향땅을 그리도 사랑하더니 끝내 큰일을 해내고야말았구나.》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억쇠 할아버지가 룡녀를 품에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검봉이도 룡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나서자란 고향땅을 티없이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부터 키우겠다.》

그러는 검봉이를 보는 룡녀의 마음은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후 룡포나루사람들은 룡녀의 위훈이 깃든 그 말섬을 룡녀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동해천리를 감돌아가노라면 어느 한 곳에 굽이돌아 사십리나 되는 큰 룡녀섬을 보게 된답니다.

주체72(1983)년

아득히 먼 옛날이였습니다.

어느 한 동산에는 꼬리없는 짐승들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맵시나고 멋진 꼬리를 달고다니는 새들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모여앉으면 꼬리없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밤이면 멋진 꼬리를 다는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황소는 꼬리없는 밋밋한 엉뎅이를 어루만지며 늘 이런 말을 곱씹군 하였습니다.

《내게도 꼬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꼬리만 있다면 시끄럽게 달라붙는 등에와 파리들을 혼쌀내줄텐데…》

그러면 멍멍이도 덩달아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뻐도 슬퍼도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타까와 죽을지경이야. 꼬리만 있으면 그걸 설레설레 흔들어 기뻐하는 내 마음을 집주인에게 알릴텐데…》

그러자 구유통의 뜨물을 게걸스레 첩첩 먹어대던 꿀꿀돼지도 한마디 했습니다.

《꼬리는 사실 누구누구해도 나한테 있어야 해. 그러면 뚱뚱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풍이 있어 보일게

거든.》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빙빙 날아돌며 그 말을 엿듣고있던 귀밝은 수리개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 꼬리를 달고싶거든 저 수리봉마루에 가보렴. 며칠전에 하늘에서 꼬리묶음 한단이 떨어지는걸 봤어.》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아니구.》

짐승들은 귀가 번쩍 뜨이여 수리봉을 향해 길 떠날 차비를 서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꿀꿀이만은 아직 배가 못찼는지 구유곁에서 서성거리며 짜증난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칫, 하필이면 그 꼬리단이 수리봉마루에 떨어질건 뭐람. 내 구유앞에 떨어졌으면 쉽게 골라달텐데…》

그러자 황소가 방울을 절렁절렁 흔들며 꿀꿀이를 꾸짖었습니다.

《에끼 게으른 녀석, 꼬리는 남먼저 달고싶다면서 그만한 수고쯤 하는게 뭐가 싫어서 투덜거리느냐?》

황소의 말이 끝나기바쁘게 꿀꿀이는 뜨물이 허옇게 게발린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껄껄 웃고나서 말했습니다.

《왜들 이러시유. 꼬리단이야 둥그렇게 생겼을게 아니요. 이제 바람만 불면 그것이 데굴데굴 여기까지 저절로 굴러올테니 두고보슈.》

성미급한 말이 그 말을 듣다못해 발을 탕 구르다가 허거프게 웃었습니다.

《이놈아, 여기서 수리봉이 천리도 넘는데 꼬리단이 언

제 저절로 굴러온다는거냐.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은 한참 웃고나서 《오호홍》 하고 그길로 길을 떠났습니다.

말의 뒤를 따라 황소도 달려가고 멍멍이와 야웅이도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꿀꿀이도 할수없이 멀찌감치 떨어져 어정어정 따라갔습니다.

수리봉은 아득히 먼 천리길이였습니다. 부지런히 간다 해도 닷새는 실히 걸리는 먼길이였습니다.

뚱기적거리며 따라가던 꿀꿀이는 숨이 가빠 헐떡거리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거기 좀 서라구요. 거기 앉아 한숨 푹 쉬고 출출한데 먹을것도 좀 먹고 같이 가자구요. 산에 떨어진 꼬리단이 뭐 하늘로 도루 올라가겠소.》

꿀꿀돼지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건만 짐승들은 들은체도 않고 앞을 다투어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맨 앞장에는 뚜거덕이 말이 섰습니다.

말은 멋진 갈기를 바람에 날리며 뚜걱뚜걱 기운차게 달렸습니다.

한고개를 넘으면 또 한고개, 한굽이를 돌아서면 또 한굽이가 나지는 머나먼 길이지만 말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벌써 낮과 밤이 세번이나 바뀌여도 그는 쪽잠 한번 자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에 졸음이 지꿎게 달라붙으면 잠간 서서 눈을 붙이는척 하고는 또 달려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달려간 말은 마침내 수리봉마루에 제일먼저 올라섰습니다.

수리봉마루에는 수리개의 말대로 크고작은 가지각색 꼬리들을 큼직하게 묶은 꼬리단 하나가 척 떨어져있었습니다.

말은 숨돌릴 사이도 없이 꼬리단을 풀어헤치고 그중에서 기름기가 찰찰 흐르는 호함진 꼬리 하나를 제꺽 골라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를 왼쪽옆구리에도 대보고 오른쪽옆구리에도 대보다가 엉덩이에 척 붙이고 너무 기뻐 《오호홍!》 소리를 내지르며 벌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점박이사슴과 깡충이토끼가 수리봉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슴뒤를 깡충깡충 따라가던 토끼는 숲속에 들어서자 그만 사슴을 슬쩍 떨구어놓고 제가 앞장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애를 빡빡 썼으나 거치장스러운 뿔이 나무가지에 자꾸만 걸리는 바람에 그만 뒤지고말았습니다.

신이 난 토끼는 얼마쯤 뛰여가다가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바싹 따라오는것은 사슴이 아니라 뜻밖에도 벌마을의 부지런한 황소였습니다.

(아유, 저 느린 황소아저씨가 어떻게 나를 바싹 따라섰을가?)

토끼가 헛눈을 파는 사이에 황소가 어느새 그를 떨구어놓고 씨엉씨엉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찬찬히 바라보니 글쎄 황소는 달리면서 먹은 풀을 새김질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걸음발이 느리지만 그대신에 몇갑절 부지런한 황소는 풀을 먹는 시간도 아까와 새김질하며 뒤를 따라왔던것입니다.

마침내 황소는 《쿵—》 하고 수리봉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에크, 말이 선손을 쓴 모양이로군.)

황소는 아쉬운 눈으로 헤쳐진 꼬리단을 굽어보다가 그중 하나를 골라잡았습니다. 그 꼬리는 금빛처럼 누렇고 장대처럼 빳빳했는데 끝에는 복스러운 털까지 붙어있었습니다.

황소는 너무 기뻐 그 꼬리를 목덜미에도 대보고 잔등에도 대보다가 밋밋한 엉뎅이에 척 붙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음메—음메—》 신이 나서 영각을 하며 벌마을로 향했습니다.

세번째로 수리봉마루에 사뿐 발을 짚은것은 토끼였습니다. 성급한 토끼는 헤쳐진 꼬리단에서 얼른 호함진 꼬리 하나를 집어들고 엉뎅이에 척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는 몸집이 작은 토끼에겐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 땅에 철철 끌리였습니다.

그래도 토끼는 좋았습니다.

(아무렴, 꼬리야 이렇게 길어야지.)

토끼는 뒤발로 땅을 한번 걷어차고나서 집을 향해 깡충깡충 뛰여갔습니다. 그는 어느 한 바위곁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토끼의 꼬리를 본 여우는 단번에 그 꼬리가 탐이 났습니다. 꾀바른 여우는 눈알을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아유, 그 어여쁜 몸집에 비자루 같은 긴 꼬리를 달다니. 정말 망칙도 하구나.》

여우의 숨넘어가는 소리에 귀가 큰 토끼는 두눈을 깜박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망칙하니?》

《그렇잖구. 또 넌 그 긴 꼬리때문에 승냥이한테 화를 당할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여라.》

여우는 토끼를 무척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흘끔흘끔 곁눈질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해진 토끼는 덴겁하여 긴 꼬리를 떼여 숲속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수리봉마루로 뛰여갔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얼른 뛰여가 그 꼬리를 집어달고는 좋아서 캥캥 웃었습니다.

수리봉마루에 다시 올라선 토끼는 그만 두눈이 동그래지고말았습니다.

그도그럴것이 벌마을 멍멍이와 숲속의 다람쥐, 오소리, 너구리… 모두가 달려와 저마다 꼬리를 달고가는 바람에 볼품없는 꼬리만이 남았기때문이였습니다.

토끼는 부랴부랴 여우한테로 도로 뛰여갔습니다.

여우는 바위밑 옹달샘에 꼬리를 단 제모습을 이리저리 비쳐보고있었습니다.

토끼는 숨을 할딱거리며 사정하였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길어도 좋으니 내 꼬리를 돌려다오.》

《넌 참 한심하구나. 이게 어디 네 꼬리냐? 하늘에서 나한테 달라고 내려보낸 꼬린데.》

여우는 코방귀를 힝힝 불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다구야.》

《흥, 누가 할 소리.》

여우와 한참 말씨름을 하다가 약이 오른 토끼는 무작정

꼬리 한끝을 부여잡고 잡아당겼습니다.

토끼와 여우는 한동안 끌고당기며 힘내기를 하다가 그만 여우가 뒤발을 벗디디고 나꿔채는 바람에 꼬리가 뭉청 끊어지고말았습니다.

힘이 약한 토끼에겐 뭉툭한 끝만이 조금 남았습니다. 토끼는 하는수없이 그것이라도 그냥 달고말았습니다.

맨 나중에 뚱기적거리며 수리봉마루에 올라선 짐승은 꿀꿀이였습니다.

꿀꿀이는 조금 가다가 다리맥이 풀리면 아무데나 걸터앉아 쉬기도 하고 더우면 나무그늘밑에서 땀을 실컷 들이다가 그냥 쿨쿨 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중에서 제볼장을 다 보다나니 꿀꿀이는 한달 열흘만에야 수리봉마루에 이르렀던것입니다.

꿀꿀이는 두리두리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온전한 꼬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꼬리단을 묶었던 꼬불꼬불한 매끼만이 땅바닥에 딩굴고있을뿐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집도 아닌 숲속의 습기찬 덤불속에서 자고 뜨물도 아닌 맨 풀만 먹으며 한달나마 걸어왔는데 내가 가질 꼬리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아이구, 벌마을짐승이나 숲속의 짐승들이나 무정하기는 매한가지로구나.)

꿀꿀이는 분기가 치밀어올랐으나 누구를 딱 짚어서 탓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꼬리를 묶었던 매끼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수 없지. 이거라도 달아야지. 힘들게 왔다가 그냥 돌아갈수야 없지.)

꿀꿀이는 서운한대로 꼬불꼬불한 매끼를 엉뎅이에 쥐여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뚱기적뚱기적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애개개, 꿀꿀이의 꼬리를 좀 봐. 저게 꼬리단을 묶었던 매끼가 아니야?》

《맞았어. 우리가 버리고온 그 매끼가 틀림없어.》

《게으름뱅이 꿀꿀이에게 매끼가 차례진것도 다행이지 뭐.》

꿀꿀이의 꼬리를 바라보는 벌마을짐승들은 배를 그러안고 하하호호 웃어댔습니다.

《뭐뭐 매끼가 어쨌다구?!》

자기를 비웃는 짐승들을 눈을 지릅뜨고 쏘아보던 꿀꿀이는 이렇게 한마디 내뱉았습니다.

《흥, 너희들은 내 덕분에 좋은 꼬리를 단줄이나 알아라. 아마 이 매끼가 없었다면 그 꼬리들이 산마루에 떨어지지 못하고 하늘에서 다 흩어지고말았을걸.》

《야, 매끼꼬리를 단 주제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흰소리까지 치누나. 하하하…》

짐승들은 산이 떠나갈듯 한껏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게으른 꿀꿀이는 오늘도 오불꼬불한 꼬리를 엉뎅이에 달고다닌답니다.

주체73(1984)년

푸른 벼포기들이 우줄우줄 춤을 추는 어느 논벌에 부지런한 참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참개구리는 봄내 여름내 가으내 줄곧 땀을 흘리며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몇해를 내려오며 농사를 짓다나니 참개구리에겐 저도모르게 한가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욕망이란 다름아닌 날씨알아맞추는 재주를 가지고싶은 생각이였습니다. 몇해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날씨를 잘 알아맞추지 못하다나니 다 자란 벼포기들을 장마비에 떠내려보내거나 아니면 가물이 들어 논판이 쩍쩍 갈라져 농사를 망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날씨를 잘 알아맞힌다면 이런 일쯤은 념려도 없을것입니다.

가물이 들 징조면 물주머니에 물을 미리 넉넉히 마련해두고 또 장마가 진다면 수렁을 더 깊숙이 째놓으면 별 걱정이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참개구리는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날씨알아맞

추는 재주를 익혀내리라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글쎄 무슨 재주로 땅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의 그 오만가지 변덕을 미리 척척 알아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개구리는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몸을 부지런히 문질러보며 감각을 예민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기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몸이 축축해서 비올 징조를 미리 척척 알아내군 하였습니다.

참개구리가 날씨알아맞추는 재주를 익히는 사이에 어느새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오자 참개구리에게 또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해따라 별나게 날씨가 습해지자 벼메뚜기이며 벼깡충이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이놈들은 개구리의 벼농사를 아예 망치게 할셈으로 벼포기들을 야금야금 뜯어먹었습니다.

참개구리는 넓은 논판을 조금도 쉬지 않고 훌쩍훌쩍 뛰여다니며 벌레잡이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너비뛰기재주가 필요했습니다.

참개구리는 벌레도 잡고 재주도 익히는겸 부지런히 논판을 뛰여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참개구리는 아주 희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곡식들도 잠을 잘 자야 빨리 큰다는 소리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글쎄 잠을 잘 자면 몸이 난다는거야 누구나 잘 아는 리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주로 벼포기들을 잠재울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것 같았습

니다. 그저 별빛이 쏟아져내리는 은은한 저녁에 자장가를 잘 불러주면 될듯싶었습니다.

결국 참개구리는 노래도 잘 불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개구리는 이 세가지 재주를 익혀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참개구리는 한낮의 무더운 뙤약볕에 땀을 철철 흘리며 너비뛰기련습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벌이 되는 맹꽁이가 풀잎우산을 척 받쳐들고 오래간만에 이 논벌에 찾아왔습니다.

맹꽁이는 한참이나 참개구리가 너비뛰기련습을 하는걸 애처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혀까지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개구리야, 한가지 재주를 익히기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여러가지 재주를 다 갖춘다고 그 고생이니?》

그러자 참개구리가 땀을 씻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힘든것만은 사실이야. 하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재주인데 다 익혀둘테야. 그래야 풍년벌을 잘 가꾸지. …》

더우기 참개구리는 이 세가지 재주를 익힐뿐아니라 다 익힌 다음에는 남들과 한번 겨뤄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참개구리의 욕망을 듣고난 맹꽁이는 그만 두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얘, 여러가지 재주를 다 가진다면야 오죽이나 좋겠니. 하지만 재주란 욕망과는 달라. 그저 맘먹은대로 다 되는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맹꽁이는 뭇짐승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실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난다긴다 하는 뭇짐승들도 저저마다 한두가지 재주밖에는 못가진다는 것이지요. 례하면 멍멍이는 냄새맡는 재주와 달리기재주, 오소리는 굴파는 재주, 다람쥐는 나무타기재주… 모두가 한두가지 재주밖에는 없다는것이랍니다.

그러나 참개구리는 남이야 어떻든간에 자기한테 필요한 재주는 모두 익혀내리라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남 다 자는 밤이면 눈 한번 붙일세라 《개골개골》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르고 낮이면 낮대로 너비뛰기련습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참개구리가 부지런히 재주를 익히는 사이에 푸른 논판이 누런 빛으로 물들어가더니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숲속에서는 한해농사를 지은 기쁨을 안고 뭇짐승들의 여러가지 재주겨루기가 벌어진답니다.

드디여 뭇짐승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왔습니다.

재주겨루기가 열리는 숲속의 넓다란 잔디밭에는 이른아침부터 갖가지 색기발이 춤추듯 펄럭이고 북과 꽹과리를 든 응원단들과 구경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슴, 노루, 토끼, 다람쥐를 비롯한 산마을짐승들도 밀려오고 멍멍이, 야웅이를 앞세운 벌마을짐승들도 빠짐없이 모여왔습니다.

여러 짐승들과 함께 이번엔 손에 딱딱이를 든 개구리네 형제들도 왔습니다.

《참, 논판에 사는 너희들까지 구경오는걸 보니 이 재주겨루기가 더 흥이 나게 됐구나.》

그들은 개구리형제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위엄있게 생긴 곰서방이 절구통같이 커다란 메가폰을 들고 디뚝거리며 걸어나왔습니다.

곰서방은 자그마한 바위돌우에 닁큼 올라서서 여러 짐승들을 쭉 훑어보며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주겨루기에는 우리 길짐승들외에도 저 창포늪에 사는 개구리형제들까지 더 참가하게 됩니다. 나는 모임주최측을 대표해서 이 재주겨루기에 처음 참가하는 개구리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러자 뭇짐승들은 박수를 치면서 남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개구리라니?》

《그럼 저 개구리들도 선수로 나온단 말이냐?》

《글쎄?!》

짐승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슴뻑거렸습니다. 그도그럴것이 개구리들은 그 이름만 봐도 짐승축에 들지 못하니까요. 또 몸집조차도 짐승들과 재주를 겨루기에는 어방없는 차이가 있구요.

그러나저러나간에 곰서방이 개구리들도 선수들명단에 넣었으니 참가한다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곰서방은 계속하여 여러가지 재주겨루기의 심판원과 심사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달리기경기부터 곧 시작하겠습니다.》

곰서방의 사회가 끝나자 하늘이 떠나갈듯한 환호속에 달리기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달리기경기에서는 지난해처럼 키다리노루가 단연 1등을 하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달리기에 이어 나무타기경기에서는 다람쥐가 첫

자리를 차지하고 냄새맡기에서는 멍멍이가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경기에서는 벌마을 꿀꿀이가 산마을 꿀꿀이를 멧다꼰지고 결승선에 올랐습니다.

정말 볼만 했습니다. 맹꽁이의 말대로 뭇짐승들은 저저마다 한두가지 재주만은 특별하게 잘했습니다.

《다음은 너비뛰기경기입니다.》

너비뛰기경기의 심판원인 게사니가 긴 목을 빼여들고 디뚝디뚝 걸어나와 호르래기를 호르륵 호르륵… 불었습니다. 너비뛰기경기는 여러 짐승들이 참가한만큼 승부는 자기 키의 몇배를 뛰는가로 결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날파람있는 점박이사슴과 노루형제들이 맨 먼저 경기장으로 껑충껑충 뛰여나왔습니다.

그뒤를 이어 뚜거덕이말과 멍멍이, 야웅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참개구리가 개구리형제들을 대표해서 훌딱훌딱 뛰여나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기세를 올리자 개구리형제들도 딱따기를 치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맹꽁이만은 얼굴이 지지벌개서 코방귀만 흥흥 불었습니다.

(공연히 여러가지 재주를 다 익힌다고 우쭐렁대더니 집안망신하게 됐다.)

맹꽁이는 저혼자 투덜거렸으나 누구 하나 그에게 주의를 돌리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구경군들의 눈은 저절로 점박이사슴과 뚜거덕이말에게 쏠렸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경기에서 점박이와 뚜거덕이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서로 승부를 다투었기때문이였습니다.

《점박이 이겨라!》

《뚜거덕이 이겨라!》

산마을짐승들과 벌마을짐승들은 서로마다 기세를 올렸습니다.

점박이와 뚜거덕이는 짐승들의 환호에 자신있는듯 저마다 손을 들어 답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굽혔다폈다 하면서 준비운동을 한 후에 큰숨을 들이키였습니다.

그런데 참개구리만은 겁먹은 눈길로 짐승들을 둘러보며 출발선에 못박힌듯 서만 있었습니다.

《참개구리가 미리부터 겁먹은 모양이구나!》

《그럴만도 하지. 저 날쌘 뚜거덕이와 점박이를 무슨 수로 당해낸담!》

구경군들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였습니다.

이윽고 게사니가 호르래기를 길게 불었습니다.

드디여 경기가 시작되였습니다.

맨먼저 점박이사슴이 나섰습니다.

점박이는 멀리에서부터 속도를 내여 달려오더니 출발선에 이르자 뒤발로 땅을 차며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네굽을 휘-휘 젓더니 저만치나 먼 거리에 날아가 쿵- 떨어졌습니다.

게사니가 메터자를 들고 그 거리를 재여봅니다.

그러자 사슴네 형제들은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환호를 올렸습니다. 보나마나 점박이가 1등이라는 거지요.

점박이사슴의 뒤를 이어 키다리노루와 멍멍이, 야웅이가 뛰였습니다.

이번에는 뚜거덕이의 차례였습니다.

뚜거덕이는 제 차례가 되자 《오호홍!》 하고 입나팔까지 불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속도를 얻기 위해 점박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부터 뚜거덕뚜거덕 뛰여왔습니다. 뚜거덕이도 출발선에 이르자 발굽으로 땅을 차며 공중으로 씽— 날아올랐습니다.

때마침 회오리바람이 불어 뚜거덕이의 그 멋진 갈기털까지 물결처럼 날리게 되자 뚜거덕이네 식구들은 일시에 야아— 환호를 올렸습니다. 틀림없이 뚜거덕이가 1등이라는거지요.

게사니가 급히 메터자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글쎄 뚜거덕이와 점박이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또 꼭 같은 거리를 뛰였습니다.

그러자 구경군들은 그만 맥이 탁 풀렸습니다. 보나마나 올해도 너비뛰기경기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을것이 뻔한 일이였으니까요.

맨 나중으로 참개구리차례였습니다. 별로 기대되는건 아니였지만 하여튼 구경군들은 참개구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개구리는 다른 짐승들처럼 먼발치에서 뛰여오르지도 않고 그저 출발선에서 큰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어렵지 않게 앉은자리에서 훌쩍 뛰였습니다.

《흥, 너비뛰기라는걸 아예 식부터 모르는군!》

구경군들은 참개구리가 뛰는 꼴을 보고 머리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개구리가 뛴 거리를 재여보던 게사니가 무작정 그가 1등이라고 선포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참개구리가 왜 1등이란 말이요?》

성미가 급한 뚜거덕이가 게사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짐승들은 저저마다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뚜거덕이가 칠팔메터를 뛰였다면 참개구리는 기껏해서 두세메터밖에 뛰지를 못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오산한것은 게사니가 아니라 짐승들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싶이 참개구리는 키가 6센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메터를 뛰였으니 이는 자기 키의 50배를 뛴것으로 됩니다. 자, 이쯤 설명하면 1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사니가 빙그레 웃으며 설명하는 말이였습니다. 정말 1등이였습니다. 뚜거덕이나 점박이는 겨우 자기 키의 사오배를 뛰였다면 참개구리는 자그만치 50배를 뛰였으니 과시 선수권보유자였습니다.

요란한 환호성이 울리고 그자리에서 참개구리에게 《붓꽃메달》이 수여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경연이였습니다.

통나무로 무은 무대에 안경을 낀 꾀꼴새선생이 사뿐사뿐 걸어나와 손풍금반주를 시작하자 짐승들이 차례차례로 무대에 올라서서 독창을 했습니다.

수염쟁이염소가 높은 고음으로 《매—애, 매—애》 하며 멋들어지게 독창을 했습니다. 물론 짐승들의 대절찬을 받았습니다.

다음엔 저음가수인 황소가 《음매—음매》 하고 웅글은 소리로 목청을 뽑았습니다. 황소의 뒤를 이어 고음인 야웅이, 멍멍이, 다람쥐 그리고 저음인 뚜거덕이, 점박이, 꿀꿀이…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음정으로 노래를 불렀을뿐 여러가지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맨 나중으로 참개구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모든 짐승들은 삽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습니다. 은근히 그의 노래를 기다렸기때문이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참개구리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표시한 후 한번 큰숨을 들이키였습니다. 그 순간 아래턱에서 닭알만한 주머니가 난데없이 불쑥 튕겨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주머니야?!》

짐승들은 참개구리의 턱을 쳐다보며 저저마다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때 꾀꼴새선생이 상긋이 웃으며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참개구리의 아래턱에 있는 저 주머니가 바로 공명낭 또는 성낭이라고 부르는 노래주머니입니다.》

참개구리는 그 노래주머니를 리용하여 제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주면서 《개골개골》하기도 하고 《객》, 《꾸르르》, 《깔깔깔》 하고 여러가지 음정을 뒤바꾸어가며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풍금반주를 하는 꾀꼴새선생이 순간순간마다 그 감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꾀꼴새선생의 설명에 의하면 《개골개골》 하는 노래소리는 벼포기들을 잠재우며 다독이는 소리였습니다.

《개골개골 자장자장》 이렇게 달래다가도 정 잠들지 않고 설레는 벼포기가 있으면 《객!》 하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벼포기가 소르르 잠이 들면 《꾸르르》

하고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개구리는 여러가지 감정을 뒤바꾸어가며 시내물처럼 거침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보면 저절로 스르르 잠이 왔습니다.

바로 참개구리는 별빛이 쏟아져내리는 은은한 저녁에 벼포기들을 잠재우며 부르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에야 잠에 소르르 취했던 짐승들이 화닥닥 깨여나며 재청을 했습니다.

보나마나 노래경연에서도 참개구리가 1등이였습니다.

뭇짐승들은 산이 들썩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두가지 재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련마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날씨알아맞추기경기였습니다.

날씨알아맞추기경기에서도 참개구리는 이미 소문난 그 재간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참개구리는 피부를 문질러보며 한시간후에는 틀림없이 한소나기가 퍼붓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니나다를가 한시간후에 정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바빠맞은 짐승들은 나무잎을 뒤집어쓴다 나무밑에 기여든다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얼마쯤 소낙비가 퍼붓더니 다시 하늘은 가뭇없이 맑게 개였습니다. 이윽고 하늘가에 칠색무지개가 아롱아롱 수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칠색무지개가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참개구리가 앉아있는 소나무가지에 척 걸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무지개는 하늘에서 해님이 참개구리에게 안

겨주는 꽃다발인양싶었습니다.

이윽고 뭇짐승들의 우뢰와 같은 환호속에 시상식이 진행되였습니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곰서방이 참개구리에게 《만능선수》라는 큼직한 꽃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한결같은 요청으로 참개구리가 연단에 나섰습니다.

참개구리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가볍게 들고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재주를 갖추게 된 비결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논벌의 주인으로서 벼포기들을 잘 가꾸려면 갖가지 재주를 꼭 갖춰야만 하였습니다. 나는 재주를 갖추는것이 곧 벼포기들을 잘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맡은 일에서 성공하자면 이악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참개구리는 지난날 재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참개구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짐승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갈채는 참개구리처럼 이악하게 노력하여 자기한테 필요한 재주는 꼭 익히겠다는 뭇짐승들의 한결같은 결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같은 개구리네 집안이면서도 여러가지 재주중에 어느 한가지도 익히지 못한 나약한 맹꽁이도 있었습니다.

주체74(1985)년

1

산에 산마다 빨갛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이 하나둘 소리없이 떨어지는 숲속에 쌀쌀한 마가을이 왔습니다.

해 저물도록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가며 벌레잡이를 하던 애기클락새는 갑자기 들려오는 쿵덕쿵 방아소리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꾀꼬리네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길래 떡방아를 찧을가?)

부쩍 호기심이 동한 애기클락새는 포롱포롱 날아서 꾀꼬리네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휘늘어진 버드나무가지에 자리잡은 꾀꼬리네 집에서 마침 애기꾀꼬리가 꿀떡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꾀꼴아, 무슨 일이 있니?》

《음, 우리 집에선 떡을 한단다.》

《갑자기 떡은 왜 하니?》

《래일 우린 이 숲을 떠난대. 그래서 가면서 먹을 떡을 친단다.》

《뭐, 숲을 떠난다구?》

애기클락새는 너무나 뜻밖의 소리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이 온대.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눈이 내린대. 그래 여기서는 못살고 저 따뜻한 강남으로 이사를 간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구? 그래 거긴 겨울이 없다니?》

《응, 거긴 겨울이 없대. 일년내내 꽃이 피고 일년내내 열매가 맺히는 좋은 곳이래. 거기서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면 이 숲으로 다시 온다고 했어.》

애기꾀꼬리는 황금빛 날개를 으쓱이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너도 어서 집으로 가보아라, 혹시 너의 엄마가 떡을 해놓고 기다릴지 아니?》

《정말.》

애기클락새는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보니 후투디네 집에서도 떡을 치고 뻐꾸기네 집에서는 지짐을 지지고있었습니다.

(모두모두 가누나.)

마음이 다급해진 애기클락새는 어느새 자기 집문을 열어제꼈습니다.

《엄마, 우린 떡을 안하나?》

《애야, 갑자기 떡은 왜 하겠니?》

바람벽틈새를 꽁꽁 막고있던 엄마클락새가 일손을 멈추고 의아해서 애기클락새를 쳐다보았습니다.

《래일 찌꼬리네랑 뻐꾸기네랑 다 이사를 간대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이 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바람벽틈새랑 꽁꽁 막지 않니.》

엄마클락새는 그제야 사연을 알아차렸다는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사가지 않나요?》

《그래, 이사를 안간다. 우린 여기서 겨울을 난단다.》

애기클락새는 그만 맥이 탁 풀렸습니다. 행여나 강남으로 가보고싶었던 생각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였기때문이였습니다.

《네가 정 섭섭하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떡은 하자꾸나.》

금시에 날개죽지가 축 처져서 자리에 주저앉는 애기클락새를 바라보며 엄마클락새가 말하였습니다.

(야, 남들이 다 이사가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 남을가? 한번 엄마에게 졸라볼가?)

그러나 한번 아니라면 그만인 엄마클락새에게 조를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애기찌꼬리네는 집을 떠났습니다.

애기클락새는 헤여지기 섭섭해서 그를 멀리까지 바래주려고 따라나섰습니다.

한동안 두 애기새는 말없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기찌꼬리가 먼저 말을 뗐습니다.

《너흰 왜 이사가지 않는대?》

《모르겠어. 그저 우리 엄마는 여기서 겨울을 난다고만 했어.》

《너의 엄만 참 답답하구나. 남들이 다 이사가는데 왜 혼자만 남겠다고 할가?》

애기찌끄리는 제가 안타까운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우리 새들이란 철을 따라 좋은 곳을 골라가며 살기마련이래. 그러면서 우리처럼 철을 따라 이사가는 새들을 철새라고 부른다고 하였어. 그러니 나도 철새야.》

애기찌끄리는 우쭐해서 재잘거렸습니다.

애기클락새는 그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잘 가!》

《래년에 다시 만나자!》

드디여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여지게 됐습니다. 애기클락새는 애기찌끄리의 금빛몸뚱이가 멀리 한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애기클락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랑가랑 고였습니다.

(나도 철새로 태여났으면…)

2

애기찌끄리네가 떠나가자 숲속엔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날 아침, 애기클락새가 잠에서 깨여나보니 숲속이 온통 새하얘졌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우

중충한 나무들이 모두가 두툼한 눈옷을 몇벌씩 껴입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람까지 터졌습니다.

그런데 엄마클락새는 그날도 일찌기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이면 벌레도 성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일찌감치 집을 나설가?)

하긴 언제한번 집에서 편히 쉬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할 일 없는 애기클락새는 집에서 놀기도 싫증이 나서 가만가만 엄마뒤를 따라나섰습니다.

엄마클락새는 애기클락새가 뒤따르는줄도 모르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앉으며 쉴새없이 부리로 나무가지를 똑똑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나무가지에 두툼하게 쌓여있던 눈무지들이 부실부실 떨어져내렸습니다.

(엄마가 눈을 터누나.)

그제야 애기클락새는 나무가지에 눈이 많이 덮이면 부러진다고 언젠가 엄마클락새가 걱정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애기클락새는 저도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글쎄 남들은 다 떠나갔는데 왜 우리만 남아 애써 일을 할가?)

봄내 여름내 가으내 비오나 바람부나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벌레잡이를 하고도 무엇이 모자라서 이 겨울까지 애써 일을 하는지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마는 일밖에 몰라.)

애기클락새는 심드렁해서 나무가지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앗!》 하는 비명소리에 놀라서 눈길

을 돌려보니 글쎄 방금까지만 해도 눈을 털던 엄마클락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클락새가 눈을 털던 해묵은 느티나무우듬지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무지가 갑자기 쏟아져내리면서 엄마를 눈속에 파묻어놓은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애기클락새는 다급히 눈속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한참만에야 눈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엄마클락새를 찾아냈습니다.

애기클락새는 왈칵 설음이 북받쳐올라 엄마클락새를 막 부둥켜안았습니다.

《엄마, 정신을 차리세요. 네, 엄마!》

그래도 엄마클락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애기클락새는 엄마를 둘쳐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입김으로 엄마클락새의 언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한겻이 지나서야 엄마클락새는 눈을 떴습니다.

《얘야, 지금이 어느때쯤 되였느냐?》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애기클락새는 곧이곧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엄마클락새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엄마, 그 몸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얘야, 이런 날엔 눈을 털어주지 않으면 나무가 상한다.》

《야— 참 엄마두, 남들은 다 떠나갔는데 어쩌면…》

애기클락새는 금시에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남들이 다 떠나갔다고 우리까지 떠나면 숲은 누가 가꾸겠느냐.》

엄마클락새는 애기클락새의 깃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남아서 숲을 가꿔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아요.》

《숲을 가꾸는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란다.》

엄마클락새는 우득부득 집을 나섰습니다.

애기클락새도 할수없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엄마클락새를 따라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눈도 털어주고 나무를 좀먹는 속벌레도 잡아내였습니다.

처음엔 날개가 뻐근하고 부리가 얼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다운 숲이 반겨주고 숲속에 남아있는 여느 새들이 자기를 《꼬마의사》라고 불러주는것이 기뻤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사기가 나서 엄마를 따라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한참 일하다보니 엄마클락새가 어느 해묵은 느티나무가지에 붙어앉아 열심히 벌레를 잡고있었습니다.

《엄마, 그 나무는 구새까지 먹었는데 이젠 벌레를 잡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애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손이 미처 돌지 않아 벌레를 잘 잡아주지 못해 그러지 이 나무도 잘 가꾸면 여느 나무 못지 않게 푸르러질게다.》

엄마클락새는 해가 저물 때까지 줄곧 그 느티나무에 붙어앉아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직심스럽기도 하구나.)

애기클락새는 엄마클락새의 일솜씨를 하나하나 익혀두었습니다. 그날밤 엄마클락새는 애기클락새를 품에 꼭 껴안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애야, 넌 엄마가 왜 여기에 남은줄 아느냐?》

《그건 숲이 귀중하기때문이지요.》

애기클락새는 엄마클락새의 얼굴을 말똥말똥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옳게 대답했다. 숲이 귀중하기때문이란다. 남들은 흔히 이 숲이 좋아서 여기에 찾아와 살지만 우리는 귀중한 이 숲을 가꾸는 기쁨에 이고장을 떠나지 않고 사는게란다.》

(숲을 가꾸는 기쁨에 이고장에서 떠나지 않는다구? 숲을 가꾸는것이 그리도 기쁘단 말인가.)

애기클락새는 엄마의 그 깊은 속마음이 다는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3

애기클락새가 엄마의 속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것은 한살을 먹은 그 이듬해 봄부터였습니다.

애기클락새도 이제는 막내클락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덧 모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자 엄마클락새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앉으며 이번엔 해묵은 삭정이들을 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왜 끊어주나요?》

《이래야 나무에 가지가 많이 뻗고 잎이 무성해진단다.》

봄볕이 내려쪼일수록 엄마클락새의 일손은 더욱 바빴습니다.

겨우내 나무껍질속에 깊이 들어가 잠을 자던 벌레들

이 다시 요동을 쓰고 마지막발악을 하는데 하늬바람은 애어린 나무가지들을 사정없이 뒤흔들어놓았습니다.

엄마클락새는 그럴 때이면 벌레를 잡다가 애어린 나무가지들을 깃으로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는 막내클락새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찡했습니다.

여태까지 막내클락새는 이 숲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이 저절로 자라는줄로만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숲의 어느 나무, 어느 가지에도 엄마의 이런 노력이 깃들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클락새는 날이 갈수록 숲이 더 살뜰하게만 보였습니다.

막내클락새는 엄마처럼 살고싶었습니다.

그는 엄마클락새와 함께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막내클락새는 얼음장밑에서 돌돌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아, 물소리!》

그것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그들의 기쁨을 끝없이 노래하는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탐스럽게 부풀어올랐던 버들개지들이 떨어지고 연분홍빛 진달래며 새하얀 배꽃이 피여났습니다.

뒤이어 향기그윽한 아카시아꽃이며 조이삭같은 밤꽃이 피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숲은 온통 꽃으로 뒤덮이였습니다.

더우기는 그 언젠가 엄마가 줄곧 벌레를 잡아주던 그 해묵은 느티나무가지에도 잎이 피여나고 날이 갈수록 더 푸

르러졌습니다.

막내클락새는 엄마의 그 직심스러운 노력이 푸른 잎새가 되고 자기의 구슬땀이 꽃으로 피여난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 일년내내 숲에 살면서도 숲이 이렇게 아름답고 살뜰한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숲을 가꾸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 모진 겨울에도 이 숲을 떠나지 못했구나.)

막내클락새는 비로소 엄마의 속마음이 다 리해되였습니다.

꽃철이 되자 강남갔던 꾀꼬리네도 다시 이사왔습니다.

어느날 막내클락새와 동갑이꾀꼬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니?》

《죽지 않으면 다시 만나보는구나.》

한동안 두 어린새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그래 너희는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니?》

이윽고 동갑이꾀꼬리가 막내클락새의 깃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클락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클락새가 눈을 털다가 눈속에 파묻힌 일도, 또 삭정이들을 끊어주다가 자기가 부리를 상한 일도 다 말해주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을 따라 좋은 고장만 찾아다니는 저 꾀꼬리에게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싶었습니다.

막내클락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동갑이꾀꼬리는 제 흥에 겨워 말을 계속했습니다.

《난 이번에 강남에 가서야 내가 태여난 숲이 제일 아름다운줄 알게 되였어.》

동갑이찌끄리는 흥에 겨워 여기저기를 쉴새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여기가 네가 태여난 숲이라고?》

《그럼 내가 태여난 숲이 아니고 뭐니?》

동갑이찌끄리는 사연을 몰라 막내클락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막내클락새의 가슴에서는 그만 불뭉치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여기에서 몰아치는 눈보라소리를 들어봤니?》

《…》

《얼음장밑에서 돌돌 흐르는 개울물소리를 들어봤니?》

동갑이찌끄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태여난 숲과 함께 어려움도 기쁨도 나눌 때만이 진짜 숲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거란다.》

막내클락새의 목소리는 긍지에 가득차있었습니다.

《너희는 계절을 따라 마음이 편하고 좋은 곳을 골라가며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자기가 태여난 숲을 떠나지 않고 그 숲을 가꾸는데서 행복을 찾는 머물새야, 머물새!》

정다운 숲을 한가슴에 안은 막내클락새의 마음은 기쁨으로 끝없이 부풀어올랐습니다.

주체76(1987)년

얼기설기 배관들이 숲을 이루고있는 어느 비날론공장에서 흰눈같이 새하얀 솜솜이와 섬섬이라는 두 애기솜퉁구리들이 태여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천톤씩 태여나는 그 많은 솜들중에서 솜솜이와 섬섬이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희망마저 작은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을 할가?》

솜솜이와 섬섬이는 뭉실뭉실한 두손을 꼭 맞잡고 생각에 골똘히 잠겼습니다.

《양복천이 될가, 꽃담요가 될가?》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솜솜이가 한마디 하자 섬섬이가 팔을 저었습니다.

《자꾸만 생각할게 있니.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일 헐하고 편한 일감을 찾으면 될텐데. … 넌 공연히 마음을 쓴다니까.》

그러자 솜솜이가 가볍게 눈을 흘겼습니다.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일감이란 한번 찾으

면 끝까지 해야지 이것저것 해보면 되니. 그래서 될수록 깊이 생각해보자는거란다.》

솜솜이는 한참 생각을 굴리다가 마침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폭신폭신한 꽃담요가 되여 사람들을 포근히 덮어주는 일을 할테야!》

그러자 섬섬이도 선뜻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난 질좋고 보기 좋은 양복천이 되여 사람들을 감싸주는 일을 할테야. 뭐니뭐니해도 양복천이 되는 길이 제일 멋있거든.》

흥분하기 좋아하는 섬섬이도 어느새 열이 올랐습니다.

정말 그들이 흥분할만도 한 일이였습니다.

솜솜이와 섬섬이의 앞길에는 질좋은 양복천과 외투천, 이불등, 꽃담요, 주단, 물고기를 잡는 그물 등 그 무엇이나 다 될수 있는 넓은 길이 활짝 열려져있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희망하기탓이였습니다.

솜솜이와 섬섬이는 어서 자기들의 희망을 꽃펴나갈수 있는 방직공장으로 가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앉은자리에서 콩당콩당 꽃방아를 찧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태여난지 이틀도 못되여 《승리》호 부릉이가 오더니 그들을 싣고 어느 방직공장으로 숨가삐 달려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솜솜이와 섬섬이는 너무 기뻐 부릉이의 적재함바닥에서 발을 막 구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비날론공장에서 태여난
눈같이 하얀 비날론솜이라네
푸르른 하늘에는 구름이 피고
우리의 가슴에는 희망이 피네

솜솜이와 섬섬이가 팔을 휘저으며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부릉이는 어느새 방직공장 정문으로 기세좋게 들어섰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니 손에손에 꽃을 든 여러 실토리들이 마중나왔습니다.

솜솜이와 섬섬이는 한 실토리의 안내를 받으며 맨 처음 염색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고운 천과 담요가 되려면 온몸에 물감부터 들여야 한단다.》

그들을 안내하는 실토리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솜솜이와 섬섬이의 눈에는 모든것이 새롭고 누구나 자기들을 반겨주는것만 같았습니다.

염색직장에 찾아가니 참 볼만 했습니다.

소여물가마보다 몇갑절이나 더 큰 은회색가마들이 줄을 지어 서있고 그뒤로는 네모난 긴 집들이 잇닿아있었습니다.

《집안에 또 집이 있구나. 저 집은 무슨 집이니?》

섬섬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실토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토리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저 집안의 집은 젖은 몸을 말리는 건조로야. 저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물에 흠뻑 젖은 몸이라 해도 눈깜

빡할 사이에 제꺽 마른단다.》

《그러니 저 가마안에 들어가서 온몸에 물감을 들인 다음 건조로속으로 들어가 말리는 모양이구나.》

솜솜이가 아는체를 했습니다.

《네가 척척 알아맞히는구나.》

그 실토리가 솜솜이를 보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건조로에 들어갔다나온 다음에는 모든것이 흐름식으로 되여있으니 그저 판을 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다. 그럼 다시 만나자.》

실토리는 방긋 웃어보이고는 그들과 헤여졌습니다.

솜솜이와 섬섬이가 눈길로 실토리를 멀리까지 바래주고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가마뚜껑들이 벌꺽벌꺽 열리더니 그속에서 뽀얀 증기와 함께 온몸에 갖가지 물감을 들인 솜퉁구리들이 훌쩍훌쩍 뛰여나왔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나서 가마곁으로 다가서던 솜솜이와 섬섬이는 저도모르게 뒤걸음질쳤습니다. 글쎄 가마속에서 세차게 쏟아져나오는 증기가 얼굴을 한번 스쳐지나가는데 금시에 숨이 컥컥 막히는것이였습니다.

《이크, 잘못 왔구나.》

섬섬이는 단번에 겁이 났습니다. 어쩐지 그 가마속이 무시무시하게만 생각되였습니다.

그는 방금 솜퉁구리들이 뛰쳐나온 가마속을 먼발치에서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가 그속에서는 물이 펄펄 끓어번지고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쳤습니다.

(고운 천이 된다는것은 힘든 일인데…)

섬섬이는 슬금슬금 뒤걸음질쳤습니다.

그러자 솜솜이가 주저하는 섬섬이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솜퉁구리들이 다 들어갔다나오는데 우리라고 못들어갈거야 없지 않니.》

《난 숨이나 좀 돌리고 천천히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갈테니 인차 뒤따라와.》

솜솜이는 제먼저 가마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순간 《이크!》 하는 비명소리가 가마속에서 튀여나왔습니다.

(솜솜이가 녹아나는 모양이구나.)

섬섬이는 점점 발길이 굳어지고말았습니다.

(저 가마속에 들어갔다나온 후에는 무더운 건조로속에 또 들어가야지… 고운 천은 보기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흰천도 있다는데 그거나 돼볼가?)

섬섬이의 마음은 뒤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섬섬이가 갈팡질팡하고있을 때에 온몸이 새파랗게 물이 든 솜솜이가 가마속에서 뛰여나와 제창 건조로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솜솜이가 땀을 씻으며 섬섬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혼나긴 해도 한번 해볼만 하더구나. 요만한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희망을 꽃피울수 있겠니? 어서 가마속으로 뛰여들어가렴.》

솜솜이가 몇번이나 권고했으나 이미 딴마음을 먹은 섬섬이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얘 솜솜아, 나는 까놓고말해서 고운 꽃천이 못된다 해

도 흰천으로 되여 그저 수수하게 살아갈테야.》

《넌 제꺽 흥분하기도 하고 결심이 빨리 변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되니 섬섬이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잡고 관을 따라 실뽑는 곳인 정방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방직장에는 여러 직기들이 가로세로 줄을 지어 서있었는데 빨간 수건과 파란 수건을 쓴 누나들이 기대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손이 재빠른 누나 하나가 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솜뭉치중에서 섬섬이를 따로 골라냈습니다.

《어떻게 되여 물을 들이지 않은 솜뭉치가 이곳으로 왔을가? 여긴 꽃실을 내는 직장인데…》

누나는 섬섬이를 들어서 한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솜솜이가 안달이 나서 섬섬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섬섬아, 이제라도 다시 가서 가마속에서 물을 들이고 오려마.》

솜솜이가 간절하게 타일렀으나 섬섬이의 눈앞에는 펄펄 끓는 가마가 떠오를뿐이였습니다.

《어차피 헤여지게 될텐데 이다음에 다시 만나자.》

섬섬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솜솜이와 헤여졌습니다.

멀리 실뽑는 직기들을 찾아가는 솜솜이를 맥없이 바라보던 섬섬이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꽃천이 못돼도 흰천이 되여 그럭저럭 살아가자.》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흰천이 되면 꼭 남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을것만

같았습니다.

(흰천이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을가?)

생각을 굴리던 섬섬이에게 문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가 비날론공장에서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물로도 될수 있다고 가르쳐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그물이 되자. 고기만 잘 잡으면 꽃천보다 오히려 더 사랑을 받을수도 있어.)

섬섬이는 이곳저곳 길을 물어가며 그물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물직장에 찾아가니 그곳에는 이미 본것보다 좀 류다른 기계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습니다.

《얘, 저 기대들은 뭘하는 기계들이냐?》

섬섬이는 곁에 있는 한 솜퉁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응, 저 기계는 견절기라고 부르는데 질리고 강한 힘을 키워주는 기계란다.》

《뭐, 질리고 강한 힘을 키워준다구?》

섬섬이는 그 말이 귀에 설었습니다.

《그물이 되자면 무엇보다도 질리고 견딜힘이 강해야 하지 않니. 저 기계가 바로 그런 힘을 키워준단다.》

《그래?》

일감을 찾지 못해 애타하던 섬섬이는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선뜻 견절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번 감겨보니 꽤 견딜만도 했습니다.

(견딜힘을 키우는것이 힘들지 않구나. 벌써 그물직장으로 찾아왔을걸.)

견절기에서 한창 견딜힘을 키워가던 섬섬이는 문뜩 앞

서 온 두 그물실퉁구리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를 얻어들었습니다.

《얘, 처음부터 결심을 잘해야 한단다. 일생을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일한다는것이 보통일이 아니란다.》

《칫, 몇번이나 말해야 알겠어요. 난 그런 결심이 서있다지 않아요.》

아마 형,동생되는 사이인가 봅니다.

(뭐, 일생을 차디찬 물속에서 일을 한다구?!)

섬섬이는 그물이 되여 고기를 잘 잡아 칭찬받을 생각만 했지 시퍼런 물속에서 일을 한다는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길도 아연하게만 생각되였습니다.

《에이— 그물이 그런것인줄 몰랐구나.》

섬섬이는 그물직장에서 제스스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엇이 돼야 일생을 편안하고도 쓸쓸하게 살수 있을가?)

섬섬이는 온종일 이 직장, 저 직장으로 다녀보았으나 그럴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감을 찾기란 보통이 아니구나.)

그는 며칠동안 넓으나넓은 온 방직공장을 메주밟듯 다녀도 적당한 희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몸에는 저도모르게 여기저기에서 기름이 묻고 먼지가 들어앉았습니다.

그러나 섬섬이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섬섬이는 마침내 그럴듯한 일감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좀 우스운 일이지만 생필직장으로 찾아가서 손쉽게 장갑이 되는 길이였습니다.

(그저 장갑이나 돼서 사람들의 몸가까이에서 살아보자.)

섬섬이는 이번엔 생필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섬섬이가 뜻밖에도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장갑을 뜨던 아주머니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섬섬이를 보더니 저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굴러온 솜뭉치기에 이렇게 기름때가 묻었어. 장갑이 되자면 몸이 깨끗해야 한다는걸 모르는 모양이지.》

그런데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기막힌 일은 한 아주머니가 때묻은 그를 닁큼 들어서 헌솜이나 토막실을 넣어두는 실밥통에 집어넣는것이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밥통에서 살게 된 섬섬이는 너무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비참한 운명이람!)

섬섬이는 자기를 돌이켜볼 대신에 그를 실밥통에 집어넣은 아주머니만 두고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만에 어떤 아주머니가 섬섬이를 실밥통에서 꺼내여 걸레감으로 쓰려고 집에 들고갔습니다.

그 집에는 영남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남이는 어머니가 들고있는 걸레감을 보더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엄마가 새 걸레감을 가져왔네.》

그날부터 걸레가 된 섬섬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주물리며 장판이나 닦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영남이의 집에는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남이의 엄마가 새 꽃담요를 사온것이였습니다.

영남이는 너무 기뻐 앉은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며 춤을 추었습니다.

《애, 영남아! 그렇게 좋아하지만 말고 장판을 닦아라. 고운 꽃담요에 먼지 한점 묻어서야 되겠니?》

《네, 알겠어요.》

영남이는 걸레를 몇번이나 물에 헹구어 장판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구들이 알른알른했습니다.

그제야 영남이의 엄마는 보자기를 풀어헤치고 구들바닥에 새 꽃담요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얄궂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꽃담요가 다름아닌 한날한시에 태여난 그 솜솜이가 아니겠습니까!

《솜솜아!》

《섬섬아!》

온 식구가 잠이 든 깊은 밤에 솜솜이와 섬섬이는 서로 부둥켜안았습니다.

《고운 꽃천이 되겠다던 네가 어떻게 되여 걸레가 되였니?》

솜솜이는 너무 안타까와 가슴을 쥐여뜯었으나 섬섬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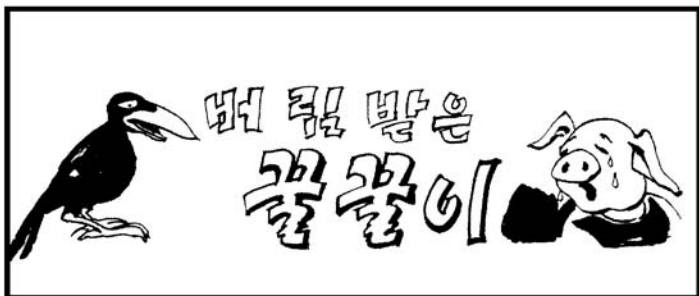
섬섬이의 눈앞에는 지나간 나날이 그림처럼 스쳐지났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가 두려워 들어가보지도 않고 뒤걸음치던 일이며 차디찬 물속이 싫다고 그물직장에서 뛰쳐나오던 일, 생필직장에서 버림받던 일…

(아, 자그마한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쉬운 일감만 찾은탓에 이런 신세가 되였구나. 솜솜이와 나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였구나.)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무엇이나 다 될수 있는 그 좋은 비날론솜으로 태여나고도 걸레밖에 되지 못한 섭섭이에게는 그후에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장판이나 부지런히 닦을수밖에 딴길은 없었습니다.

주체78(1989)년

우리의 가슴속에는 량심이라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자리잡고있답니다.

그래서 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받게 된답니다.

그러나 어느 벌마을에 사는 꿀꿀이에게는 량심이란 그 착한 마음이 없다지 않습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꿀꿀이에게 본래부터 그 량심이 없었을가요?

아니랍니다. 꿀꿀이는 일부러 량심을 버렸답니다.

왜 버렸는가구요?

그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참 어이가 없답니다.

록음이 짙어가는 초여름날입니다.

어느 농촌마을에 아담한 기와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황소를 비롯한 여러 집짐승들이 살았는데 낮이면 모두가 집을 나섰습니다.

부지런한 황소는 주인을 따라 밭일을 나가고 집 잘 지키는 멍멍이는 안주인을 따라 장마당에 갔습니다.

다만 집에는 풀과 짚검불을 짓밟아서 거름을 만드는 꿀

꿀이만이 남았습니다.

꿀꿀이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풀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한낮이 되였습니다.

(좀 쉬였다 할가?)

꿀꿀이는 다리쉼을 하며 집주변을 여기저기 돌아보았습니다.

벌써 엊그제 심은것만 같은 감자포기들이 어느새 소담한 흰꽃을 이고있었습니다.

(꽃이 피면 감자알들이 달린다고 했지.)

꿀꿀이는 불쑥 햇감자알을 먹고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감자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둥이로 푹푹 감자포기를 막 파헤쳤습니다.

그 순간이였습니다.

《주인이 애써 심은 감자를 몰래 파먹으면 되니?》

어디선가 갑자기 이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꿀꿀이는 와뜰 놀라서 뒤걸음질쳤습니다.

그는 사방을 두리두리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살피긴. 네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 량심이 하는 말인데.》

그제야 꿀꿀이는 그 말소리가 다름아닌 자기 가슴속에서 울리는 소리라는걸 알았습니다.

《난 또 누구라고.》

꿀꿀이는 놀란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누가 보지 못한것이 천만다행이였습니다.

그는 아수한대로 감자밭에서 물러서서 하던 일을 다

시 계속하였습니다.

한참 풀을 짓밟고나니 이번에는 소르르 졸음이 왔습니다.

(한잠 자고볼가.)

꿀꿀이는 풀을 짓밟다말고 그자리에 벌렁 누웠습니다.

《남들이 다 일하는데 혼자만 건달을 부리면 되니?》

그것도 량심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칫, 못살게는 구네. 넌 대체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있길래 이래라저래라 야단이니?》

《그건 네가 날 때부터 자리잡고있었지. 그땐 좁쌀알만했는데 점점 자라서 이젠 네 마음속의 거의 절반은 내가 차지했단다.》

《마음속의 절반을 차지했다구?》

《그래. 이제 날이 가면 네 마음속의 전부를 차지할수 있단다.》

그 말을 들은 꿀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도 그 량심때문에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하지 못하는데 점점 더 커지는 날엔 정말 큰 야단입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량심의 《포로》가 되여 그가 시키는대로만 살아야 할것 같았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버리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군.)

꿀꿀이는 마치 량심을 때려주기라도 하는듯 가슴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량심이 있는 이상 어쨌든 그가 시키는대로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꿀꿀이가 마지못해 풀을 짓밟고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꿀이가 눈이 둥그래서 사방을 살펴보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퍼런 대낮에 까마귀 한마리가 마당에서 놀고있는 햇병아리 한마리를 채가고있지 않겠습니까.

꿀꿀이는 까마귀를 다쫓아갔습니다.

《이놈아, 병아리를 내놔라. 그 어린걸 채가다니 량심이 있니? 꿀꿀.》

그러나 날개를 가진 까마귀를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어느새 병아리를 꿀꺽 삼킨 까마귀가 히물히물 웃으며 꿀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흥, 량심! 량심이란게 도대체 뭐니?》

까마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 참, 네놈은 량심이라는것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남의 병아리를 채갈수밖에.》

꿀꿀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 알고도 나머지가 있지. 다만 살아가는데 거치장스러우니 버렸을따름이지.》

《뭐 량심을 버렸다구? 그럼 넌 지금 량심이 없니?》

《없구말구. 백년가까이 살다나니까 량심을 가지고있는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구나. 그래서 그걸 버린지가 벌써 까마득하단다.》

까마귀는 장한듯이 날개를 으쓱이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가 감자밭을 파헤치다가 주춤거리며 물러선것도 그 량심때문이지? 봐라, 량심을 가지고있는것이 얼마나 불편하니?》

까마귀는 꿀꿀이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것만 같았

습니다.

꿀꿀이는 그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읽어보던 까마귀가 다시 지분거렸습니다.

《그러니 너도 량심만 없어봐라. 속이 떨린다든가 가책을 받는다든가 하는 시시껄렁한 일이 없이 그저 살고싶은대로 살수가 있단다.》

까마귀는 한참 지껄이다가 훌쩍 날아가버렸습니다.

《칫, 싱거운 자식! 누가 그런걸 모른다구.》

꿀꿀이는 까마귀가 사라진쪽을 멍청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그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날밤 꿀꿀이는 잠자리에 누워서 그가 한 말을 다시금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심보나쁜 놈이 지껄인 말이라 해도 그저 싱거운 소리는 아니였습니다. 확실히 자기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량심을 가지고 산다는것이 불편한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낮에 있은 일만 해도 그 량심만 없었더라면 달콤한 감자맛을 실컷 볼수 있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량심이 더 커지기 전에 버리긴 버려야겠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그 량심을 어떻게 버리는지 그 방법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그걸 버렸다니 그 방법을 물어봐야겠군.)

그 이튿날 꿀꿀이는 또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는 은근히 까마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다를가 한낮이 되자 또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혼자 있니? 너 어제밤 좀 생각해봤겠지?》

까마귀는 꿀꿀이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말을 건늬였습니다.

그러나 꿀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를 만나면 량심을 버리는 방법을 물어보겠다고 벼르던 그였지만 막상 만나고보니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얘, 내 말대로 량심을 버려만 봐라.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른단다.》

까마귀는 치근치근 달라붙었습니다.

《하긴 나도 처음에 량심을 버릴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단다. 하지만 정작 버리고보니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막 날것만 같더구나.》

꿀꿀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는 더는 속생각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있는 그 량심을 어떻게 버린단 말이냐? 보이지도 않는걸.》

《하—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주는 알약 세알만 먹으면 된단다. 그걸 먹으면 가슴속이 새까매지는데 그러면 그속에 있는 량심도 새까매질수밖에 없단다. 량심이 새까매진다는건 아주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란다. 있어도 맥을 못추니까.》

《알고보니 량심을 버리는 방법이 아주 쉽구나.》

꿀꿀이는 히벌쭉 웃었습니다.

그걸 본 까마귀가 갑자기 신중해지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란다. 그 알약 세알을 만든다는것이 보통일이 아니란다.》

《그런데 대체 그 알약을 어떻게 만드니?》

꿀꿀이는 다되여가던 일이 금시에 틀어지는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알약은 나만 만들수 있는데 매우 힘들단다. 내 가슴속에 비삼이라는게 있지. 산삼 못지지 않는 좋은 약재말이다.

그 비삼을 조금 꺼내서 여러가지 약풀에다 뒤섞어서 만든단다. 그러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니?》

《그러면 그 약풀만은 내가 뜯으면 안되니?》

《약풀이름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산속을 헤매며 뜯어내겠니. 힘들어도 내가 뜯어다 만들어줄테다. 그저 나와 친하기만 하자. 네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줄테니.》

《그거야 두말할것도 없지.》

《그럼 이젠 너와 나는 친한 동무가 됐으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선 일체 눈을 감아라.》

까마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병아리 몇마리를 채가지고 훌쩍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까마귀는 정말 신기한 알약 세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내가 말하던 그 알약이다.》

꿀꿀이는 알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꿀꺽 삼키였습니다.

이윽고 꿀꿀이는 어쩐지 몸이 땅에 잦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짚검불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꿀꿀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루낮 하루밤을 꼬박 자다가 그 다음날 한낮에야 깊은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잠을 깨고보니 배가 출출하고 어쩐지 가슴속이 허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 모양이군.)

꿀꿀이는 주인이 구유통에 담아놓은 뜨물을 게걸스럽게 쩝쩝 삼키였습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사방을 두리두리 살펴보았습니다. 첫눈에 소담한 감자포기들이 확 안겨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감자밭을 보고만 있었을가.)

꿀꿀이는 주저없이 감자밭으로 기여들어 감자포기를 마구 파헤치였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떨리거나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응, 량심이 없어지긴 없어진 모양이군.)

그는 감자알들을 와드득와드득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을 지키던 멍멍이가 깜짝 놀라서 감자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얘, 꿀꿀아! 너 정신 있니? 왜 주인 몰래 감자밭을 파헤치니?》

《흥, 내가 먹고싶어서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 감자냐?》

꿀꿀이는 제편에서 눈을 흘기였습니다.

《정 먹고싶으면 주인에게 달래서 먹어야지.》

멍멍이가 몇번이나 타일렀으나 이미 량심을 버린 꿀꿀이에게 그 말이 통할리가 없었습니다.

꿀꿀이는 앞을 막아나서는 멍멍이를 밀쳐버리고 맛나게 감자를 캐먹었습니다.

한참 감자를 파먹고나니 식곤증이 왔습니다. 그는 또 잠자리에 찾아들었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골며 낮잠을 자는데 거름을 지러왔던 황소가 그를 깨웠습니다.

《꿀꿀아, 부지깽이도 바빠 뛴다는 여름철에 무슨 낮잠이냐?》
그러자 꿀꿀이는 제편에서 화를 벌컥 내였습니다.
《나 하나가 일 안한다 하여 농사가 망하겠어요.》
《아니, 너 량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
《흥, 량심! 내가 그까짓 량심을 버린지가 언제라고.》
《뭐, 량심을 버렸다구?》
영문을 모르는 황소는 그만 아연했습니다.
그러건말건 꿀꿀이는 또 감자밭으로 기여들었습니다.
《한잠 잤으니 한밥 또 먹어야지.》
꿀꿀이가 또 감자를 캐먹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밭일을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두두! 이놈의 꿀꿀이가 환장을 했나.》
주인은 꿀꿀이를 감자밭에서 급히 몰아냈습니다.
주인이 발길을 돌리자 꿀꿀이는 또 감자밭으로 기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눈에 다시 걸려들었습니다.
《허, 이놈의 꿀꿀이가 정말 이상하구나.》
주인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그를 다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꿀꿀이는 주인이 곁에 없기만 하면 자꾸만 감자밭으로 기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채찍맛을 봐야겠군!》
주인은 부지깽이로 꿀꿀이의 등허리를 사정없이 내려조기였습니다.
꿀꿀이는 매맞은 등허리가 얼얼해났습니다. 그제야 꿀꿀이는 정신병자가 가끔 제정신이 드는것처럼 한동안이나마 자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였습니다.

아픔이 사라지자 꿀꿀이는 또 감자밭으로 기여들었습니다. 하긴 자기를 통제하는 량심이 없으니 고칠래야 고칠수도 없었지요.

그 다음날, 밭일을 나가던 주인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감자밭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하지만 헛일이였습니다. 집이 빈 사이에 꿀꿀이는 울타리를 뛰여넘어 온 감자밭을 몽땅 파헤치였습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이웃집 양배추밭까지 탕을 쳐놓았습니다.

그날저녁 일터에서 돌아온 주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새 꿀꿀이가 이웃집 양배추밭까지 탕쳐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황소와 멍멍이를 비롯한 집짐승들이 모여왔습니다.

주인은 여러 집짐승들이 모인 앞에서 꿀꿀이에게 말했습니다.

《꿀꿀아, 넌 이제부터 우리속에서 혼자 살아야겠다.》

《아니, 우리속에서 혼자 살다니요.》

꿀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눈을 희번득거렸습니다.

《꿀꿀아, 깨끗한 량심을 가져야 집단과 동무들속에서 함께 살수가 있단다. 그렇지 못할 땐 집단속에서 살수가 없어. 너 하나때문에 집단의 물이 흐려질수 있거든.》

주인은 뚝딱뚝딱 돼지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속에 꿀꿀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좁으나 좁은 우리속에 갇히운 꿀꿀이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그 고함소리를 듣고 일터로 가던 멍멍이와 황소가 우리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흥, 량심없이 놀더니 꼴이 좋군!》

《량심을 버린다는것이 자기자신을 버리는것인줄 몰랐던 모양이지.》

황소와 멍멍이는 량심을 저버린 그를 더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 고함소리를 듣고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꿀꿀이량반! 이젠 내 덕분에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한턱 내구려.》

까마귀는 구유통에서 꿀꿀이가 먹다남은 찌꺼기들을 건져먹었습니다.

《이놈아, 내 량심을 도로 찾게 해다오. 나는 이대로는 못살겠다.》

《뭘 그래 친구. 량심없는 덕분에 좋은 집을 쓰고살게 됐는데.》

까마귀는 히물히물 웃으며 찌꺼기들을 다 건져먹고는 훌쩍 날아가버렸습니다.

꿀꿀이는 우리안에서 외롭게 갇혀살게 된 때에야 량심을 버린 지난날을 열백번 후회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동무들의 버림을 받은 꿀꿀이는 오늘도 좁으나 좁은 우리안에서 갇혀살게 되였습니다.

주체76(1987)년

소문이란 발이 없어도 언제나 빨리 퍼지는 법이랍니다.

요즘 숲속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점점 기운이 진해가는 호랑이놈이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때없이 날친다는것이였습니다.

늙은 몸을 보신하고 기운을 돋구는데 좋다는 여러 산짐승들을 마구 해치다못해 바다에 사는 거부기까지 노린다는것입니다. 아마 거부기가 오래 산다는 말을 얻어듣고 그를 먹기만 하면 그만큼 오래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였습니다.

어느날 알낳을 철이 되여 따뜻한 모래불에 나왔던 거부기는 소금기를 핥으려고 바다가에 내려온 사슴한테서 그 소문을 듣고서 입을 쩝쩝 다시였습니다.

《그래, 그놈이 그렇게도 오래 살고싶어한단 말이지.》

《벌써 몇번이나 바다가를 싸다녔대요. 그러니 다시는 물역에 나오지 마세요. 혹시 그러다가 화를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고맙다. 그러나 알을 물속에다 낳을수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모래불에 낳아야겠으니 호랑이와 맞설수밖에 별도리가 없구나.》

《호랑이와 맞선다구요? 아이구, 그놈이 얼마나 포악한 놈이기에… 그저 그런 놈은 슬슬 피해다니는게 상책이예요.》

《그렇다고 겁내기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날밤 거부기는 물결이 출렁이는 바위에 앉아서 오래도록 호랑이와 맞서볼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도 좀처럼 호랑이와 맞서서 이길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밤하늘에 떠있는 쪼각달을 바라보는 순간 불쑥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거부기는 저도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그 이튿날 거부기는 다시 따뜻한 물역에 나왔습니다.

한낮이 퍽 지났을무렵이였습니다. 멀리에서 갑자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위험을 느낀 거부기의 머리가 어느새 갑속에 쑥 들어가버렸습니다.

이읏고 누른색바탕에 어룽어룽 가로난 검은 줄무늬와 바늘처럼 빳빳한 흰수염이 돋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호랑이가 바다가에 나타났습니다.

백사장에 드러누워 온몸을 갑속에 가드라뜨리고있는 거부기를 본 호랑이의 입에서는 군침이 슬슬 돌았습니다.

(응, 이놈을 오늘에야 겨우 만났군!)

고함을 질러 산짐승들의 넋을 빼앗는데 습관된 호랑

이는 《따―웅》 하고 우뢰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덮어놓고 앞발로 거부기의 잔등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순간 무쇠같은 갑에 맞아 발톱이 쑥 빠지는것 같았습니다.

《이크!》

호랑이는 저도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꼴을 갑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거부기가 그제야 목을 빠금히 내밀었습니다.

《이놈, 네가 바로 포악하기로 소문난 호랑이란 놈이지? 어디 한번 나를 해쳐봐라.》

거부기는 호랑이에게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섰습니다.

호랑이는 다시한번 두발로 콱 짓밟았으나 오히려 제 발만 더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갑을 물어뜯자니 이발이 상할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한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살살 구슬려서 오래 사는 비결이나 알아내는것이 더 좋지 않을가?)

호랑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빌붙었습니다.

《거부기야, 참 미안하구나. 사실 너를 해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그저 바위같은것을 보면 발톱을 써보는 버릇이 있다보니 그렇게 됐구나.》

《허, 네놈이 그렇게 나올줄 알았다.》

거부기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대번에 노한체 했습니다.

《아니, 대체 너는 몇살이나 되기에 이 늙은이보고 반말질이냐.》

《내 나이 금년에 백살쯤은 되였다.》

호랑이는 제 나이를 곱으로 더 불쿠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부기는 쓰겁게 웃었습니다.

《내 이래뵈두 나이가 백에다 둘을 곱하고도 아흔아홉은 더 붙었다. 그래 너의 호랑이세상에는 도덕도 없느냐?》

힘만 믿고사는 호랑이는 나이쯤은 상관없으나 비위를 거슬리면 오래 사는 비결을 대주지 않을가보아 그제야 낮추붙었습니다.

《예—예, 내 미처 몰랐지요.》

《그래, 나를 왜 찾아왔느냐?》

《글쎄, 거부기님. 이런 분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까마귀와 같이 흉칙한 놈도 백년은 쉽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나만은 한창 살아볼만한 사십나이에 끝을 보게 했을가요. 옛날에 누가 나이를 이렇게 정해주었는지 정말 씹어삼켜도 분을 못풀줄 압니다. 내 나이가 사실은 금년에 서른아홉인데 이제 한해밖에 더 살수 없으니 분하고 아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호랑이는 가슴을 쥐여뜯었습니다.

《흥, 너는 이날이때까지 착한 짐승들과 숲을 해친 일밖에 없으니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놈이 아니냐?》

《그렇구말구요. 그거야 이를데가 없지요. 하지만 나도 이 세상에 태여났을 땐 한번 보람있게 살자고 했는데 그만 어미를 잘못 만나서 나쁜것만 물려받다나니 이 발톱에 숱한 짐승들의 피만 묻혀왔지요. 죽더라도 이 죄를 말

끔히 씻고서야 남과 같이 떳떳이 눈을 감을게 아닙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는척 하는 호랑이를 보는 거부기는 구역질이 나서 침이라도 콱 뱉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노는 꼴을 좀더 보고싶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게서 오래 사는 비결을 알아내여 죄를 씻을 기회를 마련하겠단 말이지?》

《예—예…》

호랑이는 제법 굽신거렸습니다.

(교활한 놈이군!)

거부기는 저혼자 중얼거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일년을 잘살면 되지 않겠느냐?》

《일년 가지고 씻을 죄라면 거부기님을 찾아부터 오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자기 죄를 하나라도 더 털어놓아 솔직한체 해야만 거부기가 오래 사는 비결을 대줄것 같았습니다.

《그럼 5년쯤 더 사는 법을 대주면 어떠냐?》

《5년이라구요? 아이구,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되기에 5년동안에 다 씻는단 말입니까. 나는 한평생 풀만 뜯어먹으며 남에게 눈 한번 흘겨본적이 없는 착하디착한 토끼를 매끼마다 서너마리쯤은 식은죽먹기로 삼켰으니 그 죄를 오년동안에 어떻게 다 씻겠습니까.》

(잘 논다. 어디 몇년까지 더 살겠다고 지껄이나 보자.)

거부기는 호랑이의 구미를 바싹 돋구어주어야 그를 자기 꾀에 걸려들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그럼 한 십년쯤이면 만족하겠느냐?》

《십년도 어림없어요. 나는 노루네가 자식을 보지 못해

서 갖은 정성을 다한 끝에 마침내 귀여운 쌍둥이형제를 낳았을 때 그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이 제 어미 젖을 한번 빨아보기도 전에 홀딱 삼켜 배속에 넣었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죄를 십년동안에 어찌 다 씻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푼푼히 오십년이면 더 생각이 없겠지?》

《그것도 모자랍니다. 사실 이 죄는 입에 담기도 무섭지만 씻자고 하니 별수 없지요. 나는 못생긴 메돼지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해 골방에 앉아서 한숨만 쉬다가 때를 훨씬 넘겨서야 겨우 가마타고 시집가는걸 고개마루에서 기다렸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어메치였습니다. 그래서 웃음많던 잔치날이 울음판으로 되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저 푸른 하늘이 알았더라면 생벼락을 쳤을것입니다.》

거부기는 짐짓 노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할가부다.》

《여부가 있습니까. 그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옛날부터 천하지대본이 농사라 했는데 나는 밭갈고 후치질하는 황소와 씨앗을 싣고가는 하늘소와 노새마저 사정없이 해치워 농사를 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숱한 짐승들이 무리로 굶어죽게 했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그럼 한 백년쯤 사는 법을 대주면 그 죄를 다 씻을것 같으냐?》

《아닙니다. 죄는 짓기는 쉬워도 씻기는 열갑절 힘든 법이니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 대체 몇년이면 흐뭇하겠느냐?》

《적어도 5백년을 살면서 씻어야 할가봅니다.》

그러자 거부기는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나는 기껏해서 3백년밖에 더 살지 못하는데 5백년까지 사는 법을 어떻게 대준단 말이냐?》

《그러면 아쉬운대로 삼백년사는 법이라도 대주면 그동안 내물에 손발을 씻듯이 지은 죄를 말끔히 씻겠습니다.

우선 뭇짐승들의 피를 묻혀온 이 사나운 발톱부터 돌에다 갈고갈아 부드러운 비단처럼 만들어서 착한 짐승들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주고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이 눈은 눈병을 잘 고치는 부엉이의원한테서 수술하여 순하디순한 양의 눈으로 바꾸어달며 이 얼룩덜룩한 꼬리에다는 물을 발라서 무더운 여름날 풀밭을 가꾸는 착한 짐승들의 이마에 줄줄이 흐르는 땀을 시원히 씻어줄가 하나이다.》

(흥, 말은 제법인걸.)

거부기는 어이가 없었지만 순순히 들어주는체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점점 성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기 좋아하는 이 심보사나운 마음씨는 어질고어진 토끼의 마음씨로 바꾸어 착한 짐승들의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될가 하나이다.》

《그게 다냐?》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를 착한 길로 이끄는 은인을 몰라보는것은 죄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줄 압니다. 내 비록 아쉬운 일이라 이 위신있는 수염을 뽑아서 거부기님의 이쑤시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래 사느라면 치담이라도 걸릴지 뉘 알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때마다 흔히 하는 말이 뼈를 깎아서 신세를 갚는다 했는데 필요하다면 내 뼈를 갈라내여 호골주를 만들어서 거부기님의 몸보신에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꽃피는 봄날, 단풍이 드는 가을날 거부기님을 내 등에다 모시고다니며 누구든 살아생전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금강산 만이천봉우리를 일일이 구경시켜드리고 동해의 장쾌한 해돋이를 보게 하여 이 세상의 귀중함을 알게 하겠나이다.

옛날부터 호랑이라면 호피부터 먼저 생각하였는데 내 죄를 씻고 죽는 날엔 거부기님에게 몸을 그대로 맡길터이니 이 가죽을 벗겨내여 방석을 만들어 오래오래 쓰도록 하십시오.》

(포악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교활하기도 그지없구나.)

거부기는 애써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으-흠, 듣기 좋구나. 그러면 네 결심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부터 삼백년사는 비결을 대줄테니 귀담아 듣거라.》

(흥, 이제야 이 미물같은 늙다리가 내 꾀에 말려들었군.)

호랑이는 속으로 쾌재를 올렸습니다.

《내 오래 사는 비결이란 다른게 아니다. 네 눈에는 저 하늘중천의 둥근 달이 그저 달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달떡이라는게다. 장수하는데 아주 귀중한 약재란 말이다. 가만, 이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어쩐다…》

거부기는 말하다 말고 주춤거렸습니다.

호랑이놈은 안달이났습니다.

《아-아, 그건 념려마십시오. 내 입만은 철문입니다.》

《그럼 내친김에 다 말할테니 누구한테도 말을 번져서는 안된다.》

거부기는 이렇게 오금을 박고서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둥글둥글한 달떡이 깊은 바다에 잠겨있다가 해지는 저물녘이면 찰랑거리며 하늘에 떠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날쌔게 매일매일 한입씩 뜯어먹는단다. 그래서 통통하던 둥근 달이 한입씩 뜯어먹는것만큼 차츰차츰 작아져서 쪽배같은 반달이 되고 그것마저 자꾸자꾸 뜯어먹다나니 나중엔 눈섭만한 쪼각달로 되는거란다.》

《예, 그렇군요.》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너 달이 왜 밤에만 솟는지 아느냐? 만일 한낮에 솟는다 해봐라. 그게 떡인만치 누구나 한입씩 베여먹을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남다 자는 밤에만 아무도 모르게 슬쩍 떠오르는거란다.》

호랑이는 연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러니 어서 그 달떡을 뜯어먹도록 해라.》

거부기는 말을 마치고 우정 백사장에 척 드러누웠습니다.

호랑이는 거부기가 한 말을 곰곰히 되새겨보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거부기의 말이 어쩐지 이상하고 께름직했습니다.

(달떡을 매일매일 한입씩 뜯어먹는다면 그 떡이 벌써 다 없어진지도 아흔아홉번이겠는데 보름이 지나면 왜 다시 둥근 달떡이 될가? 옳지, 이 늙다리가 저혼자 오래 살려고 나를 속이는게 분명하다.)

호랑이는 거부기가 괘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이 난 호랑이는 눈을 뚝 부릅뜨고 거부기를 단번에 요정내려는듯 앞발을 번쩍 쳐들며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흥, 너 거부기님 거부기님 하니까 이 호랑이를 업수이여겨도 분수가 있지. 자꾸 뜯어먹는다는 달떡이 왜 없어지지도 않고 보름만에 다시 전만큼 커지는거냐?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가.》

호랑이는 또 본성이 되살아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허, 이놈이 아직도 잘 믿지 않으니 어떡한다?)

거부기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흔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것아…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언제 내가 달떡을 다 먹어치운다고 했느냐. 눈섭만큼 남겨둔다고 했지. 그 눈섭만한 달떡이 하늘에서 은하샘을 먹고 차츰차츰 부풀어나서 보름이 지나면 다시 둥근 달떡이 되는거란다. 나는 그 보름동안 내처 자다가 다 부풀어난 다음에 깨여나 또 그걸 뜯어먹으며 사는거란 말이다.》

의심많은 호랑이놈도 그제야 리해가 되는지 머리를 또 끄덕이며 다시 발라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참, 거부기님. 나는 자그마한 내물밖에 건너본적이 없는데 그 달떡이 솟아오른다는 곳까지 어떻게 헤염쳐갈가요?》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달떡이 그렇게 중한걸 아는 놈이라면 그쯤한거야 저절로 생각해서 해내야지 누가 데려다주겠느냐?》

거부기는 시침을 뗐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물을 찔끔찔끔 쥐여짰습니다.

《거부기님, 거부기님,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어질고 착하신 거부기님! 아까도 말했지만 내 그 은혜를 백골이 진토되여도 잊지 않을터이니 수고스럽지만 나를 달뜨는 곳까지 태워다주세요.》

호랑이놈은 손발을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허, 이거 딱한데. 내 잔등이 아무리 넓다해도 네 몸무게를 이겨내겠느냐?》

거부기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호랑이놈은 몸까지 배배꼬면서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거부기님은 옛날 잔등에 토끼를 태워서 룡궁구경까지 시켜주었다더군요. 제발 부탁인데 나도 한번 그렇게 태워주십시오.》

《그럼 할수 없지. 네가 정 소원이라면 힘이야 들겠지만 한번 수고해보자꾸나.》

거부기는 눈을 슴뻑이며 잔등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어서 내 잔등에 올라타거라.》

호랑이놈은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그 잔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내 오늘은 네놈에게 달떡도 마음껏 먹여주고 룡궁구경도 실컷 시켜줄테다!)

호랑이를 태운 거부기는 서서히 바다로 헤염쳐 들어갔습니다.

거부기잔등을 타고가는 호랑이는 너무 좋아 웃음집이 흔들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 마음이 정말 착해진줄 아느냐. 그렇다면 나는 벌써 호랑이가 아니지. 이제 달떡을 뜯어먹고 너까지 냠냠 잡아먹고서 삼백년보다 더 오래 살아갈

테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조용조용 코노래를 불렀습니다.

긴긴 사설로 그 마음 녹였으니
아양과 웃음이면 못할 일 없다네

그러자 귀밝은 거부기가 뒤따라 불렀습니다.

알고도 속자니 분한 맘 풀길없어
간신히 참았더니 이제야 웃음나네

《거부기님, 이제 뭐라고 했나요?》

《응, 너를 태우고가니 웃음이 절로 난다고 했다.》

《네에, 나는 악한 마음을 씻으면 못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거부기는 쓰겁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삼백년나마 살 날을 그려보니 흐뭇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내 이제 삼백년 사는 동안이면 뭇짐승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고 그 뼈다귀로 바다를 메워서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고래놈까지 발밑에 꿇어앉히고 야금야금 뜯어먹을 테다!)

거부기는 신이 나서 앉은자리에서 어쩔줄 모르는 호랑이를 싣고 점점 깊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바다물이 빙빙 소용돌이치는 깊은 곳에 다달았습니다.

그 소용돌이치는 시퍼런 물결을 내려다보던 호랑이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거부기가 넌지시 한마디 했습니다.

《일없다. 자그마한 돌을 던져도 물결이 일어나는 법인데 저 깊은 물에 큰 달떡이 잠겨있어서 소용돌이치는거란다. 단단히 보아라. 저 소용돌이속에 달떡이 보이지 않느냐?》

호랑이는 소용돌이속을 내려다보고 또 보았습니다.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거부기가 그 소용돌이속으로 쑥 들어가며 호랑이를 등에서 떨궈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달떡을 어서 베여먹어보아라. 그다음에 룡궁구경도 시켜주지.》

물에 떨어지자마자 호랑이는 허우적거리며 정신없이 물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거부기가 빈정거렸습니다.

《달떡을 먹자면 물부터 먹어야 목에 슬슬 넘어가느니라.》

꿀꺽꿀꺽 물을 먹는 호랑이놈은 그제야 거부기한테 속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어쩌다 내가 저 거부기한테 속았을가? 이럴줄 알았더라면 물고뜯고서라도 저놈의 고기맛을 보는걸…》

호랑이놈은 비명을 지르며 함지박만한 시뻘건 입을 쩍 벌렸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짜디짠 바다물을 실컷 처먹고 마지막숨을 거두는 호랑이를 보고 거부기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이놈아, 삼백년도 더 살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될질줄을 몰랐지!》

호랑이를 깊은 소용돌이속에 처박은 거부기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저무는 뭍우로 유유히 기여올랐습니다.

뭍에서는 사슴을 비롯한 숱한 뭇짐승들이 걱정하며 거부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기가 호랑이를 통쾌하게 요정냈다는것을 알고는 모두들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거부기님, 어쩌면 그런 멋진 생각을 다 했어요.》

《이젠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활개치며 살게 됐군요.》

《아서라, 호랑이같은 놈이 한둘인줄 아느냐. 그러나 걱정할건 없다. 언제나 원쑤를 피하지 말고 맞받아나설 결심만 하면 그 어떤 지혜도 샘솟는 법이니라.》

그때 호랑이를 삼켜버린 바다우에서는 싱글벙글 둥근 달이 웃고있었습니다.

주체69(1980)년

개울물이 돌돌 흐르는 어느 산속마을에 마음씨 무던한 큰바위어머니가 살고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석회석은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씨가 곱고 무던했습니다. 게다가 얼굴마저 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저집 딸은 말쑥하게 잘 생긴데다가 마음씨마저 얼마나 고운지 모른답니다.》

《마음씨만 고운가요. 일솜씨는 또 어떻구요.》

《정말 손색없는 맏며느리감이지요.》

석회석을 두고 산속마을의 보물들은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사실 석회석은 수수해서 보기가 좋은데다가 일솜씨마저 놀랄만 했습니다.

그가 재간을 피워서 만든 세멘트로는 화려한 주택들과 공장을 지었고 백년대계의 다리와 언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소석회는 논밭에 뿌려지면 농작물이 와와 소리치며 자랐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인물이 잘났겠다 게다가 일솜씨까지 좋은 딸을 가진 큰바위어머니는 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내가 딸 하나만은 잘 두었어. 이제 알맞는 짝을 무어주어 잘살게 해야지.)

그래서 석회석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마자 사처에서 끌끌한 신랑감들이 문돌쩌귀에서 불이 나게 찾아들었습니다.

하루는 먼 북변에서 어깨가 쩍 버그러지고 틀지게 생긴 쇠돌총각이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쇠돌총각은 여러가지 기계와 자동차, 배를 만들고 어려운 일치고 못하는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것만큼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총각이였습니다.

이런 총각이 제발로 척척 찾아왔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큰바위어머니, 저에게 딸을 맡겨주십시오.》

입이 묵직한 쇠돌총각은 더 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바위어머니는 좋았습니다.

(이런 총각이야 손색이 없지.)

어머니는 곧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석회석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아직 시집갈 생각이 없어요.》

《얘야, 네 나이가 벌써 몇인데 아직두…》

큰바위어머니는 딸에게 거듭 말했으나 그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수없이 큰바위어머니는 아쉬운대로 쇠돌총각을 그냥 돌려보낼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령길을 넘어가는 쇠돌총각을 바라보며 큰바위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저런 총각 다시 만날수 없어. 만날수… 이제라도…》

큰바위어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아 며칠째 딸과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쇠돌총각이 돌아간지 며칠만에 구리돌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구리돌총각은 곳곳에 전기를 날라주고 메달이라든가 기계의 제일 마찰이 심한 곳에서 한몫을 담당하고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쇠돌총각이 일을 무섭게 제낀다면 구리돌총각은 그대신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만큼 쉽지 않은 신랑감이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 저는 따님과 짝을 뭇고싶어 찾아왔습니다.》

구리돌총각도 자기의 진정을 쏟아놓았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보기만 해도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총각이야말로 진짜 나무랄데가 없지.)

큰바위어머니는 딸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러자 석회석은 이번에도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석회석은 듣기 좋은 말로 어머니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얘야, 무엇을 더 생각한단 말이냐. 세상에 구리돌

총각보다 나은 총각이 어데 있겠니. 지금은 기술의 시대인데 그에게 기술이 있겠다, 인물 잘 났겠다.》

큰바위어머니는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리돌총각을 그냥 돌려보낼수밖에 없었습니다.

령길을 넘어가며 아수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구리돌총각을 바라보는 큰바위어머니는 잡았던 새를 놓친듯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면 어쩔려고 그러니. 이것아!》

큰바위어머니의 근심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던 며칠후 이번에는 온몸이 번쩍거리는 금돌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금돌총각으로 말하면 멋쟁이로 소문이 뜨르르한 총각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제일 귀한것을 금에다 비기겠습니까.

쇠돌총각이 흑색금속이라면 구리돌총각은 유색금속이요, 금돌총각은 그보다 훨씬 값비싼 희유금속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돌총각은 우쭐대거나 경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큰바위어머니, 저의 간절한 소원은 따님과 백년을 해로하고싶은것입니다.》

금돌총각은 멋쟁이답게 점잖게 청을 들이대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제사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저 총각이야말로 우리 딸과 천하에 없는 배필이다.)

뭐니뭐니해도 이 세상에 금돌총각보다 나은 총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큰바위어머니는 딸을 불러앉혔습니다.

《얘야, 이건 우리 집안의 행운이다. 너도 더 다른 생각이 없을줄 안다.》

그러자 석회석처녀는 어머니를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금돌총각이야말로 더 이를데 없이 훌륭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분수에 맞는 총각을 맞고싶어요.》

큰바위어머니는 그만 난처했습니다.

어느새 눈치를 차린 금돌총각은 얼굴이 빨개서 령을 넘어갔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억이 막혔습니다.

《얘야, 나는 네일에 더는 비치지 않겠다.》

큰바위어머니는 분해서 동가슴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석회석처녀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한 리유가 어데 있을가요?

사실 석회석처녀에게는 일찍부터 남모르게 은근히 사모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총각이 다름아닌 령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에 사는 무연탄총각이였습니다.

무연탄총각이 있는 일터에 찾아갈 때마다 쿵쿵 울리는 발파소리를 들으면 석회석처녀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였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울리는 그 발파소리는 그의 가슴속을 쿵쿵 울려주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같은 정열을 지닌 무연탄총각은 화력발전소 타빈을 돌리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뜨거운 열로 집집을 덥혀준다고 하였습니다.

석회석처녀는 무연탄총각의 불같은 그 열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불같은 열정을 지닌 그 무연탄총각과 한가정을 이룰수는 없을가? 아마 그는 사랑에서도 열정적일것이다.)

그러나 처녀의 마음은 천길물속이여서 좀처럼 자기속을 헤쳐보이지 않는 법이랍니다.

석회석처녀는 남몰래 속을 썩이며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꽃구름이 두둥실 피여나는 어느 봄날, 그렇게도 기다리고기다리던 무연탄총각이 제발로 큰바위어머니를 척척 찾아온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연탄총각은 가식없이 제 가슴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큰바위어머니, 저는 석회석처녀와 한몸이 되고싶습니다.》

그러는 무연탄총각을 바라보는 큰바위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뒤걸음을 쳤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못난 총각도 있는가.)

얼굴이 온통 새까맣다 못해서 해빛에 번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겉모양이 너무도 한심하니 큰바위어머니는 뭐라고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네 앞으로 두…두고보세.》

큰바위어머니는 적당히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방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있던 석회석처녀가 몸을 거두고 어머니한테로 살금살금 다가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저이한테 저의 마음을 맡기고 싶어요.》

그만 큰바위어머니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이구, 저년이 머리가 돌았어. 그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저런 못난이에게 마음을 두다니…)

그러나 한뉘를 어머니곁에다 끼고있을수만 없는것이 딸인가 봅니다.

큰바위어머니는 때가 때인만치 싫든좋든간에 딸이 하자는대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 하나 없는셈 치지…)

드디여 잔치날이 왔습니다.

신랑편에서는 그의 친동생인 갈탄과 진펄에 사는 사촌동생 니탄이 오고 신부측에서는 그의 친언니들인 대리석과 화강석이 왔습니다.

잔치는 소박하게 차렸지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한 석회석처녀가 어떤 신랑감을 골라잡는가 모두가 은근히 주시하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잔치한 삼일만에 석회석새색시는 신랑을 따라 벌마을로 가고말았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비록 잔치를 하고 딸이 집을 떠난 후이지만 고까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사는가 보자. 아마 자식이 생긴다 해도 제 애비를 닮아서 못난이들이겠지.)

큰바위어머니는 딸에 대한 정이 싹 없어지고말았습니다.

그러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것이 모녀간의 정인가 봅니다.

딸이 시집을 간지 한해도 미처 못지나서 큰바위어머니는 딸이 보고싶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산마을의 특산물인 천길 땅속에서 솟아

나는 약수를 호리병에 받아들고 딸이 사는 벌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산을 내려 한창 들을 지나가노라니 어디선가 흰구름이 몽실몽실 피여나고있었습니다.

(무슨 구름이 벌판에서 피는고?)

큰바위어머니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는 사이에 몽실몽실 피여나던 그 구름이 어느새 여러 갈래의 칠색무지개로 변하더니 해빛처럼 산지사방으로 줄줄이 다리를 놓는것이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제앞으로도 뻗어가는 그 무지개를 어망결에 만져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필필이 흘러가는 천필이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꼭 하늘의 조화를 보는것만 같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큰바위어머니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멍청해서 서만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빵빵이 하나가 그앞에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어데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서만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은게 아닙니까.》

《벌에 사는 딸네 집을 찾아가는 길인데…》

《예, 그러고보니 소문난 석회석아주머니네 어머니군요. 나도 그 집으로 가던 길인데 어서 같이 갑시다.》

빵빵이의 안내를 받아가며 큰바위어머니는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창 길을 가던 빵빵이가 큰 집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딸이 사는 집입니다.》

《뭐, 여기가 우리 딸이 사는 집이다?!》

큰바위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말이 집이지 자그만치 이십리나 되는 넓은 벌판에 우뚝 솟아난 큰 집이였기때문이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대문을 찌꿍 열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딸과 사위가 반갑게 마당에 뛰여나와 집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벌써 흰구름처럼 몽실몽실한 수많은 《비날론》아들딸들이 태여났는데 알고보니 아까 칠색무지개와 같은 천필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줄줄이 흘러가는것이 모두 그 아들들이 부리는 조화였습니다.

큰바위어머니는 대번에 입이 대문짝만해졌습니다.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구나.)

세상에 아들딸을 잘 낳고 사는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제사 큰바위어머니는 딸이 왜 무연탄에게 시집을 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만약 딸이 겉만 보고 시집을 갔더라면 저런 커다란 행복이 차례질수 있었겠습니까.

(무연탄과 같이 얼굴이 좀 못생겨도 속이 진짜인 사내를 얻었기에 저런 행복이 우리 딸에게 차례지고말고…)

큰바위어머니는 너무 기뻐 주책없이 딸, 사위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주체81(1992)년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날이였습니다.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곰네 집에서는 연기가 퐁퐁 피여올랐습니다.

밥상에 마주앉아 김이 몰몰 나는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난 곰은 아침해가 동산마루에 얼굴을 살며시 내여밀자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싸리울바자를 곱게 두른 마당에는 건늠줄이 몇줄 지나갔습니다.

곰은 기지개를 켜고나서 집에 잇닿은 창고안으로 들어가 싸리광주리에 고기를 무드기 담고나와 건늠줄에다가 신이 나서 물고기를 널어놓았습니다.

어느새 건늠줄에는 물고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곰은 웃음집이 흔들거렸습니다.

《헤헤, 좋구나. 도토리밥에 고기반찬을 먹게 됐군.》

곰은 흐뭇해서 눈으로 하나, 둘 물고기를 세여보았습니다. 세여볼수록 웃음집이 더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곰은 다시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다달은 곰은 너럭바위에 자리를 펴고 인차 낚시대를 물속에 드리웠습니다.

이윽고 살진 물고기들이 그 주위에 빙빙 감돌았습니다.

그것을 곁눈질하듯 슬며시 들여다보던 곰의 눈길이 어느새 긴장되였습니다.

갑자기 동동 떠있던 깜부기가 물속에 곤두박혔습니다.

순간을 놓칠세라 곰은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낚시대가 휘우뚱거리더니 풀판에 손바닥만한 버들치가 푸들쩍푸들쩍거렸습니다.

곰은 다급히 달려가서 낚시에서 물고기를 떼여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운수가 좋은걸!》

그는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다시 낚시줄을 물속에 드리웠습니다.

미련한 물고기들이 그 주위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곰은 연신 물고기를 낚아냈습니다.

곰은 물고기를 낚아내는 기분에 시간이 가는줄 몰랐습니다.

벌써 다래끼엔 버들치, 야래, 종개들이 수북이 찼습니다.

어느덧 저녁해가 서산마루에 걸터앉아 다리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제야 곰은 넘어가는 해를 아쉽게 바라보고나서 낚시줄을 주섬주섬 거두었습니다.

다래끼를 옆에 낀 곰은 사기가 나서 코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속에는 머루다래 주렁지고요
강에는 물고기떼 춤을 추지요
가을에 부지런히 일을 하며는
눈내리는 겨울이 걱정없어요
얼씨구 절씨구 가을이 좋네

춤을 추며 마당에 들어서던 곰의 눈이 갑자기 화등잔이 되였습니다.

글쎄 건늠줄이 모자라게 널어놓았던 그 많은 물고기들이 하늘로 날아났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줄만이 댕그렇게 걸려있었습니다.

곰은 너무나 분해서 땅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애써 잡은 물고기입니까.

한참이나 분해서 씩씩거리던 곰은 문득 마당에 찍힌 낯선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일가?)

그는 낯선 발자국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승냥이, 시라소니, 여우, 삵 등이 차례로 그의 눈앞을 스쳐지나갔습니다.

좀 길죽하면서도 4개의 발톱이 뚜렷한 발자국… 좀 길죽하면서도 발톱자리가 뚜렷한걸 보아서는 승냥이나 여우의 발자국같기도 한데… 가만, 다른 나쁜 짐승들의 발자국은 어떻게 생겼더라?

옳지, 시라소니나 삵의 발자국은 발톱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지. 그러니 이건 승냥이나 여우의 발자국같애. 그런데 승냥이의 발자국치고는 너무 작아. 그러면 여우의 발

자국? 틀림없이 여우의 발자국이야!)
곰은 이를 옥물고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여우 이놈! 어디 두고보자!》
뛰는 놈우에 나는 놈 있다고 곰은 여우를 골탕먹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곰은 깊은 밤에도 잠자리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좀처럼 잠들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곰은 밤새 손질한 물고기를 또 건늠줄에다 널어놓았습니다.
한마리 두마리… 물고기를 다 널어놓은 곰은 마당 한복판에 허수아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몸뚱이, 다리… 마지막엔 눈알이 불쑥 튀여나온 대가리를 척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 허수아비는 다 만들어진셈이였습니다.
얼핏 보면 곰이라고 여길만치 그 허수아비는 그와 신통히도 꼭같게 생겼습니다.
곰은 제사 만족해서 그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넌 내 동생이야! 그러니 집을 잘 지켜!》
그는 물고기를 잃은 아쉬움도 다 잊었는지 벙글써 웃으며 허수아비에게 몽둥이까지 쥐여주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 곰은 다시 낚시대를 쥐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곰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숲속에 불쑥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먼곳에서 곰네 집을 힐끔힐끔 살펴보며 살금

살금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마대가 들려있었습니다.

얼마후 곰네 집으로 조심조심 다가서던 여우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숲속에 난딱 주저앉았습니다.

뜻밖에도 마당에 성난 《곰》이 방망이를 쥐고 우뚝 서있는것을 보았기때문이였습니다.

《어마나, 오늘은 강에 안가고 집을 지키고있구나!》

여우는 눈이 뒤집히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할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서자니 건늠줄에 주렁주렁 매달린 물고기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랐습니다.

《어쩐다?!》

불어오는 바람결에 비릿한 물고기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여우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 냄새는 여우의 걸음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우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겨짚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먹이를 찾아다니던 새무리들이 곰네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허수아비에 놀란 새무리들이 일순간 날아났다가 다시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여우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우는 발길을 돌려 다시 곰네 마당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내여보았습니다.
눈알만 툭 불거져나와있을뿐 허수아비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여우의 얼굴에 해사한 웃음이 피여났습니다.
여우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돌을 집어들고 허수아비를 향해 곧바로 던졌습니다.
《딱!》
돌이 허수아비의 대가리를 맞혔습니다.
그래도 허수아비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앙큼한 여우는 수풀을 차고 일어섰습니다.
《네놈이 허수아비로 나를 속이려고… 어림없다. 해해… 내가 누구라고.》
여우는 활개치며 곰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빈마대에 욕심스레 물고기를 쑤셔넣고 발로 꽁꽁 다지고 또 집어넣었습니다.
《곰님덕분에 잘 먹겠수다.》
여우는 어느새 곰네 마당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걷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없나 해서 창고문까지 열어보고는 이죽거렸습니다.
《곰님, 이삼일후에 또 오겠으니 그때도 고기를 잘 널어두라구요. 그리고 내가 여우라는걸 명심하고 그런 잔꾀는 부리지 않는게 좋겠수다!》
그날저녁, 다래끼에 한가득 물고기를 잡아들고온 곰이 텅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이놈이 또 왔다갔구나!》

곰은 별로 분해하지도 않고 머리만 끄덕거렸습니다.

《재미를 봤으니 거저야 물러 안서겠지.》

곰은 턱을 받쳐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여우도 컴컴한 굴속에 앉아서 물고기를 냠냠 꺼내먹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놈이 밸김에 래일부터 물고기를 안널어놓으면 어쩐다? 하지만 젖은 물고기는 말리워야 저장할수 있으니 어디건 널어놓기야 하겠지.)

두 짐승은 제가끔 딴집에 앉아서 생각을 굴리다가 곰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래일모레나 글피쯤에는 여우가 또 나타나겠지. 그러니 래일부터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겠군. 일찍 자야 빨리 깨지.)

곰은 잠자리에서 의미있게 웃을뿐이였습니다.

다음날아침 곰은 더 일찌기 일어나서 강가로 나가 쉴새없이 물고기를 낚아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미를 붙인 여우가 마대를 쥐고 곰의 집을 살피며 숲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마당에는 또 많은 물고기가 줄에 널어놓여있었습니다.

전번처럼 마당 한복판에 허수아비가 세워졌을뿐입니다.

(이놈이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어데 숨지나 않았을가?)

여우는 사방을 깐깐히 살펴보았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울타리밖의 풀대들이 와스스

설레였습니다.

《이크, 곰이다!》

여우가 정신없이 뛰여가는데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러자 풀대들이 다시 꿋꿋이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바람의 조화라는걸 알아차린 여우는 가쁜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쿠, 10년 감수했구나.》

여우는 조심조심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출입문에 달려있는 커다란 붕어자물쇠, 겁많은 여우는 문짝마다 살그머니 당겨보았으나 모두가 안으로 걸려있을뿐이였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살펴보아야 별일이 없었습니다.

《이놈이 전번처럼 허수아비만 세워놓고 또 강으로 갔구나. 미련하긴 정말 미련한 놈이군!》

여우는 마음놓고 마대에 물고기를 쑤셔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우가 한창 물고기를 쑤셔넣는데 갑자기 말뚝처럼 서있던 허수아비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허수아비가 아니라 허수아비의 탈을 쓰고 서있는 진짜곰이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없이 물고기를 마대에 쑤셔넣는 여우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곰은 슬금슬금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놈아!》 하고 벼락같이 소리치며 여우의 뒤덜미를 거머쥐였습니다.

그제야 곰을 얼핏 쳐다본 여우는 그만 사색이 되였습니다.

《아이쿠, 속았구나! 곰님, 한번만 한번만…》
여우는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재미난 곳에 범난다고 내가 언제까지 허수아비만 세워놓을줄 알았더냐. 이 어리석은 놈아!》
성난 곰은 여우의 숨통을 바싹 조였습니다.
《이놈아, 명심해라. 꼬리가 길면 꼭 밟히는 법이야.》
곰은 여우를 끌고 벼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천길아득한 벼랑으로 여우를 버쩍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주체82(1993)년

근심걱정을 모르고사는 귀남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서 고생이란 말조차도 변변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귀남이는 학급동무들과 함께 며칠간 야영을 가게 되였습니다.

개울물이 돌돌 흐르는 시내가에 천막을 치고 동식물채집이며 군사놀이도 하고 밥도 제 손으로 해먹어보는 신나는 야영이였습니다.

귀남이는 배낭을 메고 달싹달싹 야영지로 떠났습니다.

나비 한마리가 춤자랑을 하려는듯 날개를 팔랑팔랑 저으며 앞장서 날아갑니다.

《나비야, 나비야, 팔랑나비야! 어디라고 함부로 춤자랑이냐.》

귀남이는 배낭을 멘채로 어깨으쓱 맵시있게 춤을 추었습니다.

나비는 잠시 멎어서더니 창피한듯 나풀나풀 저편으로 날아가버렸습니다.

귀남이는 유쾌하게 하하 웃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숲을 보아도 마냥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그칠줄 몰랐습니다.

《얘, 그만해. 그러다가 웃음집이 터지고말겠어.》

딱친구인 달호가 곁에서 나무라지 않았다면 귀남이는 해종일 웃음만 날렸을것입니다.

야영지에 도착한 귀남이는 천막에서 하루밤을 보냈습니다.

랑랑한 나팔소리가 울리더니 야영의 새날이 시작되였습니다.

물새가 재잘거리는 내가에서 귀남이는 난생처음 제 손으로 밥을 지어봅니다. 몇번이고 쌀을 씻고 또 조리로 입니다. 눈엔 익고 손에 선것이 일이라더니 서툴러서 자꾸만 쌀알을 흘렸습니다.

《얘, 너 쌀을 수태 흘렸구나.》

달호가 곁에서 핀잔하지만 그도 쌀을 흘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흥, 제 코나 먼저 씻으렴!》

둘은 마주보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달호는 물에 떨어진 쌀알들을 분주히 줏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쌀알들은 미처 줏기 전에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는 신발도 벗지 못한채 물속에 뛰여들어 쌀알을 주으려다가 매끈한 돌에 미끄러지며 첨벙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참봉이 되였습니다.

《하하… 넌 정말 쌀알처럼 쬐쬐하구나. 쌀 몇알때문에 그게 뭐냐?》

귀남이가 웃으며 놀려댔지만 달호는 첨벙대며 쌀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은 쌀이 겨우 세알이였습니다.
그는 내가에 나와 옷을 짜입으면서 대꾸했습니다.
《한알이면 어떻구 두알이면 어떻니?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흘려 가꾼 낟알인데.》
《됐다됐어. 그걸 모를 아이가 어디 있니.》
이윽고 귀남이와 달호는 제나름으로 적당한 자리를 골라잡고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저기서 밥짓는 연기가 기분좋게 폴폴 피여올랐습니다.
어느새 물이 보글보글 끓더니 구수한 밥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이제는 밥을 풀 차례입니다.
귀남이가 따가운 군용밥통뚜껑을 열어제끼니 웬일인지 밥이 골싹했습니다.
(쌀을 더 안칠걸.)
귀남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밥을 짓던 달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밥통이 자꾸자꾸 커지는구나.》
귀남이가 돌아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와 꼭같은 밥통인데 축구공에 바람을 넣을 때처럼 점점 커지는것이였습니다.
어느새 큰 남비만하게 커졌습니다.
달호는 헤덤벼치며 밥통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밥도 그안에 꼴딱 차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것은 밥을 푸면서 보니 세알의 밥알만은 류별나게 사발만큼씩 큰것이였습니다.
다른 밥알들은 다 같은데 왜 세알의 밥알만은 저리도

클가.

달호는 가뜩이나 큰 눈을 슴벅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조화로구나.》

귀남이와 달호는 밥사발만큼씩 큰 밥알을 마주앉아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란 찹쌀보다 더 기름지고 꿀밥처럼 달큰해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지경이였습니다.

줄곧 놀라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달호가 갑자기 무릎을 철썩 치며 소리쳤습니다.

《알만해. 이 세알의 밥알은 내가 물에 빠지면서 주은 쌀이 분명해.》

《정말.》

귀남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자기가 쌀을 씻다가 물에 흘린걸 보고도 건지기 싫어서 그냥 온 생각이 났습니다.

귀남이는 먹던 밥술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내가로 달려갔습니다.

달호는 소리쳐 부릅니다.

《너 어데 가니?》

그러나 귀남이는 대답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쌀을 일던 그자리에 이르니 아니나다를가 쌀 몇알이 내물에 잠겨있었습니다.

세여보니 모두 다섯알이였습니다.

(나도 쌀을 주어다가 달호를 놀라게 해야지.)

귀남이는 헤덤벼치며 바지를 걷어올리고 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내물에 잠겨있던 쌀이 달싹달싹 뜨더니 내물

을 따라 졸졸 흘러내려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흥, 재미있다. 뛰여야 벼룩이야!)

그는 첨벙거리며 쌀알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쌀알이 거의거의 잡힐듯 하다가 손가락짬으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귀남이는 점점 등이 달아올랐습니다. 이젠 바지가랭이가 홀딱 젖는줄도 모르고 쌀알을 따라 그냥 내려갔습니다.

한굽이를 돌고 또 한굽이를 돌고돌아 내물은 끝없이 흐르고 쌀도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에— 깜찍한 쌀알!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귀남이는 지칠줄 모르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시퍼런 물이 빙빙 소용돌이치는 깊은 소에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미처 헤염칠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덩이처럼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귀남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의 눈앞에는 난생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있었습니다.

넓은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것은 널려있는 쌀들뿐이였습니다.

흰쌀, 누런쌀, 큰쌀, 작은쌀, 길쭉한 보리쌀, 깨알같은 기장쌀, 팥알, 콩알, 대굴대굴 감자알… 정말 별의별 낟알들이 다 모여 더미를 이루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은 그 낟알더미들앞에 이름표쪽들이 박혀있는것이였습니다.

귀남이가 살펴보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의 표쪽에 《차귀남》이라고 자기 이름도 크게 씌여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씌여있을가?》

귀남이는 알고도 모를 일이였습니다.

《얘야, 그건 네가 버린 낟알들이니 네 이름이 써있는거란다.》

귀남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산만한 큰 농립모를 쓴 거인의 할아버지가 서있었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뒤걸음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나요?》

《나는 네가 잘 아는 풍년할아버지란다.》

그러고보니 어디선가 꼭 본것만 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디서 보았더라? 옳지, 분배장에서 보던 그 풍년할아버지구나.)

그렇습니다. 누런 바지저고리에다 눈섭이며 수염발에도 온통 누런 낟알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 풍년할아버지가 분명하였습니다.

《여긴 버림받은 쌀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란다.》

눈을 두리번거리는 귀남이를 보고 풍년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버린 쌀들이 저렇게 많나요?》

귀남이는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라.》

그러자 그 낟알무지속에서 밥알 한알이 톡 튀여나왔습니다.

《넌 끼니때마다 밥상에다 밥을 줄줄 흘렸지? 우린 네가 흘린 밥알들이란다.》

귀남이는 창피하였습니다.

이번엔 볼이 탱탱 부어오른 밥알 한알이 또 말했습니다.

《넌 국에 밥을 잔뜩 말아놓고 절반도 먹지 않은채 그냥 일어섰지? 우린 네가 말아놓은 밥알들이란다.》

귀남이는 얼굴이 활딱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수쌀 한알이 또 튀여나왔습니다.

《넌 토방에 수수쌀을 널어놓고 어머니가 봐달라는걸 잊고서 낮잠잤지? 우린 비물에 씻겨서 여기로 왔단다.》

그러자 콩청대를 해먹다가 버린 콩알들이며 길을 가면서 뛰뛰기를 한다고 장난삼아 떨궈버린 줄당콩알들이 앞을 다투어 튀여나왔습니다.

귀남이는 그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쌓여있는 낟알무지들을 그저 무심하게만 볼것이 아니였습니다.

《봐라. 벌에 아무리 황금낟가리가 높이 솟는다 해도 너희들이 그걸 말아먹고있으니 어디 참을수가 있냐? 난 버림받은 낟알들을 찾아서 이 마을에 왔단다.》

풍년할아버지는 귀남이를 그냥 둘 잡도리가 아니였습니다.

(잘못 걸려들었구나.)

귀남이는 어쩔바를 몰랐습니다.

《얘야, 너는 대체 쌀이 뭐인줄 아느냐?》

귀남이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늘 보는게 쌀이지만 막상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쌀이야 밥해먹는게지요.》

《그게 다겠다? 그러니까 넌 쌀이 귀한줄 모르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넌 암만해도 네 손으로 쌀을 한번 가꿔봐야겠다. 그러면 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저절로 알게 될게다.》
그는 품속에서 벼종자를 여러알 꺼내놓았습니다.
《이걸 잘 가꾸어 벼알이 열리기만 하면 지난날의 네 잘못을 다 용서해주마.》
귀남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걸 가꾸려면 온 여름내내 이 마을에 붙박혀있어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귀남이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치를 알아차린 풍년할아버지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신기한 벼종자여서 한주일만 잘 가꾸면 벼알이 달린단다.》
그 말을 들은 귀남이는 그제야 입이 벙글써해졌습니다.
(한주일이야 못가꾸랴.)
그는 선뜻 벼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귀남이는 논판을 고르고 벼알을 뿌렸습니다.
정말 하루밤을 자고나니 싹이 파랗게 돋아올랐습니다. 그 싹은 보는 사이에도 뾰족뾰족 잎이 피더니 어느새 논판에 푸른 주단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지를 치던 벼포기가 갑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 춥다. 물이 너무 차구나.》
이런 변이라구야. 세면물도 아닌 그 많은 논판의 물을 어떻게 덥혀줍니까.
그는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다가 불쑥 떠오르는 생

각이 있었습니다.

(옳지, 고인물을 퍼서 주어야겠구나.)

마침 논판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못이 있었습니다.

귀남이는 바께쯔를 들고 부지런히 고인물을 퍼다주었습니다. 이마에서 주먹같은 구슬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귀남이는 씻을념도 못했습니다.

한낮이 되자 벼포기가 또 종알거렸습니다.

《이젠 지내 덥구나. 시원한 물을 대다구.》

귀남이는 두말없이 삽을 들고나섰습니다. 시내물줄기를 논판에 끌어올 생각이였습니다.

낑낑 갑자르며 삽질을 하고나니 손바닥이 알알하였습니다. 벌써 손이 부르텄던것입니다.

정말 헐치 않은 일이였습니다.

저물녘이 되자 이젠 춥다고 벼포기가 또 쫑알거렸습니다. 그래서 또 뛰여다녔습니다. 춥다, 덥다 그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자니 얼마나 베찬지 몰랐습니다.

(낟알을 가꾼다는것이 보통일이 아니구나.)

하루이틀이 지나자 커가는 벼포기가 또 우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아이 배고파. 먹을게 없니?》

이런 난처한 일이라구야. 어디 가서 먹을것을 구해옵니까.

귀남이는 삼태기를 들고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가루거름을 얻어다가 뿌려주어도 자꾸만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였습니다. 그는 밤잠도 잊고 뛰여다녔습니다.

마침 달도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이틀 뛰여다니니 이제는 체했다고 복작소동을 피웠습니다.

(제길, 적당히 먹을것이지. 지내 먹더니…)

귀남이는 투덜거렸으나 대책을 세워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석회도 뿌려주고 물도랑을 깊이 째서 물도 자꾸만 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들었는지 잠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푸르싱싱하던 벼포기가 말라가더니 이번엔 몸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포기를 살피니 이런 끔찍한 일이라구야.

글쎄 벼깡충이며 물코끼리벌레들이 벼포기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있지 않겠습니까.

귀남이는 벌레잡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포기포기를 샅샅이 뒤지며 벌레잡기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벼포기는 답답하다, 오슬오슬하다, 바람이 세다 하며 갖은 변덕을 다 부렸습니다. 정말 까마귀 하루에 열두가지 소리를 한다더니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보면 다 옳은 말이였습니다.

귀남이는 여태까지 낟알이란 그저 씨만 뿌리면 다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이 놀새가 없고 마음을 놓을수 없는것이 낟알을 가꾸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니 낟알이란 알알이 다 땀으로 빚은 구슬이고 정성의 열매로구나.)

약속한 한주일이 되자 풍년할아버지가 논벌에 나왔습니다.

《수고했구나.》

풍년할아버지는 벼깍지가 터지게 영글어간 낟알들을 만족하여 쓸어보았습니다.

《그래 이젠 쌀이 어떤것인지 잘 알았을테지.》

귀남이는 벙글써 웃었습니다.

풍년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짚고선 지팽이를 세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귀남이는 어느새 내가에 서있었습니다.

줌안에는 그가 흘려버린 쌀 다섯알이 꼭 쥐여져있었습니다.

야영지로 돌아오니 동무들이 한창 밥을 먹고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밖에 가지 않았나.)

귀남이는 꼭 마술세상에 갔다온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얼른 쌀 다섯알을 안치고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정말 밥통이 늘어나더니 밥이 한가득 찼습니다.

《야— 귀남이도 신기한 밥을 지었구나!》

동무들이 환성을 올리며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귀남이는 웃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흔한것이 쌀이라고 망탕 랑비하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귀중한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웃고 떠드는것도 다 쌀이 있기때문이야.)

뜻깊은 야영지에서 귀남이는 새로운 눈이 텄습니다.

주체84(1995)년

흐르는 강물과 출렁이는 바다가 서로 만나는 합수목에서 두 애기물고기가 지느러미를 너풀거리며 재미나게 놀고있었습니다.

팔딱이라고 부르는 애기연어와 꾸불이라고 부르는 실뱀장어였습니다. 알에서 까난지 며칠밖에 안되는 서로 다른 물고기였지만 애기때여서 생김생김이 어슷비슷한 형제 같았습니다.

팔딱이는 물결을 거슬러 팔딱팔딱 물우에 뛰여오르며 제법 재주놀이를 합니다.

그걸 보는 꾸불이는 지느러미로 짜락짜락 박수를 쳤습니다.

《야— 참 멋진데. 너의 엄마는 묘한 재주를 배워주었구나.》

《흥, 우리 엄마가 재주를 배워주었다고? 천만에, 나는 엄마한테서 재주를 배우기는커녕 얼굴도 보지 못했다.》

《너도 그렇니? 실은 나도 울엄마의 얼굴을 모른단다.》

꾸불이는 엄마의 얼굴을 모르는것이 큰 자랑이기라도 한

듯이 신나서 대꾸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는 한심도 하지. 날 낳자마자 물에 내버리면서 〈혼자 잘 자라거라.〉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거든.》

《우리 엄마도 꼭 마찬가지야.》

꾸불이도 지지 않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을 듣자니까 새들은 다 클 때까지 엄마가 먹이를 물어다주고 짐승들은 젖을 먹여 키워준다는데 우리 물고기엄마들은 영 한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엄마생각이라곤 꼬물만큼도 없어.》

《그래도 저를 낳아준 엄마인데 생각을 안하면 되니? 어쨌든간에 난 엄마를 보고싶더라.》

꾸불이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팔딱이는 정색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우리 한번 제 엄마들을 찾아보는게 어때?》

《응,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꾸불이의 말에 팔딱이도 제꺽 응해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강과 바다에서 얼굴조차 모르는 엄마를 어떻게 찾겠니?》

《그래도 단단히 마음먹고 나서면 어느때라도 엄마를 꼭 찾아내겠지.》

꾸불이는 짧은 지느러미를 제법 추켜올렸습니다.

《그럴가?》

《그렇지 않구.》

이리하여 두 애기물고기는 엄마를 찾아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합수목에서 벗어나 밀물과 썰물이 오르내리는 개펄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엄지물고기 하나가 가슴지느러미를 노처럼 휘저으면서 미끈미끈한 바닥흙을 파헤치고있었습니다.

《누굴가? 왜 흙을 파헤칠가?》

두 애기물고기는 저마다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신데 왜 땅을 파헤치나요?》

팔딱이가 앞에 나서며 제법 어른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난 여기에 사는 장뚱어 엄마란다. 지금 흙속에 깊은 구멍을 파고 알낳이방을 만들었단다.》

《알낳이방을 만들었다구요? 그럼 알을 방안에다 낳는가요?》

팔딱이와 꾸불이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다되였으니 이제 들어가보면 저절로 알게 될거다.》

장뚱어 엄마는 호기심어린 두 애기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장뚱어 엄마를 따라 알낳이방으로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그 알낳이방의 천정에 수백수천개의 장뚱어의 알들이 대롱대롱 매달린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찬히 보니 장뚱어의 알들은 다 타원형인데 한쪽에 이

상한 가는 실뭉치가 달려있었습니다.

《난 저 실뭉치로 알들을 천정에다 매달아둔단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같은 새끼고기들이 까난단다.》

《야, 아주머니가 정말 수고하는군요.》

팔딱이와 꾸불이는 저도모르게 목소리를 합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저 장뚱어 어머니는 참 새끼들을 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니 물어보나마나 우리 엄마들은 아닐거야. 우리 엄마들이면 저렇게 하겠니?》

《그렇지 않구, 망신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말자.》

팔딱이와 꾸불이는 알낳이방을 구경시켜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서는 장뚱어와 헤여졌습니다.

《세상에는 제 알들을 참 중하게 여기는 물고기엄마도 다 있구나. 난 우리 물고기엄마들이란 그저 물에다 알을 되는대로 낳는줄로만 알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팔딱이와 꾸불이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강물을 거슬러올라갔습니다.

한참 길을 가노라니 잔잔한 물가에서 납작하게 생긴 어떤 엄지물고기가 물밑을 뱅뱅 감돌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물고기는 물밑에 있는 큰 조개에 난 구멍에 무슨 긴 관을 들이밀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팔딱이와 꾸불이는 혹시 자기 엄마가 아닐가 해서 그 엄지물고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지금 무얼 하나요?》

이번에도 비위살좋은 팔딱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난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납주레기엄마란다. 방금 조

가비속에 알낳이관을 들이밀고 알들을 낳았단다.》
《아니, 조가비속에다가 알을 낳는다구요?》
팔딱이와 꾸불이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래, 조가비속에 알을 낳고 거기서 알을 깨운단다.》
납주레기엄마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듯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조개와 대단히 친한 사이란다. 그래서 그 알들이 조가비의 보호를 받으면서 새끼고기로 까난단다. 벌써 물속이 컴컴해오는데 너희들도 조가비속에서 한밤을 자고가거라.》
《고마와요.》
팔딱이와 꾸불이는 납주레기엄마의 도움을 받아 조가비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속에 들어가니 납주레기의 알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이제 저속에서 새끼들이 까나고 자라겠지?》
《이건 장뚱어엄마의 알낳이방보다 더 좋지?》
《그래, 더 좋구말구.》
그들은 가만가만 속삭였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야. 그런데 난 조가비속에서 자본적이 없어.》
《나도 그래.》
《그러니 저 납주레기엄마도 보나마나 우리 엄마는 아닐거야.》
이튿날아침, 팔딱이와 꾸불이는 납주레기엄마에게 밤새 잠자리를 마련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또 강을 거슬러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한시바삐 엄마를 찾고싶어 쉴새없이 가고갔습니다.

며칠 강을 거슬러올라가니 작은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그 시내물에서 풀을 뒤엉켜가지고 묘하게 만든 이상한 풀둥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둥지속으로 어떤 알지 못할 물고기새끼들이 쉴새없이 드나들고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갈수록 흥미있는 일만 생기는데.》

팔딱이와 꾸불이는 그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나요?》

그러자 잔등에 3개의 가시가 돋히기 시작하는 애기물고기 하나가 훌 튀여나왔습니다.

《어데서 오는 손님인지요?》

팔딱이는 자기와 꼭같은 애기물고기를 보자 말투를 낮추었습니다.

《우린 그저 지나가던 손님인데 집이 하도 묘하게 생겨서 문을 두드렸단다.》

《그래.》

그 애기고기는 벌씬 웃었습니다. 이름을 알아보니 그는 가시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애기가시고기는 신나서 집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아빠는 물풀의 잎이나 줄기를 모아다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지었단다. 그리고 여기서 엄마가 알을 낳으면 아빠가 먹이를 날라다주면서 집을 지킨단다. 우리가 알에서 깨여나면 우리 엄마아빠는 저 땅우에 있다는 암닭처럼 새끼를 데리고다니면서 키운단다.》

가시고기는 묻지도 않는 엄마아빠자랑까지 늘어놓았

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엄마아빠의 얼굴을 잘 알겠구나.》

《그렇지 않구. 세상에 엄마얼굴을 모르는 새끼가 어데 있겠니?》

팔딱이와 꾸불이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더 있다가는 무슨 망신을 당할것만 같았습니다.

《잘 있어라. 우린 길이 바빠서 그만 가야겠다.》

《그럼 잘 가.》

팔딱이와 꾸불이는 가시고기와 헤여졌습니다.

그리고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집은 조가비속보다 더 좋지?》

《아무렴 제 집인데 몇배나 더 좋지 뭐.》

《저 가시고기는 좋겠다. 새들처럼 집속에서 까나고 클 때까지 엄마가 데리고다니고…》

《얘, 알고보니 세상에 정말 좋은 물고기엄마들이 다 있구나.》

《제발 우리 엄마도 그런분이였으면…》

그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길을 가는 사이에 어느새 물이 천천히 흐르는 늪가에 들어섰습니다.

《이러다간 누구에게도 엄마란 말 한마디 묻지 못하겠구나.》

《이번엔 아무나 만나면 덮어놓고 물어보자.》

늪에 들어서니 어떤 물고기 하나가 물우를 자유롭게 떠다니고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언젠가 만났던 납주레기와 비슷하나 수염이 없고 옆줄도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꼬리쪽 량옆에는 검은색 띠가 있었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그 물고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의 엄마가 아닌가요?》

팔딱이가 한발 앞서서 이렇게 묻자 꾸불이도 뒤따라 입을 뗐습니다.

《혹시 저의 엄마도…》

《내가 너희네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 고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고기는 망성어였습니다. 망성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희들같은 새끼고기들을 낳은적이 없었는데…》

《그럼 미안하지만 아주머니는 알을 어데다 낳는가요?》

《난 알을 낳지 않는단다. 난 배속에서 알을 까서 새끼가 된 다음에야 밖으로 내보낸단다.》

《예, 새끼를 낳는다구요?》

팔딱이와 꾸불이는 눈이 홀딱 뒤집혀질 지경이였습니다.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다는 소리는 듣다처음이니까요.

《세상엔 알을 밖으로 내보냈다가 잃어먹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니. 그래 난 안전한 배속에서 알을 깨워 새끼로 내보낸단다.》

《그럼 알을 얼마나 품고있는가요?》

팔딱이가 이렇게 묻자 꾸불이가 바빠맞아 눈을 흘겼습니다.

《얘, 별걸 다 묻는구나.》

그러나 망성어는 조금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딱히는 모르지만 열마리나 스무마리정도는 품고있지. 물론 다른 물고기들보다 그 수는 적지만 그대신에 그 새끼들이 고스란히 자랄테니 실속이 있는셈이지.》

망성어엄마는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보이고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젠 어데 가서 엄마를 찾아보겠니?》

팔딱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꾸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이젠 민물보다 넓으나넓은 바다에 나가 엄마를 찾아보자. 거기에는 고기들이 더 많지 않니.》

그들은 며칠동안 거슬러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만난 엄마들중에서 망성어엄마가 제일이야. 그 엄마가 제살붙이를 제일 중해하는것 같지?》

팔딱이가 이렇게 묻자 꾸불이가 제법 어른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거야 두고봐야지. 새끼를 낳는다고 똑 제일이라고 할수는 없어.》

그들은 사흘낮 이틀밤이 꼬박 걸려서야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끝없이 넓고넓은 바다에서 팔딱이와 꾸불이는 별의별 물고기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마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팔딱이와 꾸불이는 깊은 날바다에서 별나게 생긴 물고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은 버들잎처럼 생겼는데 그 고기는 괴상망측하게도 긴 몸뚱이와 꼬리는 별로 없고 되박같은 머리에다 지느러미만 붙어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물고기에게 물어보니 그 고기는 물보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물보가지는 팔딱이와 꾸불이가 유심히 보는줄도 모르고

날바다에다 아무렇게나 알을 막 쓸고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알들을 그렇게 쓸면 되나요?》

팔딱이가 보다못해 말하자 그 고기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난 한배에서 자그만치 3억개의 알들을 낳는단다. 그중에서 살놈은 살고 죽을놈은 죽고 그저 제 팔자에 달렸지. 그래서 나는 우정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단다.》

《참, 아주머니는 한심하구만요.》

《왜 한심하단 말이냐? 바다에서 한다하는 어른인 대구는 한배에서 500만개의 알을 낳는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놈이 겨우 다섯마리정도란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몇십배나 더 많은 알을 낳으니 아무튼 내 새끼야 더 많이 살아남겠지. 말하자면 나는 엄마구실을 당당히 하는셈이지.》

(그렇게 망탕 낳고도 엄마구실을 한다고?)

팔딱이와 꾸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고보니 바다에는 그런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바다에서 멋쟁이라 부르는 고등어는 40만개, 넙치와 가재미는 50만개, 제노라하는 공치는 900만개의 알들을 되는대로 쓸군 하였습니다.

(저런 엄지들때문에 우리 물고기들이 다 팔리는구나. 제발 우리 엄마는 저런 물고기가 아니였으면.)

팔딱이와 꾸불이는 눈을 흘기며 급히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팔딱이와 꾸불이는 또 별난 물고기 《형제》를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그림에서 나오는 룡같기도 하고 땅우에서 뛰여다닌다는 말같기도 했습니다.

그 물고기 《형제》는 마주서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

습니다.

《여보, 알을 낳겠어요.》

《벌써 알낳을 때가 되였소? 좋소. 기르는것은 내가 맡지.》

캉가루처럼 배에 주머니가 달린 물고기가 대답하는 말이였습니다.

(이들은 부부사인게로구나.)

팔딱이는 그 물고기부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도 물고기입니까?》

그러자 배에 주머니가 달린 고기가 허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물고기고말고. 이래뵈두 실고기류에 속하는 바다말부부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듣자니까 알낳을 때가 되였다는데 실례이지만 알은 어데다 낳는가요?》

이번엔 꾸불이가 용기를 내여 물었습니다.

《알이야 저 령감의 배주머니에 낳지. 우리 령감은 내가 알을 낳으면 제 배주머니에 넣어서 정성스레 깨운 다음 한마리씩 밖으로 내보낸단다.》

바다말아주머니는 은근히 제 령감을 내세우면서 자랑스레 대답하였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귀속말로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다정한 부부이지?》

《어쩌면 우리 물고기들에게도 저런 부부가 다 있을가.》

그러니 꼭 말처럼 생긴 바다말부부가 물어보나마나 자기 엄마아빠는 아닐것 같아 또 그냥 떠나고말았습니다.

땅이 가까운 바다기슭에서 팔딱이와 꾸불이는 이번엔 알을 입속에서 까는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 고기는 비단고기라 불렀는데 엄마가 알을 낳으면 아빠가 그 알을 입속에 넣고 깨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채 알을 품고 깨우니 엄마도 엄마이지만 아빠의 수고가 더 컸습니다.

《정말 비단고기아저씨가 용하군요.》

《용하긴, 사실은 입이 뻐근하고 배까지 고프긴 해도 제 새끼를 위한 일인데 그쯤한거야 참아야지.》

마음좋은 비단고기아저씨는 응당한 일이라는듯 가볍게 웃고나서 말머리를 돌리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매우 지친것 같은데 대체 어데 가는 길이냐?》

비단고기아저씨는 측은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마를 찾아다니는 길이예요.》

《우린 벌써 열흘나마 강과 바다를 오르내리면서도 엄마를 찾지 못했어요.》

팔딱이가 힘없이 대답하자 꾸불이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난 비단고기는 그동안 퍽 커서 제모습이 뚜렷해진 그들의 생김새를 다시금 뜯어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옳거니, 내가 짐작이 간다.》

비단고기아저씨는 왜서인지 눈을 슴벅이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엄마를 잘 안다. 너희네 엄마들은 일생동안 하루도 쉬임없이 긴 려행을 하면서 사는 고기들이란다. 내가 바다기슭에서 살다나니 너희네 엄마

들을 자주 보긴 했는데…》
비단고기는 뒤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들이 어데 있나요?》
팔딱이와 꾸불이가 다우쳐 물었습니다.
《애들아, 큰맘먹어라. 너희네 엄마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몸이란다.》
비단고기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하는듯 더듬거렸습니다.
《팔딱아, 너의 엄마는 연어라 하는데 평생 긴 려행을 하다가 알낳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단다. 여울과 폭포를 뛰여넘으며 힘겹게 가고가서는 자갈과 모래가 많은 먼 산촌의 깨끗한 강바닥에다가 알을 낳고는 너무도 지친 나머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단다.》
비단고기는 지느러미로 팔딱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꾸불아, 너의 엄마인 뱀장어는 연어엄마와는 달리 알낳을 때가 되면 깊은 바다를 찾아간단다.
그리고는 물속의 아득히 깊은 곳에다가 누구도 몰래 알을 쓸어놓고는 일생을 마친단다. 너의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알쓸이터를 찾아가는것은 너희들이 알에서 깨여나는데 적당한 물온도와 살림살이터 그리고 혼자서도 살수 있는 넋을 키워주기 위해서란다. 그길에서 목숨까지도 바치니 얼마나 장한 엄마들이냐?》
《야, 엄마! 엄마!》
그 말을 들은 팔딱이와 꾸불이는 목이 메였습니다. 비록 다른 물고기엄마들처럼 자식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지는

못했어도 제힘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 가신 엄마! 그런줄도 모르고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제 엄마들을 나쁘게만 생각한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것이 엄마들의 사랑이였습니다.

팔딱이와 꾸불이는 비록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눈앞에 제 엄마얼굴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장뚱어며 납주레기, 가시고기, 비단고기의 얼굴로 변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인자하고 정다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엄마가 있다! 넓으나넓은 바다에서 제힘으로 꿋꿋이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준 엄마가!》

팔딱이와 꾸불이는 뜨거움에 목이 메였습니다.

주체86(1997)년

옛날 어느 산속마을에 일이라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너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너구리는 집도 짓지 않고 오소리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였습니다.

몇해전에 오소리가 새집을 짓고 이사가는 바람에 너구리는 남이 쓰던 집이나마 제 집처럼 쓰고살게 되였습니다.

그에게는 새끼너구리들이 오롱조롱 여럿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번듯한 새집으로 이사갈 때마다 아빠너구리에게 졸랐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새집을 짓고 이사가자요.》

《으응, 새집을 짓고말고, 이다음에 여섯칸짜리 멋진 집을 짓자꾸나.》

어느날 마을의 좌상인 산양할아버지가 지나가던 길에 너구리네 집에 들렸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산양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몇해째 손이 한번 가지 않은 집안꼴이란 말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자네 이렇게 살아선 못써.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지 이게 뭔가? 마을에서도 도와주겠으니 래일이라도 당장 집짓는 일에 착수하게.》

《원, 산양할아버지도. 집을 짓자면 기둥감이랑 서까래랑 주추돌이랑 다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이다음에 하지요. 이다음에…》

《뭐, 또 이다음인가?》

벌써 몇번째나 이런 대답을 들어보는 산양할아버지는 그만 기가 막혀서 더 말할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너구리가 입버릇처럼 이다음 이다음 하는것은 일하기 싫어서 하는 하나의 핑게였습니다. 산양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너구리는 코방귀를 힝 내불었습니다.

(흥, 내가 어떻게 살든말든 무슨 상관이람! 그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때는 봄철이라 다른 집에서는 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너구리네 밭은 아직 지난해에 묵은 땅을 갈아번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꼴을 보다못해 이웃에 사는 오소리가 너구리네 밭을 함께 갈아주었습니다.

그날 오소리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도와주는것도 한두번이지. 매번 이렇게 도와줄수는 없지. 아무래도 그의 버릇을 뚝 떼주어야지.》

그는 곁에 누가 있기라도 하는듯 쑹얼거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들마을의 메고양이가 그의 곁으로 아실랑아실랑 다가왔습니다.

《원, 오소리아저씨도, 혼자서 무슨 말씀이세요?》

오소리는 분개한 사실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으름이 게으름을 낳는다고 그런 버릇은 애초에 뚝 떼주어야 해요.》
메고양이도 기가 막혀 코밑수염을 쫑긋거렸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너구리는 마지못해 밭머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갈아놓은 밭에 씨를 대충대충 뿌려놓고는 밭머리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해먹겠군. 뼈심을 들이지 않고도 사는 방법은 없을가?)
너구리는 따스한 봄볕을 쪼이며 하염없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풀색짐승 하나가 너구리에게 발볌발볌 다가왔습니다.
《너구리아저씨, 안녕하세요?》
《넌 누구냐?》
너구리는 그런 풀색짐승을 처음 보았습니다.
《난 이웃동산에 사는 놀보예요.》
《놀보라? 별난 이름도 다 있구나.》
너구리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놀보는 해죽거리며 다가와 귀따갑게 속살거렸습니다.
《너구리아저씨, 부지깽이도 바빠서 뛴다는 이 봄철에 그렇게 한가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나요?》
너구리는 입이 쓰거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싱거운 자식, 남이 누워있건말건 제가 무슨 상관이람.)

《하긴 아저씨생각이 옳기도 하지. 밤낮 하는게 일인데 늘 바삐 쫼수야 없지.》

놀보는 저혼자 묻고 대답하듯 하면서 너구리의 눈치만 힐끔힐끔 살펴보았습니다.

《아저씨, 내가 놀면서도 걱정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대달라요?》

놀보는 어데서 굴러먹었는지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흥, 놀기만 하면 먹을건 누가 주니?》

너구리는 귀가 솔깃했지만 우정 시치미를 뗐습니다.

《다 방법이 있지요. 그저 마술저고리만 입으면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수가 있어요.》

《마술저고리? 세상에 그런 저고리가 어디 있어?》

너구리는 듣다 처음이였습니다.

《있다마다요.》

놀보는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언젠가 이 다래골에 어떤 마술사가 살았는데 그는 이상한 저고리 하나를 입고 다녔어요. 그 저고리를 입으면 남들이 다 눈을 뻔히 뜨고도 마술사를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를 먹어 세상을 떠나면서 누가 입지 못하게 그 저고리를 거머리늪에 던졌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흥, 내가 이래뵈도 소식통이라는걸 몰라요? 나는 이동산 저동산 돌아다니며 세상일치고 모르는것이 없어요.》

놀보는 우쭐해서 제 자랑을 하였습니다.

《아저씨가 거머리늪의 물을 다 푸면 그 마술저고리

를 얻을수 있으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넌 그걸 알고있으면서도 왜 여태까지 물을 푸지 않았니?》
너구리는 놀보가 의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흥, 내 이름이 달래서 놀보라 하는줄 아세요. 난 그걸 알면서도 물을 푸기 싫어서 마술저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아저씨에게 비밀을 대줬으니 이제 그 덕을 나도 좀 입자고 해요.》
너구리는 그만 체면이고 뭐고 볼것이 없었습니다.
《놀보야, 당장 그 거머리늪으로 가자!》
너구리는 발머리에 옷과 신발을 벗어던지고 놀보를 따라 거머리늪으로 달려가 물을 푸기 시작하였습니다. 옹근 하루동안 물을 푸고나니 너구리는 그만 맥이 진했습니다.
《얘, 놀보야, 너도 물을 좀 푸렴.》
《흥, 내 이름이 놀보란걸 잊었어요.》
놀보는 놀기만 하다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너구리는 사흘만에야 늪의 물을 다 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술저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먼데 가버린줄 알았던 놀보가 늪의 가까이에 있는 내가에서 낚시질을 하고있었습니다.
마술저고리를 입은 너구리는 살랑살랑 놀보에게 다가갔습니다.
곁에 바싹 다가가도 놀보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놀보말이 정말이긴 정말이구나.)
놀보의 곁에는 살진 잉어랑 붕어들이 푸들쩍거렸습니다.
너구리는 그 고기꿰미를 통채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 둥실둥실 춤을 추며 발걸음을 옮겨 짚었습니다.

한참후에야 놀보가 뒤쫓아왔습니다.

《앗, 내 고기가 하늘로 날아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놀보는 소리만 칠뿐 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술저고리를 입은 너구리는 웃음집이 자꾸만 흔들거렸습니다.

(내가 이 저고리를 입었으니 새끼너구리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거야.)

저멀리 돌배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자기 집이 보였습니다. 정작 집근처에 다달으고보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마을의 짐승들이 줄레줄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

속이 덜컹해서 열려진 부엌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너구리는 그만 허구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 자기가 벗어던진 옷과 신발을 가운데 놓고 마을의 짐승들이 죽은줄로 알았는지 장례치를 의논을 하고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늪에 빠져 죽은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것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들어가려다 말고 창문곁에 바싹 붙어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소리가 새끼너구리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참, 너희들이 불쌍하게 됐구나. 아비를 잃었으니 장차 어떻게 살겠니?》

《글쎄, 이 새끼너구리들이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마는

죽은 아비가 더 불쌍하지요. 아직은 한창 살 나이인데 저세상에 가다니…》

다람쥐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너구리는 저도모르게 가슴이 찡해서 둘러앉은 짐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소리, 다람쥐외에도 노루, 사슴, 토끼, 메돼지, 곰 다 모여앉았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금치 못해 눈을 슴벅거리기도 하고 다람쥐와 같이 마음어진 짐승들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꽤나 슬퍼하는구나.)

그러나 마을의 좌상인 산양할아버지만이 어째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잘못산다고 꾸짖기만 하더니 올턱이 없지.)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 그 산양할아버지가 허둥지둥 집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조금 늦었나보군.》

산양할아버지는 둘러앉은 짐승들을 훑어보며 웃목에 가 앉았습니다.

(그래도 내 장례식에 오긴 오누나.)

마을의 짐승들은 죽은 너구리를 생각하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짐승 하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연히 제구실을 못하면서 숱한 새끼들만 남겨놓았지.》

그 짐승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한늬 놀고먹으며 그저 편안하게 살 생각밖에 없었단다.》

이웃에 사는 노루가 새끼너구리들의 눈물을 씻어주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메돼지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해서 늘 마을에 부담만 주더니 차라리 죽기를 잘했지. …》

(죽기를 잘했다니…)

너구리는 그만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괘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였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 저런 말을 들어도 싸지!)

다만 산양할아버지만이 한숨을 내쉬며 좀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마디 하였습니다.

《자네들의 말이 다 옳은가보이. 누구나 다 자기 땀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너구리는 땀 한방울 흘리지 않았으니 마을의 큰 우환거리였지.》

이웃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너구리는 자기 한생을 곰곰히 돌이켜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나 방아간 지어는 나무 한그루, 꽃 한포기에도 너구리의 땀이 스민데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놀기만 좋아하고 제 집뜨락 하나 변변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모든걸 다 용서해준다는데 내가 오죽이나 잘못

살았으면 저런 말을 다하랴.)

너구리는 때늦게나마 자기를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양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이 너구리잘못만이겠나? 곁에 사는 우리가 잘 도와주고 일깨워주지 못했으니 우리 잘못이 더 크지. 우선 나이를 많이 건사한 내 잘못이 제일 크지.》

(그래도 좌상은 좌상이로구나.)

너구리는 저도모르게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너구리가 생전에 새끼들에게 늘 여섯칸짜리 집을 지어준다고 벼르기만 했는데 그 집을 짓지 못하고 갔으니 우리 동네가 달라붙어 여섯칸짜리 집을 지어주어 너구리의 원이라도 풀어주자구. 그리고 이 철없는 새끼너구리들이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맡아 키우겠네.》

산양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떼자 오소리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원, 산양할아버지도, 새끼너구리들이야 응당 너구리와 함께 살던 내가 키워야지요.》

그러자 사슴, 노루, 토끼가 저저마다 새끼너구리들을 감싸안으며 자기들이 맡아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아, 고마운 이웃들!)

너구리는 더는 그대로 있을수 없었습니다.

너구리는 마술저고리를 벗어들고 불붙는 아궁이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문턱을 넘어 방안에 들어섰습니다.

《아니, 자네가 살아돌아오다니. 이게 웬일인가?》

산양할아버지는 너구리를 와락 부둥켜안았습니다.

《산양할아버지, 이 집주인 못난 너구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여난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는 장차 어떻게 살겠는가를 새로 태여났다는 그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새로 태여났다구? 어쨌든 살아돌아왔으니 됐네 됐어.》

산양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이웃들도 너구리를 부둥켜안고 저저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놀보가 너구리네 집을 찾아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놀보에게서 사연을 들은 산양할아버지는 그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놀보는 다름아닌 들마을의 메고양이였습니다. 그는 오소리의 말을 듣고 너구리의 그 버릇을 뚝 떼주려고 《마술저고리》사건을 꾸며놓은것이였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너구리는 《놀보》를 쏘아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고양이는 너구리에게 진실을 말해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구리가 이번 일을 그저 웃음으로 스쳐보낼수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너구리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 풀색옷을 입은 《놀보》가 마음착한 메고양이라는것도 몰랐고 또 자기가 거머리늪에서 애써 건져낸 마술저고리가 가짜라는것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체93(2004)년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두 총각이 있었습니다. 몸이 실팍하고 결패가 있어보이는 총각은 대범이요, 몸매가 날씬하고 침착한 총각은 소봉이라 불렀습니다.

두 총각은 나라를 지키는 큰 장수가 되려는 뜻을 품고 석삼년을 줄곧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글공부에 열중해서 천문지리에 능통하고 세상리치를 모르는것이 없었습니다.

두 총각은 이야기할 때마다 속담을 재치있게 엮어나갈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두 속담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날 두 총각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는 한가위날에 장안성에서 큰 무술경기가 있는데 우승한 사람을 장수로 뽑는다는것이였습니다.

대범이는 소봉이를 찾아가 의논해보았습니다.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안다고 한번 해보지 않겠나?》

《집작이 천리라는데 가봐야 뻔할것 같네.》

소봉이는 보던 책을 밀어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촌사람이야 암만해도 우물안의 개구리지.》
《개천에서 룡이 난다는 말도 있지 않나.》
대범이가 몇번이나 권유했지만 소봉이는 좀처럼 나설 의향이 없었습니다.
경기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대범이는 소봉이를 또 찾아갔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갈수 있지만 소봉이의 재주를 알고있는 그로서는 꼭 함께 가고싶었습니다.
《여보게, 미꾸라지 천년에 룡이 된다고 하였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네.》
소봉이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하면 끝끝내 해내고야마는 대범이는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고개는 안넘어보고 한숨부터 쉴수야 없지 않나.》
대범이는 끈덕지게 달라붙었습니다.
《떼가 사촌보다 낫다고 내가 그만 손을 들었네.》
마침내 소봉이가 응해나섰습니다. 사실 밑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나서볼만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오늘 당장 떠나세.》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네.》
소봉이는 경기날자가 푼푼히 남아있는것만큼 준비를 단단히 하고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총각은 길차비를 해가지고 사흘후에 떠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사흘이 지나자 두 총각은 드디여 길을 떠났습니다.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서 그들을 바래워주었습니다.
《갓 마흔에 첫 버선이라고 우리 마을에서 처음 보는 경

사일세. 꼭 성공하고 돌아와주게.》

마을의 좌상로인이 그들의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두 총각은 가슴이 찡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명심하겠소이다.》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장안성까지는 천리먼길이였습니다. 천리길을 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눈섭마저 천리길에는 짐이라더니 등에 진 보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것 같았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객주집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또 어떤 때는 남의 집 웃방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가던 소봉이가 저도모르게 투덜거렸습니다.

《공연히 사서 고생이라니까.》

《고생끝에 락이 온다고 했네.》

대범이는 오히려 벙글써 웃어보였습니다. 그바람에 시뿌둥하던 소봉이도 그만 허허 웃고말았습니다.

어느날 두 총각은 길을 가다가 외나무다리와 맞다들게 되였습니다. 그 다리밑을 굽어보니 시퍼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있었습니다.

두 총각은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고 길옆에 앉아 한참이나 땀을 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쉴만큼 쉬고서도 소봉이는 일어설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빌려온 고양이처럼 앉아만 있겠나?》

《그렇다고 미친놈 널뛰듯 할수야 없지 않나.》

《어둑서니는 볼수록 커진다고 하였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했다네.》
소봉이는 망설이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대범이가 용단을 내려 외나무다리를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소봉이도 마지못해 다리에 올라섰습니다.
외나무다리를 건느니 이번엔 험한 고개길이 나타났습니다. 고개길어구에서 두 총각은 웬 로인을 만났습니다.
《어데 가는 젊은이들인가?》
로인이 먼저 말을 건네자 소봉이가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장안성으로 무술을 겨루어보러 갑니다.》
《여보게들, 저 고개엔 요즘 흉기를 가진 도적무리들이 나타난다네. 아무리 무술을 익혔다 해도 도적무리를 어떻게 당하겠나? 날도 저물었는데 어서 되돌아서게.》
《설상가상이로군.》
소봉이가 나직이 한숨을 쉬였습니다.
《먼길을 가느라면 험한 곳도 지나기마련이라네.》
대범이는 소봉이를 달래여 어떻게 하든 날이 어둡기전에 고개길을 넘고싶었습니다.
대범이는 소봉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포수집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더니 자넨 정말 막무가내로군.》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은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네.》
대범이는 소봉이를 달래여 끝내 고개를 넘고야말았습니다. 정작 고개를 넘고보니 도깨비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대범이와 소봉이는 구름도 쉬여간다는 아득한 령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령밑에서 마침 한 농부가 밭김을 매고있었습니다.
《저, 이 령을 넘자면 얼마나 걸릴상싶은가요?》
대범이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농부가 호미를 들어 길을 가리키며 대답하였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한겻이고 큰길로 돌아가면 해종일 가야 한다네.》
두 총각은 잠시 주저하였습니다.
《하루가 십년맞잡이라는데 저 지름길로 가는것이 어떤가?》
대범이가 소봉이를 넘겨다보며 물었습니다.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이라네.》
대범이는 무술경기날자를 꼽아보았습니다. 무술경기날이 정말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금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열흘 나그네 하루길 바빠해서야 안되지.》
소봉이도 이번에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총각은 한참이나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여지고야말았습니다. 대범이는 지름길에 들어서고 소봉이는 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름길에 들어선 대범이는 처음부터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때로는 흔적이 없어진 길을 찾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걸음을 더 다그쳤습니다. 부지런히 걷고걸으니 반나절도 미처 못되여 령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령마루에서 밑을 굽어보니 허리띠같은 령길이 또아리처럼 감겨도는것이 아흔아홉굽이도 넘

을것 같았습니다.

(지름길에 들어서길 잘했지.)

잠시 땀을 들이고난 대범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내리막길은 걷기가 한결 쉬웠습니다.

그런데 해종일 찌뿌둥하던 하늘은 종시 비를 쏟고야 말았습니다. 찔끔찔끔 떨어지던 비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는 대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령을 다 넘어서니 자그마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대범이는 그 마을에서 비도 그을겸 하루밤을 쉬여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큰길에 들어선 소봉이는 혼자 걷기가 적적했지만 스스로 마음을 위안하였습니다.

(사내는 대로행이라.)

큰길은 걷기도 쉬웠고 길을 잃을 념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령길을 절반도 축내지 못한채 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갈수도 되돌아설수도 없었습니다.

(진퇴량난이로군.)

소봉이는 해종일 비를 맞으며 걷다가 저물녘에야 령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숯구이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숯구이막에서 우들우들 떨면서 하루밤을 보냈습니다. 비는 온밤 세차게 쏟아져내렸습니다.

인심좋은 어느 집 아래방에서 옷도 말리고 뜨뜻하게 자고난 대범이는 다음날 아침 삿갓을 얻어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인제는 장안성이 하루길이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조금 지나서 대범이는 어떤 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온밤 내린 비에 산골물이 불어나서 배

가 건늘수가 없었습니다.

돌다리를 삼켜버린 내물은 솨—솨— 소리를 치며 세차게 흘러가고있었습니다.

대범이는 시뻘건 흙탕물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좋기는 내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것이였습니다.

대범이는 잠시 내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무술경기날자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내물이 줄기만을 기다릴수도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하루 와서 열흘 쉴수야 없지.)

대범이는 생각끝에 단단히 마음먹고 내물에 들어섰습니다.

다음날 소봉이도 그 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도 내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품치는 내물을 바라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천리길을 찾아와서 문턱 넘다 죽을수야 없지.)

소봉이는 이사람 저사람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으나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날자가 다되고보니 소봉이는 해종일 내가에서 안타깝게 발을 굴렀습니다.

(하루만 더 있으면 내물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마음을 늦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면 줄어들줄 알았던 내물이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점점 더 불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소봉이는 그만 땅을 치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못하다는데 목숨을 내댈수는 없었습니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하루이틀쯤이야…)

혹시 비때문에 경기날자가 하루이틀 늦어질수도 있다고

생각한 소봉이였습니다.

이래저래 내물이 줄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사흘이 지나가고말았습니다.

소봉이가 행여나 하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해저물어 장안성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무술경기가 끝난 뒤였습니다. 온 장안성은 무술경기이야기로 흥성거렸습니다.

억이 막힌 소봉이는 어느 객주집에 드러누워 하루이틀 로독을 푼 다음 할수없이 고향을 향하여 되돌아섰습니다.

소봉이가 터벌터벌 걸어서 어느 고개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물러께라, 치께라, 에라께라, 쉬―》

선봉장이 이끌고 가는 군사행차가 뒤를 따르고있었습니다.

소봉이는 길옆에 공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줄 알았던 그 행차가 웬일인지 그의 곁에서 떡 멎어섰습니다.

(죄지은 일은 없는데 웬일일가.)

소봉이는 가슴이 후두둑거렸습니다.

이윽고 가라말을 탄 선봉장이 군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땅에 내려섰습니다.

그 선봉장은 소봉이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무작정 그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여보게 소봉이, 날세, 나야.》

그제야 소봉이가 얼굴을 들어보니 뜻밖에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대범이가 벙글써 웃고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무술경기에서 1등한 대범이가 선봉장이 되여 나라를 지키

려 변방으로 떠나는 길이였습니다.

소봉이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습니다.

대범이는 그의 손을 잡고 늦어진 사연을 물었습니다.

소봉이는 떠듬거리며 내물때문에 지체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난 대범이는 허거프게 웃었습니다.

《그것 보라구. 자네는 무예도 능하고 학식도 높지만 그 소심성때문에 일을 그르치고말았네그려. 명심하게. 담이 크면 높은 산마루까지 올라가지만 소심하면 사다리를 잡고도 지붕에조차 못오르고만다네.》

소봉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그렇네. 참으로 옳은 속담이야. 나는 그 소심성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말았지. …》

주체86(1997)년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서 한 어머니가 금쇠라는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금쇠의 아버지는 아들이 두살나던 해에 외적들을 치는 전장에 나갔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삼대독자 외아들인 금쇠를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서부터 울보요, 늘어나는건 떼질이였습니다.

(고운 자식 매로 키우라고 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있구나.)

어머니는 늘 속담을 외우면서도 아들을 엄하게 키우지 못한 자신을 늦게나마 뉘우쳤습니다.

(속담 그른데 없다는데 내 그대로 금쇠를 키워보리라.)

결심을 품은 어머니는 소갈데 말갈데 다 가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부지런히 속담을 익히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될수록 속담으로 하고 아들도 속담으로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글공부와 함께 무술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금쇠의 나이가 일곱살이 잡히자 어머니는 장농깊이 간수했던 아버지의 장검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칼이란다. 룡천검도 쓸줄 알아야 은이 난단다.》

어머니는 아들을 정겹게 바라보았습니다.

《재주는 장에 가도 못산단다. 미꾸라지도 천년이면 룡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꼭 명심하여라.》

그날부터 금쇠는 집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두봉에 올라가 칼쓰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응석이나 부리던 금쇠가 갑자기 칼을 다룬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어른들도 들기 어려워하는 장검을 하루종일 휘두르는것은 정말 힘에 부치는노릇이였습니다.

금쇠는 며칠 안가서 땅에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느냐? 배의 힘은 돛에 있고 사람의 힘은 마음속에 있단다.》

어머니는 아들이 측은하였으나 헤퍼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사내가 칼을 빼였다 도로 꽂은 법은 없단다.》

어머니의 엄한 눈길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소금이 쉴 때까지 해보겠나이다.》

울상이 되였던 금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보고 이웃들이 혀를 둘렀습니다.

《쯧쯧… 걱정도 팔자다. 어련히 대나무에서 대가 나지 않으리…》

《성미두, 콩밭에 가서 두부 찾겠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쯤한 시비에는 눈섭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흥이야 항이야 하랴. 지게를 지고 제사를 지낸들 상관할게 뭐람.)

염소뿔이 물러빠지는 오뉴월 더위가 한창인 어느날, 훈련에 지친 금쇠는 잔디밭에서 잠간 쉰다는것이 그만 한겻이 지나도록 잠을 잤습니다.

그날따라 일찌기 산마루에 올라온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톨밤에 벌레가 먹는다더니…》

어머니는 금쇠를 불러세웠습니다.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안단다.》

어머니의 서슬푸른 기상에 금쇠는 기가 질렸습니다. 당장 벼락이 내릴것이 뻔했습니다.

금쇠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삽에 어찌 우물을 다 팔수 있겠나이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한번만 용서해주시오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찍을 들고 아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날밤 금쇠는 얼얼한 종아리를 어루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친 말에겐 굴레도 무겁다는데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무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쯤한 일은 약과였습니다.

칠팔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날,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부실부실 내렸습니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는데 오늘이야…)

금쇠는 구들에서 맴돌며 일어설줄을 몰랐습니다.

그 눈치를 알아차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불은 죽으면 죽었지 식지는 않는단다. 사내가 결심했으면 용단이 있어야지.》

금쇠는 할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느직느직 걸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낮이 되니 비가 쫙쫙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공교롭기는 마디에 옹이라더니.》

금쇠는 저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찬비는 가슴속에까지 스며드는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바위밑에서 비를 그어가던 금쇠는 저도모르게 발길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끄러진김에 쉬여간다고 하루쯤이야…)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에 서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있었는지 옷에서 비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금쇠는 그만 말뚝처럼 굳어지고말았습니다.

《나무가 굳지 못하면 좀이 먹는단다. 나는 여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이슬에 옷이 젖는것을 탓하는걸 보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눈길을 마주볼수 없는 금쇠는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열흘길 하루도 안가서 돌아설줄 몰랐다.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울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바쁘게 찧는 방아질에도 손놀 틈이 있지 않소이까.》

금쇠는 머리를 들고 서러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지만 할수 없구나. 어서 돌아가거라. 젊었을 때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산단다.》

금쇠는 할수없이 되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터벌터벌 산으로 가는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는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어머니,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함함해한다는데 어쩌면…)

금쇠는 입안으로 흘러드는 눈물섞인 비물을 뱉아버리며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훈련의 날과 달이 흘렀습니다. 금쇠의 칼쓰는 솜씨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는 속에 금쇠의 나이는 어느덧 열네살을 헤아리게 되였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금쇠를 불러앉히였습니다.

《사내나이 열넷이면 대장부로다.》

어머니는 실팍해지는 아들의 어깨를 잠시 쓰다듬었습니다.

《네 재주를 한번 보고싶구나. 나는것을 보고서야 그 새가 맹금인줄 안단다.》

어머니는 칼을 잡은지도 어언 몇해가 되였으니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의 목을 따오라고 하였습니다.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는데 한번 해보겠나이다.》

금쇠는 두말없이 호랑이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는 한낮에도 호랑이가 길목을 지켜선다는 오산령으로 향하였습니다.

처마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제비 한쌍이 멀리까지 따라나서며 그를 바래주었습니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금쇠야 금쇠야 불쌍한 금쇠야
네가 진짜 호랑이를 이길수 있니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구나

금쇠는 어줍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새벽이슬처럼 사라진대도 울어머니 결심은 꺾지 못한다.》

제비 한쌍이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었습니다.

《그럼 몸성히, 부디 몸성히…》

《오오냐, 고맙다.》

금쇠는 웃으려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만 하지 말고 주먹을 튼튼히 틀어쥐자.)

금쇠는 언젠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속담을 조용히 되새겨보며 걸음을 다그쳤습니다.

한겻이 지나서 어느덧 오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작 오산령에 들어서니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깎아지른 험한 봉우리들이 들쑹날쑹한데 어디서 호랑이가 발톱을 벼르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금쇠는 자기도모르게 간이 콩알만해 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쳐다볼수록 커만 보인다, 커만 보인다. …》
깜짝 놀라 사위를 살피니 험한 봉우리가 그 말을 외우고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일러주던 말이였습니다.
그 순간 금쇠는 머리를 꿋꿋이 쳐들었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에게 홀리운다지? 하늘이 열쪼각이 나더라도 해볼테다.》
금쇠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으슥한 수림속을 샅샅이 훑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금쇠의 서슬푸른 기상에 겁을 먹었는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맥이 난 금쇠는 바위우에 걸터앉았습니다.
《개울물에 개지나간 자리로구나.》
마음의 탕개가 풀린 금쇠는 장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뒤에서 《어―흥》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눈앞으로 휙― 스쳐지나갔습니다. 눈살이 꿋꿋해서 바라보니 글쎄 온몸에 검은줄무늬가 얼룩얼룩한 호랑이가 저쪽 바위에 척 내려앉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의 두눈에서는 푸른빛이 황황 뿜어나왔습니다.
금쇠는 급기야 장검을 틀어잡았습니다.
한마리의 쉬파리와 한마리의 코끼리가 마주서도 서로 두려워한다더니 한동안 눈과 눈의 말없는 싸움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가 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서더니 공중으로 휙― 휙― 날아돌며 그의 넋을 앗아냈습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만은 잃지 말랬지.)
그럴수록 금쇠는 장검을 더 힘있게 틀어쥐였습니다. 호

랑이가 다시 자리에서 획 올리떴다가 달려드는 순간 금쇠는 장검을 들어 대가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으—앙! 소리를 내지르며 덮쳐들었습니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겨우 정신이 든 금쇠가 눈을 뜨니 새별이 가물가물 사라지는 이른새벽이였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정신을 잃었던것이였습니다.

옆을 보니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너부러져있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원쑤가 없다더니 내가 정말 이겼구나.》

비록 여러군데나 살점이 뜯기우고 얼굴에 마른 피가 엉겨붙었으나 그쯤한것은 탓할바가 아니였습니다.

금쇠는 호랑이의 목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기세좋게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느새 지붕에 박꽃이 하얗게 피여난 정가로운 초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어머니가 금시에 보이는듯 했습니다.

(봉사 눈뜬것처럼 반가와하실테지.)

그는 마음이 앞서서 방문을 열어제끼였습니다.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금쇠는 불시에 설음이 북받쳐올랐습니다.

(아, 무정한 어머니, 아들을 사지판에 보내놓고도 어쩌면 먼산의 바위보듯 하실가.)

점심녘에야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드는 돌이 있어야 놓는 돌이 있다더니 네가 수고했구나.》

어머니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상을 차려주고 웬일인지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금쇠는 섭섭했습니다. 그때 이웃집할머니가 서러워하는 금쇠에게 사연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금쇠가 오산령으로 떠날 때에 어머니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령을 넘으면 어머니도 몰래 그 령을 넘고 아들이 수풀을 헤치면 어머니도 그 수풀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아들이 호랑이와 맞붙어 돌아갈 때에는 차마 눈뜨고 바라볼수 없었습니다.

《으―앙!》 하며 호랑이가 금쇠를 덮치는 순간 어머니는 눈을 딱 감고 아들에게로 달려간다는것이 그만 발을 헛짚어 바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고 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던것이였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니는 내색을 내지 않고 밥상을 차려놓고 말없이 집을 나갔던것이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 퉁퉁 부어오른 어머니의 다리를 몰래 만져보는 금쇠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런줄도 모르고 잠시나마 어머니를 섭섭하게 생각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습니다.

(아, 벼르던 아기 눈이 멀지 않도록 값눅은 애무가 아니라 엄한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 다리 셋인 닭이 없고 두가지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없구나.)

금쇠는 가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그후 금쇠의 무술솜씨는 귀신도 탄복할 지경이였습니다.

마침내 금쇠는 무술시험에서 합격하고 군사들을 이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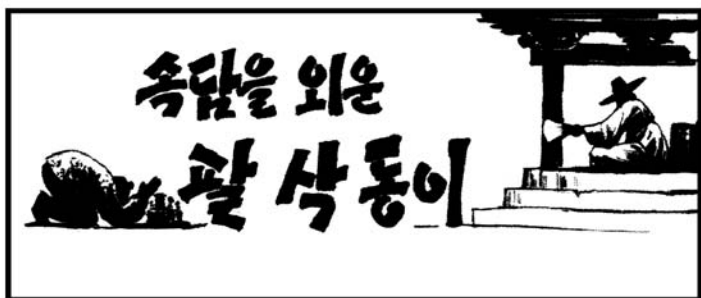
장수가 되여 집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온 마을의 남녀로소가 떨쳐나서 길을 떠나는 금쇠를 바래주었습니다. 그속에는 숫돌이 저 닳는줄 모른다고 이미 반백이 된 어머니도 서있었습니다.

《금쇠야, 가물에 돌 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알겠나이다. 어머니,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아들이 큰 장수가 되여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속담을 외우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체87(1998)년

옛날 삼척고을에 돈많은 변부자가 살았습니다. 솟을대문에 으리으리한 열두칸짜리 집에서 사는 부자이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궤마다 가득찬 그 많은 돈을 넘겨줄 변변한 자식이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팔삭동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는 나이 스물이 다되도록 돈 회계는 물론 돈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울며 겨자먹는다고 팔삭동이에게라도 돈이 중한줄 알게 해야지.)

돈이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세상에서 돈을 모르고서는 제구실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 변부자였습니다.

변부자는 매일매일 팔삭동이자식을 앉혀놓고 돈에 대한 속담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돈이 량반이다.》, 《돈이 장사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

팔삭동이는 무릎을 끓고앉아 해종일 그 속담들을 외웠으나 그식이 장식이였습니다. 뜻을 알기는 고사하고 입

에 제대로 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스물이 되여서도 채찍맛을 보군 했습니다.

어느날, 그날도 방안에서 혼자 천정을 쳐다보며 속담을 외우느라 웅얼거리던 팔삭동이는 불쑥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담을 보지 않고도 외우는 수는 없을가?》

팔삭동이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어디선가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가 있지, 수가 있지.》

깜짝 놀란 팔삭동이가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속담이 적혀있는 종이장만이 흩어져있을뿐이였습니다.

《이상한데?…》

팔삭동이가 볼부은 소리를 하자 종이장이 너펄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대답한건 바로 나야.》

팔삭동이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말을 하다니?… 그래 무슨 좋은 수가 있니?》

그는 귀가 항아리만 해서 종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에 대한 속담이니 돈 한잎을 삼켜보렴. 그러면 돈에 대한 속담이란 속담은 죄다 알게 될게다.》

마침 팔삭동이의 주머니에는 언젠가 아버지가 괴춤에서 흘려버린 은전 한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은전을 꿀꺽 삼키였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속이 메슥메슥해지며 졸음이 왔습니다. 한잠 자고나니 정말 그 어렵던 속담들이 줄줄 떠오르

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저녁 팔삭동이는 아버지에게 속담을 외워바쳤습니다.

《돈이 량반이라는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돈만 있으면 행세를 할수 있다는 말이구요.》

《으—음.》

변부자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돈이 장사라는건 하잘것 없는 사람도 돈만 가지면 세력도 따라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돈이면 귀신도 부릴수 있다는건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아는구나.》

변부자는 팔삭동이의 대답이 신통해서 엉뎅이를 들썩거리였습니다.

신이 난 팔삭동이는 속담을 줄줄 내리외웠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돈에 침 뱉는 놈 없다.〉, 〈돈이란 날아가기도 하고 날아오르기도 하는 새이다.〉,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다.〉, 〈돈을 잘 벌어 부자가 아니라 알맞추써야 부자다.〉》

《여보, 마누라.》

변부자는 안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갓 마흔에 첫버선이라더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소.》

변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누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 보구려. 내가 뭐랬소? 열번 갈아서 안드는 도끼가 없다 하지 않았수.》

변부자와 마누라는 좋아서 손을 맞잡고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그날밤 만시름이 풀린 변부자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드렁드렁 코고는 소리가 문풍지를 울리는 속에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팔삭동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멍이첨지가 된다지.)

일단 돈에 대해서 알게 된 팔삭동이는 그저 맨손으로 있을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 해두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쌈지돈이지.)

그는 슬며시 일어나 안방문을 열고 고양이처럼 살짝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없이 자고있는 아버지의 괴춤에서 열쇠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다음 돈궤를 열어제끼고 쇠돈이건 종이돈이건 자루에다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중도 절간을 떠난다지.)

그는 문턱에다 침을 뱉고는 소리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튿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변부자는 어쩐지 괴춤이 홀가분했습니다. 손더듬을 해보니 열쇠뭉치가 없었습니다.

속이 철렁한 변부자가 곧장 돈궤앞으로 가보니 아니나다를가 궤마다 문이 활짝 열려져있었습니다.

돈은 고사하고 돈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아이구, 꿩 구워먹은 자리로구나. 생벼락을 맞았구나.》

야단법석을 하며 방안문을 열어젖히니 팔삭동이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집작이 간 변부자는 땅을 쳤습니다.

《혀바닥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속담을 가르쳤더니… 제가 놓은 덫에 치였구나.》

《그러길래 내가 뭐랬수? 돈 주고 병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수.》

뒤따라 방안에 들어온 마누라도 넉두리를 하였습니다.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은 못낳는다더니… 아이구, 가슴이야!》

《자식도 품안에 들 때 내 자식이라더니 남이 될줄 몰랐구나.》

변부자와 마누라는 번갈아가며 탄식하였습니다.

《다 파먹은 김치독이 되였으니 이젠 어떻게 살아가겠수?》

《글쎄말이요.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는데…》

집에서 두 령감로친이 울며불며 할 때에 돈자루를 둘러멘 팔삭동이는 기세좋게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돈이 장사라는데 어디 서울 가서 돈을 써보자.》

사흘낮, 나흘길을 걸어서 서울에 당도한 팔삭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울장안이 어찌나 넒은지 소경 단청구경이였습니다. 어데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암만 돈이 많다 해도 푸른 소에 돌 던지듯 할수야 없지.)

하루는 어느 실없는 사람이 그에게 손안에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판서대감을 찾아가 묵돈을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알도리가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감을 찾는다는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이집저집 장님 막대질하듯 넘겨다보는 사이에 닷새가 지나고 뒤웅박 차고 바람잡느라 또 닷새가 얼른 지나갔습니다.

《정말 신 신고 발바닥 긁기로구나.》

어느날 맥이 난 팔삭동이는 길거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륙모방망이를 차고 거들먹거리며 지나가는 라졸 하나가 눈에 띄였습니다.

(저자식은 돈 한푼 없는 주제에 제풀에 흥이 나서 돌아치누나.)

팔삭동이는 어쩐지 그 라졸에게 말을 건늬고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옹근 배 주고 배속 빌어먹는 주제에 어쩌면 포수집 강아지처럼 우쭐렁거리오?》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자식이야? 달보고 짖는 개로구나.》

성미급한 라졸은 륙모방망이부터 쳐들었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팔삭동이는 라졸의 다리를 부여안았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데 내 사정 좀 봐주시오.》

팔삭동이는 돈자루를 메고 서울에 온 사연을 자초지종 말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라졸은 입이 헤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침 서울 리조판서대감댁 라졸이였습니다.

돈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대감의 성미를 잘 아는 라졸로서는 팔삭동이의 소원을 풀어주는것쯤은 식은죽먹기였습니다.

《이놈아, 소경이 문고리를 잡았구나.》

이리하여 팔삭동이는 그 라졸을 따라 하늘보다 높은 판서대감네 집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라졸에게서 사연을 들은 판서대감은 팔삭동이를 어이없어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을 뚝뚝 두드렸습니다.

《이놈아, 돈이면 덮어놓고 소뿔에 닭알 쌓을것 같으냐?》

(돈이라면 대통그림자도 따라간다는데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꿇어엎드린 팔삭동이는 속이 한줌만 하기도 했지만 한편 배심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팔삭동이를 소 닭보듯 하던 판서대감이 이윽고 그가 지고온 돈자루를 한눈으로 슬며시 넘겨다보았습니다.

(뢰물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선다는데…)

때아닌 횡재를 만난 판서대감은 더는 시침을 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하고 뺨맞는 일 없다는데 이왕 어려운 걸음을 왔으니 다시 생각해보자.》

판서대감은 자리를 고쳐앉았습니다. 때마침 삼척군수가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라 그자리가 비여있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팔삭동이는 어렵지 않게 그자리를 땄습니다.

(정말 돈에 침 뱉는 놈 없구나.)

팔삭동이는 웃음집이 흔들거렸습니다.

며칠후 사모관대를 쓴 팔삭동이를 태운 요란한 행차가 삼척고을로 향하였습니다.

《에라께라 물러께라, 사또님 행차하신다.》

기갈하는 소리에 행길에는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흔들거리는 큰 가마안에 틀지게 앉은 팔삭동이는 두 눈을 지그시 내려감았습니다.

《돈으로 산 자리이니 돈으로 봉창해야지.》

그는 줄곧 이 생각에 잠기다나니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요란한 행차는 닷새만에 드디여 삼척고을에 다달았습니다.

고을에 도착한 팔삭동이는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거지가 된 아버지를 만날 필요가 없었던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팔삭동이가 사또가 되였다는 소문은 삽시에 온 삼척고을에 퍼졌습니다.

《민충이가 쑥대에 올랐으니 죽어나게 됐네.》

《돈에 환장한 놈이니 모두가 목구멍에 거미줄 쓸게 됐구나.》

아니나다를가 관청에 틀고앉은 팔삭동이는 덮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얻은 떡이 두리반이라는데 어디 여러놈에게서 긁어보자.》

처음 팔삭동이에게 불리워간 사람은 이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인 민지주였습니다.

《여봐라, 돈이 많으면 걱정도 크다는데 네 재산이 얼

마나 되지?》

당상에 앉은 팔삭동이는 민지주를 넌지시 굽어보았습니다.

(뱀이 룡되여 큰소리 치는구나.)

아무리 관직이 없는 민지주라 해도 호락호락 굽어들 잡도리는 아니였습니다.

팔삭동이는 대통을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짧은 밤에 긴 노래를 부르겠느냐. 네 재산 얼마를 관청에 바쳐야겠다.》

(서서 벼락을 맞는구나.)

민지주는 뻗대볼 생각도 있었지만 고을사또와 맞선다는 것은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하기였습니다.

그는 울며 겨자먹기로 돈 오백냥을 앉은자리에서 떼우고말았습니다.

민지주 다음에 불리워간 사람은 비단장사를 하는 권부자였습니다.

《네놈이 큰 부자가 된것은 필시 돈 반상 먹고 열네잎으로 사정한것이 뻔한즉 그 돈 절반을 관가에 바쳐라.》

(생눈을 빼먹는 처사로군.)

권부자도 선자리에서 돈 삼백냥을 떼우고말았습니다.

그다음은 고리대금을 하는 리치두와 소거간군 문첨지가 불리워와 돈 이백냥씩 섬겨바쳤습니다. 나중엔 엿장사를 하는 강과부까지 관청출입을 하더니 돈 백냥을 떼우고말았습니다. 정말 코묻은 돈까지 빡빡 긁어내는 사또였습니다.

매일매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관청으로 불리워가더니 드디여 변부자에게도 호출령이 내렸습니다.

관청으로 가는 변부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서 담판을 하고싶었습니다.

(아무리 후레자식이라 해도 제 애비까지 몰라 보지야 않겠지. 부자간에도 돈 회계는 바로한다고 네놈이 훔친 돈 절반이라도 받아낼테다.)

변부자는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청밑에 꿇어엎드리고보니 자식을 마주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적놈 개 꾸짖듯 했을뿐 말 한마디 변변히 비춰보지 못하였습니다.

팔삭동이는 눈 한번 끔뻑이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저 늙은이는 사정을 봐서 돈 삼백냥을 받아내고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부채를 호기있게 접으며 안으로 훌쩍 들어가버렸습니다.

변부자는 그만 기가 막히였습니다. 아무리 제 똥 구린줄 모르는 놈이라 해도 다 털어낸 제 애비의 마지막 검불 한가락까지 빡빡 긁어낼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제가 길들인 개한테 제 발꿈치를 물렸구나.》

변부자는 땅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이 고기맛을 들이면 외양간 널판자도 핥는다는걸 알면서도 팔삭동이에게 돈맛을 알도록 해준 제 잘못이였습니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구나.》

변부자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그것은 때늦은 뉘우침이였습니다.

주체87(1998)년

옛날 어느 바다가마을에 돌치라고 부르는 소금장사군이 있었습니다.

돌치는 말주변이 좋은데다가 속담을 많이 알고있었습니다. 그는 늘 속담을 엮어가며 사람들을 살살 구슬리고는 그 덕에 소금을 눅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마을아근에서는 돌치만큼 속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치는 제 이상 없노라고 하였습니다.

맑게 개인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한창 김장철을 앞둔 때이라 산골마을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소금이 발랐습니다. 그걸 짐작한 돌치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먼 산골마을로 장사길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찌기 집을 나선 돌치는 한나절이 다 되여서야 어느 령밑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몇십리를 걸어왔는지 다리맥이 쏙 빠지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즐펀하였습니다.

그는 정자나무밑에 소금짐을 내려놓고 다리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구불구불 뻗어간 령길을 하염없이 바라보

았습니다.

(이 돌짐을 지고 저 령길을 어떻게 넘어선담.)

령을 바라보는 돌치는 저도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길을 되돌아설수도 없었습니다.

돌치가 한참 망설이고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에서 하늘소를 타고 곧바로 령길로 접어드는 길손 하나가 눈에 띄였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살수도 있다더니…)

길손을 바라보는 돌치의 얼굴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느슨한 웃음이 피여났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급히 길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데로 가는 길손인지요?》

돌치는 해사하게 웃으며 길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길손이 점잖게 대답하였습니다.

《령을 넘어 저 룡포마을로 가는 길손이웨다.》

길손도 마침 쉬고싶었던지 하늘소에서 내려 나무그늘밑으로 다가섰습니다.

돌치와 길손은 자리를 적당히 골라잡고 서로 통성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길손은 령너머 마을에 사는 선비였는데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여보시오. 심심한데 우리 속담이나 서로 겨루어보지 않겠소?》

돌치가 선비에게로 바싹 다가앉으며 슬쩍 비쳐보는 말이였습니다.

《속담겨루기라, 그것 참 귀맛이 당기누만.》

글공부를 많이 한 선비는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심심해서 무슨 풍월이든지 해보고싶던 선비였습니다.

둘은 의논끝에 속담겨루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기가 내기인것만큼 이기는쪽이 하늘소를 타고가고 지는쪽이 고삐를 잡고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속담겨루기를 어떻게 한다?》

선비가 궁리가 나지 않아 돌치에게 물었습니다.

《그건말이요…》

돌치는 미리 궁리해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생각인즉 돌치가 먼저 속담 하나를 외우면 선비가 맞받아서 어감은 비슷하나 뜻이 정반대인 속담을 내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받아외우면 속담을 먼저 낸 돌치가 지는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돌치의 말을 들은 선비는 짐작이 가는지 벙긋이 웃었습니다.

이윽고 돌치가 오락가락하며 속담을 하나 외웠습니다.

《길 떠나면 길동무가 제일이로다.》

뒤이어 선비도 제 주변에서 거닐며 대답하였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길이 빨리 축난다.》

그 대답을 들은 돌치는 벌씬 웃었습니다.

《여보시오. 그게 어디 뜻이 다른 속담이요. 갈고같은 속담이지.》

정말 그 두 속담의 뜻풀이를 해보면 말마디만 달랐지 서로 같은 속담이였습니다.

그제야 제 실수를 깨달은 선비는 얼굴이 활딱 붉어졌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돌치는 벌써 하늘소의 고삐를 잡고 올라탔습니다.

이리하여 꾀많은 돌치는 하늘소를 타고가고 선비는 고

삐를 잡고 령을 넘어가게 되였습니다.

하늘소를 타고가는 돌치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아무리 글공부를 많이 한 선비라 해도 이 돌치를 당할라구. …)

돌치는 생각할수록 공부깨나 했다는 선비를 가볍게 이긴것이 여간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만족에 취해서 어떻게 령을 넘어서는지도 몰랐습니다.

령을 넘어서니 룡포마을이였습니다.

볼이 부은 선비는 두말없이 제 하늘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돌치는 멀리 사라지는 선비를 바라보며 그와 빨리 헤여진것이 여간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수없이 다시 등짐을 지고 길을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보니 큰 시내가 앞을 막았습니다.

돌치는 시내가에다 짐을 내려놓고 서성거렸습니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찬물에 들어설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행여나 해서 또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멀리에서 더벅머리총각 하나가 가벼운 보짐을 지고 성큼성큼 시내가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군.)

돌치는 웃음집이 흔들거렸습니다.

이윽고 총각이 내가에 다달으자 돌치는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로 가는 총각인가?》

돌치는 총각을 쭉 내리훑었습니다. 어디라없이 어수

룩한게 잘만 구슬리면 얼마든지 부려먹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돌치를 흘끔 쳐다보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각, 우리 잠간 쉬면서 속담이나 겨루어보지 않겠나?》

《속담겨루기요?》

총각은 그믐밤에 홍두깨라는듯 눈이 둥그래서 돌치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물을 건느자면 어차피 물에 들어서야 할텐데 우리 속담겨루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고 물을 건너가자는거야…》

그러자 무뚝뚝해보이던 총각이 뜻밖에도 씩— 웃더니 선선히 응해나섰습니다.

《어른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겨루어봅시다요.》

돌치는 제 생각대로 일이 착착 번져지는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비와 하던 말을 그에게 구구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이윽고 돌치는 흥얼흥얼 속담을 외웠습니다.

《길 떠나면 길동무가 제일이로다.》

그는 재미를 본 그 속담을 다시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생각을 굴리더니 대답하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은 다 동무가 아니다.》

《그러니 길에서 만난 사람을 조심하란 말이지?》

저도모르게 속담의 뜻을 풀이해보던 돌치는 그만 말

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어감은 비슷하나 뜻이 달랐습니다.
돌치는 입맛을 쩝쩝 다시였습니다.
《그럼, 어서 약속대로 하지 않겠소이까?》
총각은 흐뭇이 웃으며 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따, 그렇게 단판에 매듭짓는 법이 어디 있나. 속담 하나를 더 외울테니 마저 대답해보게.》
바빠맞은 돌치는 총각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속담 하나를 더 외웠습니다.
《산과 산은 사귀지 못하나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귄다.》
총각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내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돌치의 얼굴에 얄궂은 웃음이 피여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속담군을 당할라구…)
돌치가 속으로 쾌재를 올릴 때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총각이 드디여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수 있고 나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머리우에 돌이 날아든다.》
《그러니 사람을 잘 사귀라는 말이로군.》
그 속담도 틀림없는 명답이였습니다.
그제야 돌치는 새삼스레 총각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옷차림은 허술해도 눈에 정기가 넘치는것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총각을 너무 허술히 봤군.)
돌치는 분한대로 총각을 업고 내물에 들어설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디찬 내물이 정갱이를 적셨으나 돌치는 시린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생각할수록 암소한테 물린것만 갈

았습니다.

시내를 건너서 얼마간 가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객주집 하나가 바라보였습니다.

돌치와 총각은 그 집에서 하루밤을 쉬여가기로 하였습니다.

돌치가 문밖에서 주인을 찾으니 말라꽹이같은 객주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장, 돈은 푼푼히 줄테니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주게.》

《그러지요.》

주인은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그들을 방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얼마쯤 있으려니 돼지 멱따는 소리와 닭이 푸들쩍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통닭 두마리와 돼지순대에 반주까지 받쳐놓은 푸짐한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길을 오느라고 허기진 돌치와 총각은 겸상을 하고 마주앉았습니다. 그들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눈깜박할 사이에 저녁상을 반반하게 훑어낸 돌치와 총각은 어줍게 웃으며 상을 물리였습니다.

《이젠 배불리 먹었으니 값을 치르어야지.》

돌치는 흘끔 총각의 눈치를 살펴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속담겨루기를 또 해서 지는쪽이 밥값을 다 무는것이 어떤가?》

그제야 총각은 돌치가 왜 저녁상을 푸짐히 청했는지 짐

작이 갔습니다. 그는 모르쇠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른이 좋은대로 하시자요.》

돌치는 방금 물린 밥상을 보며 속담 하나를 외웠습니다.

《음식은 먹는 사람이 맛을 안다.》

그럴듯한 속담이였습니다.

총각은 눈을 깜박깜박하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음식맛은 소금을 쳐야 알고 세상맛은 눈으로 안다.》

총각은 거침없이 척척 속담을 외웠습니다. 그 속담도 정말 이를데없는 명담이였습니다. 돌치가 아무리 속담을 많이 알고있다고 해도 총각한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치는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새 속담 하나를 또 외웠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

그 속담을 들은 총각은 벙긋이 웃었습니다.

《잠자코 있는것이 무식을 면한다.》

돌치가 그 뜻을 새겨보니 자기더러 망신당하지 않겠으면 가만 있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돌치는 총각이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기인데 화풀이를 할수도 없었습니다.

속담겨루기에서 진 돌치는 할수없이 제 주머니를 반반히 털어 밥값을 물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돌치와 총각은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총각은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코를 드렁드렁 골았습니다.

그러나 돌치는 잠들수 없었습니다. 총각한테 두번씩이나 망신당한것이 분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래일 한번 더 겨루어봐야지.)

온밤을 엎치락뒤치락하던 돌치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 닭이 홰를 치는 소리를 듣고 돌치가 놀라서 깨보니 해가 중천에 떠올라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장날이였습니다. 객주집부근은 장터였는데 이른아침부터 별의별 장군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소나 염소와 같은 집짐승들을 끌고오는 로인들도 있었고 엿이나 두부, 콩나물, 생선을 이고오는 아낙네들과 어물장사들도 보였습니다.

돌치는 쉽게 소금을 팔아치웠습니다. 돈주머니는 불룩했으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생각한대로 이 숱한 사람들이 보는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속담겨루기를 해보고싶었습니다.

돌치는 억지로 총각의 팔을 잡아세웠습니다.

《이보라구 총각, 마지막웃음이 진짜웃음이라는데 이 장군들앞에서 한번 더 속담겨루기를 해보지 않겠나?》

총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면 이 돈주머니를 다 주겠네.》

돌치는 돈주머니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총각은 더는 뻗댈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속담겨루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장군들이 돌치와 총각을 에워쌌습니다.

돌치는 장군들을 둘러보며 속담 하나를 외웠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장사군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속담이였습니다.

《돈을 잘 벌어 부자가 아니라 알맞추써야 부자다.》

제 실패를 느낀 돌치가 얼른 다른 속담 하나를 또 외웠

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싫증나는 법이 없다.》

총각도 미리 준비하고있은듯이 척척 대답하였습니다.

《부자는 재물때문에 밤잠을 편히 못잔다.》

장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 총각의 말이 백번 지당하지. 우리 마을 권부자는 재물때문에 온밤을 뜬눈으로 밝힌다우.》

로인 하나가 삿대질을 하며 응수했습니다.

《그렇잖구요. 거 재물도 지내 많으면 걱정거리가 된다우다.》

녀인 하나가 아는체를 했습니다.

돌치는 마지막으로 속담 하나를 또 외웠습니다.

《황금은 값이 있어도 마음은 값이 없다.》

총각은 머리를 버쩍 들고 장군들을 향하여 소리높이 웨쳤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것은 마음이 있기때문이다.》

그러자 장사군들이 와와 소리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옳수다.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것은 마음이 있기때문이고말고.》

장군들은 총각의 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만 돌치는 여지없이 패하고말았습니다.

이윽고 장군들에게 둥둥 떠받들려가는 총각을 바라보는 돌치는 얼이 빠진듯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빈수레 굴러가는 소리 더 요란하다.》고 돌치는 큰 교훈을 찾았습니다.

주체87(1998)년

1

옛날도 먼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삼돌이라 부르는 나어린 소년이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원래 삼돌이네는 삼형제였는데 그만 병으로 형들은 어머니곁을 떠났고 막동이인 삼돌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삼돌이는 돌아가신 형님들을 대신하여 어머님을 잘 모셨습니다.

삼돌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습니다. 더더욱 아버지를 일찌기 여의게 되여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까지 합치여 삼돌이를 더 극진히 보살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속에 삼돌이는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이였지만 언제나 가

정엔 따뜻한 정이 넘쳐흘렀습니다.

그러던 삼돌이네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또 닥쳐왔습니다.

삼돌이가 열두살나던 해 봄에 어머니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것이였습니다.

삼돌이는 그날부터 온 산판을 메주밟듯 밟고다니며 좋다는 약초란 약초는 다 캐여다 대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삼돌이는 자나깨나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릴 그 한가지 생각뿐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삼돌이는 아주 희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수십리 떨어져있는 천불산 깊은 산속에 아주 신기한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한뿌리만 캐여서 달여먹으면 로환으로 힘이 진한 사람은 자리를 털고일어서고 애젊은 사람은 무탈없이 백년을 장수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또 아직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천불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으나 어느 누구도 그 신기한 약초를 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삼돌이는 그날부터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그저 형님이 한분만이라도 계시거나 어머니의 병이 조금만 차도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천불산 깊은 산속으로 가고싶었습니다.

그러나 누운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홀어머니를 두

고 어떻게 집을 나설수 있겠습니까.

삼돌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사이에도 어머니의 병은 하루하루 더 심해만 갔습니다. 삼돌이는 더는 그대로 있을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밤 삼돌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앞에 조용히 마주앉았습니다.

《어머니, 천불산 숲속에 유명한 약초가 있다는데 제가 꼭 캐오겠으니 허락해주십시오.》

삼돌이의 목소리는 절절하였습니다.

《얘야, 나도 그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캐지 못한 약초를 네 어린 몸으로 어떻게 캐오겠니?》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예요, 어머니. 사내가 열두살이면 대장부라는데 꼭 가게 해주십시오. 시원히 갔다라도 온다면 원이 풀리겠어요.》

삼돌이는 앉은걸음으로 어머니앞에 바투 다가앉았습니다.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갔다오너라.》

삼돌이의 굳은 결심을 헤아린 어머니는 더는 말릴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어머니병이 더 심해질가 걱정이 돼요.》

《걱정말아라. 네가 없더라도 이웃들이 어련히 돌봐주지 않으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있는 삼돌이를 이윽히 바라보다가 가까스로 일어나앉았습니다.

굳은 결심을 품기는 했으나 삼돌이는 선뜻 발길이 떨어

지지 않았습니다.

《얘야, 그럼 주저말고 어서 떠나거라. 혹시 네가 그 약초를 미처 캐지 못해서 어머니께 대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때라도 찾아내기만 하면 착한 이웃들이 그 덕을 입겠으니 좀 좋은 일이냐. 사내란 제 집만이 아니라 우선 남을 생각할줄도 알아야 하느리라.》

어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문에 천불산에 가면 사나운 짐승도 있고 마시면 돌로 굳어지는 이상한 돌샘도 있다는데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삼돌이는 며칠동안 줄곧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잘게잘게 패여서는 산더미처럼 가려놓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침내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삼돌이는 어느날 어머님께 인사를 올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동구밖까지 따라나서며 다시한번 일러주었습니다.

《이왕 마음먹은 일이니 자그마한 정에 잡히지 말고 곧바로 떠나거라.》

삼돌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걸음을 옮겨디뎠습니다.

동구밖을 나서니 둘도 없는 송아지동무인 옆집의 무던이가 달려왔습니다.

《삼돌아, 네가 천불산으로 간다는게 정말이니?》

삼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너 정신있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길인데 앓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집을 떠나겠니. 그동안에 혹시…》

무던이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갈터이니 너는 어머니를 돌보아라.》

무던이는 삼돌이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네것내것없이 정을 나누고사는 무던이였습니다.

《아니야, 사내가 한번 마음먹은 일인데 어떻게 주저앉는단 말이니. … 네가 내 대신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다오.》

그리고는 저도모르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듯 삼돌이는 씨엉씨엉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삼돌이는 차마령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차마령마루에 올라서면 마을이 손금처럼 내려다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그 령마루에 올라서기만 하면 차마 나서자란 마을을 두고 쉽게 길을 떠날수 없다고 하여 차마령이라 불렀습니다.

차마령마루에 올라선 삼돌이는 저도모르게 걸음이 떠졌습니다.

(정말 약초를 캐고 인차 돌아올수 있을가?

그동안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리우에서 까치 한마리가 유난히도 깍깍 우짖었습니다.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자기 집 들메나무에 둥지를 틀고사는 까치였습니다.

《삼돌아, 삼돌아! 뒤를 돌아보려마. 너의 어머니가 아직도 동구밖에 서계신단다.》

삼돌이는 가슴이 뭉클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구밖에 서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

습니다.

삼돌이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십시오. 꼭 신기한 약초를 캐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차마 그대로는 넘지 못한다는 그 차마령을 삼돌이는 넘어섰습니다.

2

삼돌이가 차마령을 넘어간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푸른 잎에 단풍이 들더니 다시 한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이면 천불산을 열두번도 더 갔다왔으련만 삼돌이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무던이는 삼돌이를 대신해서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드렸으나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은 끌끌 혀를 찼습니다.

《공연히 부질없는 길을 떠났군.》

《아마 천불산에는 신기한 약초가 없는 모양이야.》

이웃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송아지동무인 무던이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삼돌아, 그때 차라리 나도 함께 떠났을걸 그랬어.)

무던이는 돌아오지 않는 삼돌이를 두고 혀를 깨물며 자

신을 꾸짖었습니다. 한피줄은 타지 않았어도 친형제나 다름없는 무던이는 그 하루하루가 백날천날 맞잡이로 길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던 무던이는 더는 참을수 없어 마침내 천불산으로 떠나고말았습니다. 혹시 삼돌이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연이나마 알고싶었습니다.

며칠만에 천불산에 이른 무던이는 그 아흔아홉골짜기를 훑어가며 삼돌이를 찾아서 헤매였습니다.

걸음마다 밟히는것은 삼돌이의 얼굴이고 들리는 새소리도 그의 목소리같았습니다.

《삼돌아! 삼돌아!》

어떤 때면 덮어놓고 삼돌이를 불러보기도 하는 무던이였습니다. 그때마다 무심한 산울림만이 《삼돌아! 삼돌아!》 하고 되받아외우며 그의 애꿎은 마음만 더 아프게 해주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삼돌이는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삼돌아, 너 어디 있니? 소리쳐 대답해다오. 정말 천불산 깊은 산중에 한줌의 흙으로 묻히지는 않았겠지?)

무던이는 밤잠을 잊고 삼돌이를 찾아서 헤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무던이는 깊은 산 나무아래 그늘진 곳에서 이상한 바위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 바위는 무슨 사람의 모양같았습니다.

가까이에 가보니 그 바위는 뜻밖에도 돌로 굳어진 삼돌이였습니다.

《삼돌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신기한 약초를 캐여 어머니의 병을 고치겠다던 네가 돌로 굳어지다니 이게 정말 웬

일이냐?》

무던이는 돌로 굳어진 삼돌이를 부둥켜안고 헉헉 흐느껴울었습니다.

《삼돌아, 말이라도 좀 해보려마. 네가 어떻게 되여 돌이 되였니?》

무던이는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무심한 구름만이 두둥실 떠가고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굳센 마음을 먹고 떠났던 네가 정말 이대로 돌이 되였단 말이냐? 안타깝구나. 사연이나마 알고싶구나.》

무던이의 피타는 목소리는 멀리 하늘가에 메아리쳤습니다.

3

차마령을 넘어간 삼돌이는 나흐레만에 천불산 깊은 산속에 다달았습니다.

칭칭 구름을 휘감고있는 천불산은 정말 높고도 험했습니다. 그 험한 령, 깊은 골짜기를 참빗처럼 훑어내리며 삼돌이는 신기한 약초를 찾아서 헤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가까와왔습니다. 아끼고아끼던 길량식마저 다 떨어져가는데 신기한 약초는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가지 풀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즙을 내보아도 신기한 약초라고 생각되는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향의 높고 낮은 산발들에서 흔히 보아오던 그런 풀들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갈수록 지꿎게 감겨드는것은 어머니의 생각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였을가? 그사이에 혹시 병이 더 심하지나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하니 삼돌이는 잠시라도 쉬고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발에 날개가 돋혀 수없이 산발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 삼돌이는 신기한 약초를 찾아서 벼랑가를 더듬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여 골짜기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귀에 익은 까치소리가 깍깍 들려왔습니다.

《깍—깍— 삼돌아, 깍—깍 삼돌아! 정신을 차려라.》

삼돌이에게는 그 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어슴프레하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자기 집 들메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 그 까치가 머리우에서 우짖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까치는 삼돌이의 어깨우에 내려앉으며 눈물을 똘랑똘랑 떨구었습니다.

삼돌이는 속이 덜컹했습니다.

《까치야, 웬일이니? 말을 하려마!》

아니나다를가 까치는 슬피 울면서 그 사연을 전했습

니다.

《삼돌아, 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도 네가 넘어간 차마령을 하염없이 바라보셨단다.》

삼돌이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도모르게 두주먹을 부르쥐고 산중턱을 내려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가에 한줌의 흙이라도 제 손으로 더 덮어주고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귀전을 쳤습니다.

《…네가 그 약초를 미처 캐지 못해서 어머니께 대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때라도 찾아내기만 하면 착한 이웃들이 그 덕을 입겠으니 좀 좋은 일이냐.

사내란 제 집만이 아니라 우선 남을 생각할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아, 어머니는 그때 벌써 일이 이렇게 되리란걸 짐작하고계셨구나!)

삼돌이는 눈물을 뿌리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골짜기를 훑어나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신기한 약초를 꼭 찾아내여 착한 이웃들을 돕고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생전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삼돌이는 더 부지런히 천불산 깊은 골짜기를 넘나들었습니다.

이젠 가지고온 길량식마저 다 떨어지고 풀뿌리로 끼니를 이은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기만 하면 하늘이 뱅뱅 돌고 수천수백개의 별찌가 눈앞에서 아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애써 다시 일어나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삼돌이는 깊은 산 나무아래 그늘진 곳에서 이상한 풀포기 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풀은 누른색의 작은 꽃들이 소담하게 피여나 우산처럼 피였는데 잎꼭지는 길고 작은 쪽잎으로 갈라져있었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풀이였습니다. 대뜸 호기심이 났습니다. 뿌리를 파보니 꼭 갓난애기처럼 생겼는데 제법 희고 통통한데다가 알싸한 향기까지 풍겼습니다.

삼돌이는 그 뿌리를 조금 씹어보았습니다. 웬일인지 금시에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지 삼돌이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이나 굶은지라 마지막힘까지 깡그리 짜내여 가까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아, 신기한 약초를 캐고도 마을에 전할길이 없다니.)

불시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이 천길만길 깊은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습니다.

삼돌이는 이제 자기가 다시 올수 없는 마지막길을 가고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희미해지는 정신을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문득 돌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겹게 머리를 쳐들어보니 얼마 멀지 않은 바위짬에서 물샘이 퐁퐁 솟구치고있었습니다.

(저 샘물이라도 마시고 힘을 내자.)

삼돌이는 발볌발볌 돌샘터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어떤 짐승 하나가 샘터로 껑충껑충 뛰여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말랐던지 돌우에 퐁퐁 솟아나는 물을 짭짭

마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그 돌샘을 마신 짐승이 몇걸음 못가서 금시에 돌로 굳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 샘물이 엄마가 주의하라던 그 이상한 돌샘물이구나.)

삼돌이는 몸서리치며 그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번개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돌샘을 마시고 돌로 굳어지자. 그러면 언제 누구든지 나를 찾아온다면 이 약초를 꼭 알아볼거야.)

신기한 약초를 전할길은 그길밖에 더는 없었습니다.

삼돌이는 마지막결심을 품고 그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굳어지면서 그 신기한 약초를 가슴에 소중히 꼭 껴안았습니다.

4

한참이나 울고난 무던이는 무심결에 삼돌이가 가슴에 소중히 안고있는 이상한 풀포기를 보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풀일가?)

무던이는 그 풀이 신기한 약초라는걸 어렵지 않게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면 왜 삼돌이가 그 풀을 꼭 안고 돌로 굳어질수 있었겠습니까.

마을에 돌아온 무던이는 돌로 굳어진 삼돌이의 이야기를 눈물겨웁게 전하며 그 약초를 내놓았습니다.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로인이 그 약초를 달여잡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로인이 몸이 거뜬해서 지게를 지고 산에 나섰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약초는 알고보니 천불산뿐아니라 깊은 산이면 어디서나 드문드문 찾아볼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삼돌이는 죽음으로 그 신기한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그 신기한 약초를 달여먹으며 병이란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삼돌이를 잊지 못해 차마령마루에 돌사람이 된 삼돌이를 옮겨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돌이가 찾아낸 그 신기한 약초를 뫼산자와 그 이름 첫자를 따서 《산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그 신기한 약초를 산삼이라고 부르는것이랍니다.

정말 세상에 알려진 크고작은 위훈의 갈피갈피에는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맘 다 바친 고귀한 넋이 뜨겁게 스며있는 법입니다.

주체80(1991)년

어느 산속에 풍년골이라 부르는 살기 좋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올망졸망한 여러 새끼곰들을 거느린 얼룩곰이 살고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얼룩곰들이 심고 가꿔온 참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해마다 풍년열매들을 주는 덕분에 얼룩곰은 먹을 걱정을 모르고 잘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름도 어느새 풍년골이라 불리워졌답니다.

그러나 고생도 해보지 못한 얼룩곰은 살진 열매들을 주는 그 참나무들이 풍년골의 큰 밑천인줄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흔한 도토리나 준다고 참나무를 하치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참나무를 심을게 뭐람. 더 맛좋은 과일나무를 심고 호수도 만들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살수 있었을걸.)

얼룩곰은 늘 이런 생각뿐이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얼룩곰은 참나무숲을 가꾸고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김매기를 뒤로 미루어오다가 풀이 너무 무성해서 아침부터 김을 맸으나 좀처럼 일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여름의 긴긴해도 서산마루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만 맥이 난 얼룩곰은 해묵은 진대나무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싸리바구니를 든 노루가 숲을 헤치며 어디론가 훌쩍훌쩍 뛰여가고있었습니다.

(저 싱검둥이는 일도 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치는거야.)

얼룩곰은 심심해서 노루를 소리쳐불렀습니다.

《여, 키다리조카, 어딜 갔다오는 길이냐?》

《아, 얼룩곰아저씨군요.》

노루는 그때야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아는체를 하였습니다.

《저 함지골의 고슴도치아바이한테 갔다오는 길이예요.》

《거긴 왜?》

《그 아바이가 버섯농사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보고오는 길인데요 뭐.》

《버섯농사를 짓는다구?》

《그러믄요.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노루는 절로 흥이 나서 고슴도치가 버섯을 기르는것을 보고 들은대로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얼룩곰은 저도모르게 귀가 벌쭉했습니다.

《그래 버섯기르기가 그렇게 좋아보이더냐?》

《좋구말구요. 참나무 몇대만 찍어서 서늘한 그늘에 두

고 물만 뿌리면 공버섯이 쑥쑥 돋아나더군요.》

《공버섯이라니?》

《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공짜로 얻게 되니 공버섯이라 할수밖에요…》

《음, 정말 그렇구나.》

얼룩곰은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아저씨도 한번 해보세요. 그 좋은 참나무를 뒀다 무엇하겠어요. 버섯이나 길러서 잘살고볼 판이지요.》

노루는 보란듯이 바구니에서 고슴도치가 준 버섯 몇송이를 꺼내놓았습니다.

얼룩곰은 얼른 집어서 우물우물 씹어보았습니다.

정말 별맛이였습니다.

(이걸 기름을 두고 지지고 볶으고 했으면 기가 딱 막히겠구나. 내 여태까지 이런것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정말 둔재긴 둔재야.)

얼룩곰은 기쁜김에 노루를 멀리까지 바래주고는 팔을 행행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망졸망한 새끼들을 불러앉히고 버섯기르는 법을 흥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새끼곰들은 저마다 눈이 올롱했습니다.

《그러면 저 싱싱한 도토리나무들을 찍는단 말이예요?》

맏아들곰이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까짓 참나무 몇대가 대수냐? 그대신에 맛좋은 참나무버섯을 먹게 되는데…》

《아유 좋아라. 난 빨리 버섯을 먹고싶네.》

막내아들곰은 덞어놓고 손벽을 쳤습니다.

《그럼 어서 차비들을 해라.》

얼룩곰이 도끼를 찾아쥐고 나서자 새끼곰들도 줄레줄레 따라나섰습니다.

그날부터 풍년골에서는 참나무들을 찍어내는 도끼질 소리가 앞뒤산에 쩡쩡 메아리쳤습니다.

오랜 세월 잘 자란 참나무들을 눈 한번 까딱하지 않고 텅텅 찍어낸 얼룩곰은 서둘러 서늘한 그늘에 덕대를 맸습니다. 그리고는 토막을 친 참나무들을 그우에 얹어놓고 물을 뿌리며 버섯이 하얗게 돋아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이틀이 흘러가고 열흘, 보름이 애타게 지나갔습니다.

스무날이 다되여서야 기다리고기다리던 버섯이 옹기종기 돋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이틀밤을 더 자고보니 돋아난 버섯이 벌써 세치나 자라올랐습니다.

얼룩곰은 그만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싶었습니다.

《얘 막내야, 어서 재너머 오소리네 마을에 가서 기름을 얻어오너라. 첫째는 둘째와 같이 삭정이를 해오고. 우리도 어디 한번 기름내를 피우며 잘살아보자.》

얼룩곰네 식구들은 버섯을 따서 지지고 볶고 야단이였습니다.

구수한 기름내가 멀리까지 풍기였습니다. 딱딱한 도토리나 먹던 얼룩곰네 식구들은 제법 사는 멋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벌써부터 참나무를 찍어서 버섯을 길렀더라면 이렇게 맛나는걸 먹어보는걸…》

막내곰이 입을 쩝쩝거리는걸 얼룩곰은 흐뭇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길래 머리를 써야 잘산다는 말이 생겨났느니라.》
얼룩곰네 식구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루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옹기종기 돋아나는 버섯을 가지고는 그들의 입맛이나 돋구어줄뿐이지 함지같은 배를 푹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버섯을 기르는 일은 품이나 들뿐이지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봐야 한다니까.)
그래도 얼룩곰은 미련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섯을 잘 기른다는 고슴도치를 만나보면 행여나 무슨 방도가 생길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얼룩곰은 함지골의 고슴도치를 찾아갔습니다.
얼룩곰한테서 여사여사한 사연을 들은 고슴도치는 가시수염을 내려쓸며 허허 웃었습니다.
《자네 참 우둔하구만. 버섯이란건 입맛이나 돋구는 부식물로나 먹지 그걸로는 때식을 에우지 못한다네.》
《음… 그러니 공연히 참나무를 많이 찍었군.》
먼길을 걸어 찾아온 얼룩곰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하는 고슴도치는 미안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권고하였습니다.
《자네 정 살림을 펴볼 생각이 있다면 저 벼랑골의 산양할아버지처럼 숯구이나 해보는게 어떤가?》
《숯구이요?》
《글쎄 소문을 듣자니 그 숯구이가 여간 시세나는 일이 아니라더군. 산양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게나.》
얼룩곰은 그길로 벼랑골 산양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얼룩곰한테서 찾아온 사연을 들은 산양할아버지는 머리

를 끄덕거렸습니다.

《암, 시세나는 일이고말고. 지금 어디에서나 땔것이 없어서 야단이라네. 불이 펄펄 이는 참나무숯만 구워놓으면 낟알이면 낟알, 물고기면 물고기 별의별것이 다 저절로 굴러온다네.》

산양할아버지의 말은 들을수록 귀맛이 돌았습니다.

《풍년골에 흔한게 참나무겠다. 또 자네는 힘도 있겠다. 잘만하면 큰 횡재를 할수 있다네.》

한번 떵떵거리며 잘살고싶은 욕망이 굴뚝처럼 솟아난 얼룩곰은 사기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얼룩곰은 또다시 무성한 참나무들을 마구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끼곰들이 다 익어가는 도토리를 쳐다보며

《아빠, 조금만 더 있으면 도토리가 막 쏟아지겠는데…》 하고 아쉬워할 때면 얼룩곰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무슨 소리, 참나무만 가꿔서는 늘 이 모양 이 꼴이다. 사는 방법을 고쳐야 우리도 잘살수 있다.》 하고 제법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무성한 참나무들을 마구 찍어낸 얼룩곰은 가마를 걸고 숯구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풍년골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가로 쉴새없이 물물 피여올랐습니다.

여러 동산에 얼룩곰이 숯구이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룩곰이 숯구이를 시작한지 이틀도 채 못돼서 벌써 이웃동산에 사는 오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얼룩곰아저씨, 래일이 우리 쌍둥이들의 생일날인데 뭘 좀 해먹이자고보니 숯이 있어야지요.》

오소리는 무겁게 지고온 과일구럭을 토방가에 내려놓으며 땀을 씻었습니다.

《전번에 기름을 얻어썼는데 뭘 들고오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얼룩곰은 슬쩍 곁눈질로 구럭을 넘겨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수걸이가 괜찮은데.)

얼룩곰은 군말없이 숯가마니를 오소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음날엔 너구리가 찾아오고 그 다음날엔 논마을에 사는 두루미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얼룩곰아주버니, 글쎄 국을 끓이자고보니 숯이 떨어지질 않았겠어요.》

두루미는 품속에서 멋있는 호리병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호리병엔 맛있는 개구리료리가 가득차있었습니다.

《먼데서 용케도 왔구만.》

두루미아주머니는 숯을 바꿔이고 그 길다란 다리로 토방에 훌쩍 내려섰습니다.

멀리 동구밖을 나서는 두루미를 바라보는 얼룩곰은 웃음집이 흔들거렸습니다.

(벌써부터 숯구이를 했더라면 앉아서도 별걸 다 먹으며 잘살수 있을걸.)

두루미가 떠나가자 이번엔 벌마을의 황소가 수레에다 여물콩을 가득 싣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동갑이, 이 수레에다 내가 싣고온것만큼 숯을 실어주게나.》

《어서 그러게.》

이렇게 황소까지 떠나보내고보니 구워놓은 숯은 반반히 바닥이 나고말았습니다.

(정말 숯구이가 시세나는걸.)

얼룩곰은 매일매일 풍청거렸습니다. 그 재미에 한쪽에서는 나무를 찍고 다른쪽에서는 숯을 굽고 점점 판을 더 크게 벌려나갔습니다.

그럴수록 참나무가 무성하던 풍년골이 벌거숭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얼룩곰이 버섯을 기른다, 숯을 굽는다 하며 참나무를 닥치는대로 찍어내는 사이에 어느덧 나무잎새에 누렇게 황이 들더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자 웬일인지 숯을 가지러 오는 짐승들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룩곰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숯이 금값이 될테지.)

얼룩곰은 구워낸 숯을 싸리광주리에 담아서 골짜기어귀에다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숯을 많이 장만해서 시세가 날 때에 팔아버리려는 심산이였습니다.

한광주리, 두광주리… 숯낟가리는 으쓱으쓱 키를 솟구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얼룩곰은 만족해서 허허 웃었습니다.

(저 싸리광주리 하나면 쌀토리도 하나겠지.)

그러나 그것은 얼룩곰의 생각이지 마가을이 되자 숯을 가지러 오는 짐승은 더는 없었습니다.

얼룩곰은 그저 앉아서 기다릴수만 없었습니다.

(찾아다니면서라도 빨리 팔고 겨울잠을 자야겠는데.)

얼룩곰은 먼저 이웃동산에 사는 오소리네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오소리 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여겨살피니 겨울잠을 자는중이였습니다.

(허 이녀석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벌써 겨울잠을 자는군.)

얼룩곰은 터벌터벌 너구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겨울잠을 자고있었습니다.

(그러니 면회를 거절한단 말이군. 깜찍한 녀석!)

논머리에 사는 두루미네 집을 찾아가니 그는 벌써 먼 남쪽으로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벌마을의 황소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황소야 숯을 사겠지.)

그런데 황소네 마당가에 이르니 여름내에 바꿔간 숯토리가 낟가리처럼 쌓여있었습니다. 만나보나마나했습니다.

결국 얼룩곰은 빈손으로 돌아오고말았습니다.

(얼룩얼룩하던 몸뚱이가 재투성이되도록 숯을 구운것이 헛공사가 되다니…)

그날밤 얼룩곰이 잠을 자는 사이에 때아닌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여보니 그 숯토리마저 물에 반반히 떠내려가고말았습니다.

《아이쿠, 망했구나!》

얼룩곰은 금시에 땅이 꺼져내리는것 같았습니다.

이제 숯을 다시 굽는다 해도 이 겨울에 숯을 사갈 짐승

이 없었습니다. 또 배고프면 겨울잠도 잘수 없으니 정말 큰 야단이였습니다.

배가 고파 겨울잠에 들지 못한 얼룩곰은 첫 눈이 푸실푸실 떨어지던 날 쪽박을 차고 이집저집 찾아다녔습니다.

간혹 어떤 집에서 쌀되박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겨울량식이 어방없었습니다.

맥없이 터벌터벌 집으로 돌아오는 얼룩곰은 그제야 새삼스러운 눈으로 자기가 사는 풍년골을 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풍년도토리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린다 해서 이름도 풍년골이라 했건마는 지금은 밑그루만 남은 앙상한 숲이 그를 마주보고있었습니다.

(그때는 도토리나마 배불리 먹으며 살았는데…)

결국 더 잘살아보자던노릇이 살림을 망칠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이 쑥 빠졌지. 조상대대로 가꿔온 풍년골의 밑천들을 마구 찍어버렸으니 응당한 값을 치를수밖에…)

밑그루만 남은 나무그루터기를 붙안고 얼룩곰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구 찍어버린 참나무그루가 살아나 다시 무성한 숲이 되는건 아니였습니다. 찍기는 쉽지만 무성한 숲이 되자면 적어도 몇십년은 잘 걸려야 했습니다.

그후부터 얼룩곰은 내내 쪽박신세를 면할수가 없었습니다.

주체80(1991)년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어느 개울가에서 있은 일이랍니다.

개울가언덕우에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더니 새싹이 움트고 따스한 해볕이 재글재글 내려쪼였습니다.

《개골개골.》

한겨울동안 땅속에서 잠을 자고 나온 개구리들이 봄맞이합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울물속에서는 올봄에 갓 까나온 올챙이들이 실오리같은 꼬리를 나풀거리며 자유롭게 놀고있었습니다. 그 올챙이들중에 류달리 꼬리가 길고 검은 올챙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생긴그대로 검은꼬리라고 불렀습니다.

검은꼬리는 같은 개울에서 사는 꼬마소천어와 막내모래무치와도 다정한 동무가 되여 의좋게 놀았습니다.

록음이 짙어가는 봄날 따스한 해볕이 한달나마 쨍쨍 내려쪼이더니 흐르던 개울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울가물속에서 놀던 검은꼬리와 소천어, 모래무치는 말라드는 자그마한 물웅뎅이에 그만 갇히우게 되였습니다.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뜨거운 불볕에 물은 점점 말라들고 따가와져 견딜수 없었습니다.

《아이구 더워, 막 숨이 막히네. 이 더운 물마저 마르면 우린 어떻게 될가?》

검은꼬리는 겁에 질려 징징 우는소리를 하였습니다.

《얘,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슨 방도를 찾아야지 우는소리만 하면 되니?》

모래무치가 검은꼬리를 달래는 말이였습니다. 모래무치는 궁리끝에 뾰족한 머리로 모래속에 굴을 뚫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천어도 그뒤를 따라 힘있게 꼬리를 저으며 물구멍을 내느라 무진애를 썼습니다.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며칠동안 따가움도 숨가쁨도 다 이겨내며 모래속을 뚫고 끝내 새 물길을 열어놓고야말았습니다.

다 죽은줄 알았던 검은꼬리는 그 물길을 따라 깊은 물속에 뛰여들었습니다. 후— 한숨을 내쉬니 시원하고 정신이 거뜬한것이 살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이 아니였더라면 난 꼼짝 못하고 잘못되였을거야. 내 너희들을 죽어도 잊지 않을테다.》

《다같은 물속동무들인데 뭘 그러니. 우린 언제나 정다운 동무로 함께 살자꾸나.》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방긋이 웃으며 검은꼬리를 부둥켜안았습니다.

그후 모래무치, 소천어와 검은꼬리는 서로 도우며 정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검은꼬리는 감탕을 찾아 늪가로 나갔다가 물에 첨벙 뛰여드는 개구리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개구리형님, 안녕하세요!》

《응, 너 올챙이구나. 여기서 뭘하니?》

《감탕에서 먹이를 찾아요.》

검은꼬리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개구리는 그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검은꼬리는 개구리의 품에 안겨 그의 발을 슬며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러워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발이 있으니 땅우에 실컷 나가놀고 더우면 물속에 첨벙 뛰여들구… 난 언제면 저렇게 될수 있을가?)

검은꼬리는 볼수록 개구리가 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어느새 검은꼬리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올챙아, 걱정말아라. 먹이도 많이 먹고 몸단련을 잘하면 너도 발이 나온단다.》

《그래요?》

검은꼬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검은꼬리는 열성스레 몸단련을 해나갔습니다.

창포잎이 푸르러가던 어느날 새벽 검은꼬리는 너무 좋아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글쎄 간밤을 자고나니 꼬리앞에 앞발이 불쑥 나온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 다리가 옳을가?)

검은꼬리는 반가와 몇번이나 그 앞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걷는 련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불로 엉금엉금 걸어가자니 어쩐지 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개개, 이거 앞발만 가지고서는 안되겠구나. 뒤발이 마저 나와야지. 그래야 개구리형님들처럼 마음대로 다닐수 있을거야.)

검은꼬리는 날마다 걷는 련습을 하느라 무진애를 썼습니다.

어느날 밤에는 글쎄 희한한 꿈까지 꾸었습니다.

글쎄 앞발이 돋아난 검은꼬리가 개구리형님들과 같이 달리기경기를 하였는데 훌짝훌짝 뛰여서 보기 좋게 1등을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훌까닥 뛰다가 깨여나니 아쉽게도 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을 깨고보니 그렇게도 바라던 뒤발이 밤새에 제법 돋아나온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은꼬리는 반가와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이젠 마음대로 걷는 련습을 하게 된 검은꼬리는 어서 빨리 개울가 모래불에 나가 놀고싶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땅에 올라서니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애개개… 눈이 막 시그럽구나.》

그런데 한참 놀다보니 등가죽이 말라들고 발까지도 뻣뻣해졌습니다. 그는 바삐 물속으로 되돌아오고말았습니다.

그는 땅우에 나갔던 일을 자랑하고싶어 견딜수 없었습니다.

《난말이야, 땅우에 나가봤어. 정말 멋있지 뭐.》

《그래 좀 자세히 말해주려마.》

《글쎄, 너희들은 암만 말해도 다 알수 없어. 보지 못하고 말만 들어서는 알수 없거든.》

검은꼬리는 으시대면서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검은꼬리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모래불에 나가 놀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땅우의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군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검은꼬리는 저도모르게 우쭐해서 으시대는 버릇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 해님이란것 말이야. 물속에서 보던것과는 영 딴판이야. 얼마나 살뜰한지 저의 집은 저 산너머에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한번 놀러 오라고 했어.》

《검은꼬리야, 정말 너보고 그런 말 하던?》

《그렇잖구. 내 귀에다 대고 말했어. 참 재미있는 동무야.》

으시대는 검은꼬리의 말을 듣는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얼굴이 밝지 못했습니다.

《검은꼬리야, 새라새로운것을 많이 보고 오는것은 좋지만 물가에서 먼데로 가지 말아라. 해빛을 너무 오래 쪼이면 몸에 해롭단다.》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진심으로 걱정하여주었습니다.

《흥, 걱정말아. 지금은 아무리 멀리 가도 네발 다 있는데 걱정할게 없어.》

검은꼬리는 자기 발을 척 흔들어보이며 깔깔 웃었습니다.

(내가 저희들과 똑같은줄 아는 모양이지. 이젠 물속에서만 쬐쬐하게 놀러 다니던 검은꼬리가 아니라는것을 모르니 한심도 하지.)

그 이튿날 물가에 나간 검은꼬리는 돌에다 꼬리를 싹싹

문대며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처럼 걷는 시늉을 하면서 물밖의 언덕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해볕이 어찌나 따갑게 내려쪼이는지 숨이 막히다 못해서 등가죽이 말라붙고 정신이 막 아찔아찔해졌습니다. 바빠난 검은꼬리는 데굴데굴 굴러서 겨우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검은꼬리는 해종일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앓았습니다.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시원한 샘물과 감탕을 가져다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검은꼬리야, 다시는 먼데로 가지 말아라. 물속에서 난 우리는 이 물속을 멀리 떠나면 못산단다.》

착하고 정다운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진심으로 념려해주었습니다.

(참 답답한 친구들이야. 땅우에 못나가보니 시샘이 나는 모양이지. 날마다 어쩌구저쩌구…)

바깥세상에 마음이 끌린 검은꼬리는 동무들의 타이름에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어느덧 개울가에 창포꽃이 지고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는 가을이 왔습니다.

검은꼬리는 그사이에 제법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이름도 검은꼬리가 아니라 깜장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깜장개구리는 낮에는 개울가언덕우에 올라가 개골개골 노래하며 놀다가 밤이면 슬쩍 물속에 내려와 자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깜장개구리가 점잔을 빼며 어정어정 풀숲으로 걸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훌쩍훌쩍 뛰더니 휠 날아서 그의 머리우를 스쳐지났습니다.

《누구냐.》

깜장개구리는 얼결에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날아가던 그《놈》이 슬쩍 땅우에 내려앉았습니다.

《으—응, 너 이제 보니 창포늪의 깜장개구리구나. 난 버들숲의 메뚜기란다.》

《메뚜기?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니?》

깜장개구리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참! 헤염 잘 치고 뛰길 잘해서 소문난 너를 내가 모를턱이 있니?》

풀메뚜기는 노란 눈알을 뱅글뱅글 굴리며 그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이 꼬마개구리를 잘만 써먹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논밭을 지키는 큰 개구리들로부터 제 몸을 보호할수 있을것입니다.

메뚜기는 침이 마르도록 깜장개구리를 추어올렸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멋쟁이라느니, 한또래들중에서 제일 날랜건 너뿐이라느니, 대장개구리가 될거라느니…

깜장개구리는 귀맛이 좋았습니다.

깜장개구리는 메뚜기를 동무삼아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물속애들이 내가 새로운 동무를 사귄줄 알면 퍽 놀랄걸.)

해가 서산에 기울자 깜장개구리는 정신이 버쩍 들었습니다.

《난 이젠 우리 동무들이 기다리는 물속에 가봐야겠다.》
《물속에도 네 동무가 있니?》
《있지 않구. 모래무치와 소천어라는 송아지적동무들이 있단다.》
깜장개구리는 어깨를 으쓱이였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깔깔 웃었습니다.
《뭐 모래무치, 소천어?… 그 날줄도 뛸줄도 모르고 물속에서나 허우적거리는 애들?… 참 한심하구나. 그런 애들과 친하면 의젓한 네 몸값이 떨어지는줄도 모르니?》
《그래도 내가 올챙이적에 물이 말라 다 죽게 된걸 그들이 살려주었단다.》
《흥, 그때는 그때구 이젠 의젓한 개구리가 되였는데 점잔은 동무들도 사귈줄 알아야지.》
깜장개구리는 어벙벙했습니다.
《얘, 네 위신을 부쩍 올리려면 차림새도 멋들어지구 재주도 있는 그런 애들과 친해야 돼. 물론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멋진 깜장개구리가 모래무치나 소천어따위와 대상이나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 메뚜기의 그 말도 일리는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깜장개구리는 창포늪으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퍽 오래간만에 한번 창포늪으로 가보았습니다.
소천어와 모래무치가 반가와 어쩔줄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야, 검은꼬리야! 너 정말 몰라보게 변했구나. 그래 그

사이에 어데 가서 어떻게 지냈니? 우린 늘 네 이야기만 했단다.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구나.》

저도모르게 반가와 달려가던 깜장개구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흥, 아직도 올챙이적이름을 탕탕 부르는구나. 기분이 잡치는데…)

순간 깜장개구리는 메뚜기생각을 하면서 시치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꽤— 객— 꼴 너희들은 누구냐? 혹시 누굴 잘못본게 아니야?》

《얘얘, 난 모래무치고 저앤 소천어란다.》

영문을 모르는 모래무치는 반색하며 손을 내미는데 깜장개구리는 한발 물러서며 대답하였습니다.

《뭐 모래무치? 소천어? 그건 누군데? 아예 처음 듣는 이름이구나.》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기가 딱 막히였습니다.

(저애가 어느새 저렇게 되였을가?…)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흥, 어른이 다된 개구리보고 아직도 올챙인줄 아는 모양이지. 기가 막혀서…)

깜장개구리는 슬쩍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헛기침까지 하며 땅우에 기여올라갔습니다.

사방을 살피니 멀지 않은 곳에서 메뚜기가 놀고있었습니다.

깜장개구리는 메뚜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내 참, 기분이 나빠서…》

《무슨 일이 있니?》

《글쎄 그들이 아직도 내 올챙이적이름을 막 부르면서 창피하게 굴지 않겠니.》

깜장개구리는 소천어와 모래무치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저 멋없는것들과는 아예 상대를 말아야 한단다.》

깜장개구리는 메뚜기와 어깨겯고 먼 들판이며 버들숲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쨍쨍 내려쪼이는 한낮이 되자 깜장개구리는 목이 마르고 더위에 숨이 막혀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늘 까만 옷만 입고있으니 더울수밖에… 나처럼 시원한 옷을 입으면 덥지 않단다.》

깜장개구리는 메뚜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보니 자기 옷이 천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나도 시원하고 아릿다운 옷을 입어봤으면…)

깜장개구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풀대가 갈라지며 스르륵— 땅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늘메기였습니다.

풀메뚜기는 화닥닥 놀라 저혼자 내빼고말았습니다.

그러나 멋모르는 깜장개구리는 뒤짐을 지고 우뚝 섰습니다.

(야! 처음 보는 고운 옷이구나. 저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깜장개구리는 반지르르한 고운 옷에 홀딱 반해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늘메기는 깜장개구리가 《아저씨.》 하고 부르며 다가서는것을 보고 군침을 꼴깍 삼키였습니다.

《오냐, 너 개구리로구나. 이런 고운 옷을 입고싶은게로구나.》

(흥, 이것 봐라. 먹을것이 저절로 입안에 굴러드는구나. 오냐, 내가 먹어주마!)

늘메기는 간사하게 웃다가 갑자기 입을 쩍 벌리였습니다.

순간 늘메기의 쩍 벌린 입에서 빨간 혀바닥이 날름거렸습니다.

(앗, 나쁜 놈이구나!)

깜장개구리는 깜짝 놀라 냅다뛰면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꽤엑— 꽥엑 날 살려줘요!》

깜장개구리는 버들숲으로 죽기내기로 뛰고 또 뛰였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누가 자기를 구원해주겠는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래도 생각키우는것은 모래무치와 소천어가 있는 물속이였습니다.

깜장개구리는 마지막힘을 다 내여 개울가물속으로 첨벙 뛰여들었습니다.

《소천어야! 모래무치야! 날 살려라!》

물속에서 놀고있던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다급한 고함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넌 누구니?》

《날 모르겠니? 나 검은꼬리야.》
《검은꼬리야, 이게 웬일이냐?》
《날 살려줘. 어떤 놈이 날 잡으러 와…》
모래무치는 날쌔게 모래굴을 뚫고 깜장개구리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성을 굴앞에 쌓아놓고 숨어서 빠금히 내다보았습니다.
뒤이어 늘메기란 놈이 물속에 훌렁 뛰여들었습니다.
늘메기는 살기띤 눈을 희번뜩이며 깜장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어? 썩 나오지 못해!》
늘메기놈은 으름장을 놓으며 한참이나 여기저기 돌아쳤습니다. 그러다가 종시 깜장개구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후 소란스럽던 물속은 조용해졌습니다. 뿌옇게 흐렸던 감탕물도 어느새 가라앉고 물속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줄곧 바깥만 보고있던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이윽고 모래를 털고 나왔습니다.
《깜장아ㅡ 어떻게 된 일이니?》
《모래무치야ㅡ 소천어야ㅡ》
깜장개구리는 그들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흑흑… 흑》
그는 목이 콱 메여 흐느껴울면서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깜장아, 어디 다친덴 없니?》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깜장개구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 개구리가 되였다고 올챙이 시절을 잊고 멋없이 놀았어. …》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그래그래. 깜장아, 이 개울은 우리가 나서자란 고향이 아니냐. … 우리 물속동무로 언제나 친하게 지내자꾸나.》

모래무치와 소천어는 깜장개구리를 품에 꼭 껴안아주었습니다.

제 근본을 잊을번 했던 깜장개구리는 그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주체97(2008)년

먼 옛날 솔미숲이라고 부르는 어느 산속마을에 귀여운 꼬마두더지가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꼬마두더지는 쪼르르 통통 뛰여다니며 땅걸에서 벌레를 잡았습니다.

우줄우줄 키를 돋구는 숲을 바라볼 때면 꼬마두더지의 마음은 퍼그나 흐뭇했습니다. 저 푸른 숲에 자기의 땀도 스며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숲속엔 솔잎을 갉아먹는 송충이며 자벌레, 청벌레… 정말 별의별 나쁜 벌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마두더지는 늘 일손이 바빴습니다.

어느해 여름, 그날도 꼬마두더지는 여느때처럼 해종일 벌레잡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낮이 되여 애기잣나무밑에서 잠시 땀을 들이게 되였습니다.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며 구슬땀을 살랑살랑 씻어주었습니다.

꼬마두더지는 시원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두더지는 그저 흐뭇해서 맘놓고 쉬는것은 아니였습

니다.

쉴 때에도 그는 나무에 무슨 벌레가 끼지 않았나 해서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밑둥으로부터 줄기며 매 잎사귀까지 참빗으로 훑는것처럼 깐깐히 말입니다.

그러던 꼬마두더지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이전에는 푸르싱싱하던 애기잣나무가 어쩐지 잎이 처지고 가지마다에 윤택이 없어보였기때문이였습니다.

《애기잣나무야, 너 어디 아프지 않니?》

꼬마두더지는 낮게 드리운 가지 하나를 붙잡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애기잣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도리머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잎사귀가 시들시들하고 가지가 처져내리니?》

《글쎄, 아까 딱따구리도 그런 소릴 하더구나.》

애기잣나무는 별치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암만해도 땅속뿌리를 파봐야겠다. 혹시 뿌리에 나쁜 벌레가 생긴지도 모르니까.》

꼬마두더지가 심중해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힘들게 어떻게 땅속까지 파보겠니. 놔두려마.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아니야, 네가 더 싱싱하게 자라야 우리 숲마을이 더 아름답고 잘살게 돼.》

애기잣나무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와. 사실은 뿌리가 좀 얼얼한것 같애. 아까 딱따구리도 뿌리가 병든것 같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구나.

그런데 겉에 있는 벌레들도 미처 잡지 못하는 판에 언제 뿌리까지 돌보겠니. 아예 그런 생각을 말아라.》

애기잣나무는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두더지는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벌레잡이를 하느라 뿌리를 파본적이 없었습니다.

땅을 파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나오고 손톱까지 갈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꼬마두더지는 직심스레 달라붙어 뿌리를 갉아먹는 굼벵이 몇놈을 끝내 잡아내고야말았습니다.

《아이 씨원해. 막 날것 같애.》

애기잣나무는 기뻐서 어쩔줄 몰랐습니다. 금시에 나무잎새가 생기를 머금고 더 푸르러지는것 같았습니다.

애기잣나무의 병을 고친 다음부터 꼬마두더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원인을 몰라 살려내지 못한 몇몇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숲속에는 그런 나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숲속 나무의사들이 다 떨쳐나서서 그 나무들을 진찰하고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딱따구리나 청더구리 같은 이름난 나무의사들도 속으로는 (이건 분명히 뿌리에 든 병이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입밖에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파고 벌레를 찾아낸다는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는 까닭이였던것입니다.

그러나 꼬마두더지는 자기 혼자서라도 이 일을 맡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가 태여난 숲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두려움도 주저도 없었던것이였습니다.

그날부터 꼬마두더지는 누구도 모르는 캄캄하고 숨막히는 땅속에 일터를 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땅을 파헤치느라 앞발과 뾰족한 주둥이

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꼬마두더지는 그런 고생쯤은 용케 참아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모르게 매출한 발가락들이 짧고 몽톡해지고 삽날처럼 변해갔습니다.

꼬마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며 벌레를 잡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꼬마두더지는 내내 땅속에서만 살다보니 언제 해가 뜨고 달이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날 꼬마두더지는 오래간만에 바깥구경을 나왔습니다.

때마침 숲속에서는 일년에 한두번씩 열리는 길짐승들과 날짐승들의 큰 모임이 벌어지고있었습니다. 숲을 더 잘 가꾸기 위한 뭇짐승들의 열렬한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있었습니다.

꼬마두더지도 한구석에 슬며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윽고 모임의장인 클락새가 주석단앞으로 사뿐사뿐 걸어나왔습니다.

《그럼 토론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벌레를 잘 잡는 새들과 짐승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딱따구리와 청더구리가 뭇짐승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선참으로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꼬마두더지의 딱친구인 고슴도치에게는 꽃목걸이가 수여되였습니다.

하늘을 가로세로 썰며 벌레를 잡은 제비아씨에게는 《벌레잡이명수》칭호가 수여되고 하루에 제 몸무게만한 많은 량의 벌레를 잡은 박새에게는 《영예공로자》의 칭호가 차례졌습니다.

나무심기를 잘하고 비바람으로 나무를 잘 보살펴준 곰할아버지는 《참나무잎훈장》을 받았습니다.

동고비, 나무발발이 지어는 하는 일이 별치 않아 남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따쥐와 청서에게도 괜찮은 표창이 차례졌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꼬마두더지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선참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땅속에서 일한 덕분에 꽃다발은커녕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꼬마두더지는 저도모르게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더더욱 벌레잡이를 잘해서 칭찬받은 꼬마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는 엄마짐승들축에 끼우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한옆에 비껴서있는 엄마두더지를 보는 그의 마음은 꼭 《죄》를 지은것만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엄마두더지는 꼬마두더지를 말없이 엄한 눈길로 쏘아보았습니다.

순간 꼬마두더지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머니, 그런게 아니예요.)

꼬마두더지는 사실을 터놓고 한바탕 맘후련히 울고라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두더지에게 땅속에 들어갔댔다는 말을 차마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두더지가 너무 근심할것 같아서였습니다.

엄마와 헤여져 터벌터벌 발길이 닿은 곳은 언제인가 땅속의 벌레를 잡겠다고 마음다지던 그 애기잣나무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잣나무가 별스레 가지를 살랑살랑 흔

들며 꼬마두더지를 반겨주었습니다.

《꼬마야, 네가 수고한 덕분에 이렇게 푸르싱싱하게 되였어.》

《그래.》

《땅속에서 일한다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 난 네 마음을 잘 안단다.》

《고맙구나.》

어느새 울적한 꼬마두더지의 마음이 봄눈처럼 소리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부터 꼬마두더지는 땅속에서 더 부지런히 벌레잡이를 하였습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가며 벌레를 잡기도 하고 먼 남새밭이며 양묘장까지 찾아다니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묘장에서 뜻하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꼬마두더지가 땅을 파고 다니면서 벌레를 잡다가 아차 실수하여 애어린 나무모의 뿌리를 조금 다쳐놓은것이였습니다.

양묘장의 주인인 키다리노루가 노발대발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땅우에 기여나왔던 꼬마두더지는 노루에게 단단히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가 어쩌면 그렇게 변할수 있니? 전엔 벌레를 잘 잡아서 소문이 자자하더니만 이제는 벌레잡이는커녕 땅파는 장난을 하여 나무뿌리까지 상하게 하다니…》

《아저씨, 그런게 아니예요. 사실은…》

꼬마두더지는 사연을 말하려고 했으나 성미급한 노루가 그 말을 새겨들을리가 없었습니다.

《듣기 싫다. 이제 당장 너의 엄마한테 단단히 일러줄테다.》

키다리노루는 바람을 씽— 일구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나다를가 그날저녁 꼬마두더지는 단단히 경을 쳤습니다.

《애야, 네가 이젠 말밥에 오르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두더지의 눈엔 엄엄한 빛이 어리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꼬마두더지는 어차피 땅속의 벌레를 잡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난 엄마두더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애야, 잘 생각해봐라. 하필 네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땅속벌레잡기를 하다가 우야 말밥에 오를수야 없지 않니. 네가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꼬마두더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믿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마저 나무라니 더이상 견딜수 없었습니다.

(래일부터 당장 바깥에서 벌레를 잡자.)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꼬마두더지는 노루에게 사과할겸 양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용서를 빈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에 몸을 적시지 않으리라고 속다짐했던것입니다.

양묘장에 찾아가니 노루는 어데 가고 애어린 나무모

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두더지야, 고맙다. 네가 하루새에 그 나쁜 벌레들을 다 잡아주니 우린 간밤에 한뽐이나 컸단다.》

《…》

《그러고도 또 일찌기 벌레잡이를 왔으니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니?》

꼬마두더지는 목구멍까지 꼴깍 차올랐던 말을 차마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제 잔뿌리를 다친건 일없니?》

《별소릴, 그까짓 잔뿌리를 조금 다친게 무슨 대수냐. 일하느라면 그럴수도 있는데…》

그만 꼬마두더지는 눈물이 찔끔 솟아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마저 수고해주려마!》

나무모들이 하도 진정을 쏟아놓는 바람에 꼬마두더지는 또 땅속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마두더지는 그날부터 굴을 파고 다니면서 더 부지런히 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꼬마두더지는 엄마가 보고싶어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줄곧 일에 파묻히다나니 엄마를 본지가 퍼그나 오래되였던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리해하지 못하던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쓰리고 알알하였습니다.

꼬마두더지는 엄마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해빛을 보니 눈이 시그러웠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한참이나 서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오이를 짊어지고가는 고슴도치가 바라보였습니다.

《애, 고슴도치야!》

《두더지야!》

두 꼬마친구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빙빙 돌아가다가 갑자기 고슴도치가 《애개개》 하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애, 두더지야! 너 귀바퀴를 어떻게 했니?》

《귀바퀴라니?》

꼬마두더지는 얼결에 귀뿌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그 복스럽게 생긴 귀바퀴가 간 곳이 없고 귀구멍만이 뻥 뚫려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땅속을 파고 다니다나니 귀바퀴가 저절로 닳아빠졌던것이였습니다.

꼬마두더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몸뚱이와 생김새는 엄마가 만들어준것이라는데.)

그날밤 엄마두더지와 가지런히 자리에 누운 꼬마두더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두더지도 자리를 뒤척거렸습니다.

그는 눈을 꾹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꼬마두더지가 살며시 눈을 떠보니 엄마두더지가 머리맡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있었습니다.

엄마두더지도 《잠든》 꼬마두더지의 없어진 귀바퀴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척 괴로와하는구나.)

꼬마두더지는 더는 누워있을수가 없어서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애야, 잠들지 못했니?》

《…》

꼬마두더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말하기는 괴롭다만 너도 다른 애들처럼 땅겉에서 벌레를 잡으면 안되니?》

《어머니, 너무 상심마세요. 제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뿌리에 든 병은 누가 고쳐내겠어요.》

《그걸 꼭 네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엄마두더지는 또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누구든지 해야지 않아요. 우리 사는 숲이 더 싱싱해지고 아름다와지는 일인데 귀바퀴가 없어지면 뭐래요. 난 땅속에서 살래요.》

꼬마두더지는 엄마두더지에게 자기의 변함없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봐라.》

엄마두더지와 꼬마두더지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꼬마두더지는 애기잣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어쩐지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싶었습니다.

애기잣나무는 꼬마두더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널 한번 만났으면 했단다. 보렴. 오늘은 이렇게 첫 열매를 쏟아놓는단다.》

애기잣나무는 크고 잘 여문 잣송이를 조롱조롱 이고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다 네가 지성껏 도와준 덕분이야.》

꼬마두더지는 온갖 시름을 다 잊고 한껏 웃었습니다. 그후부터 꼬마두더지는 더욱 힘을 내여 땅속에 들어가 벌레를 잡았습니다.

어느덧 달이 흘렀습니다.

꼬마두더지는 맑은 공기가 그리워 어느날 또다시 밖으로 기여나왔습니다.

때는 이른아침인지 아니면 어둠이 깃드는 초저녁인지 사방이 희붐하기만 했습니다.

(땅속에서만 살다보니 때를 모르고 사는군.)

웬일인지 울창한 숲이 꿈속에서처럼 어슴프레하게 안겨오고 안개속에 휩싸인것만 같았습니다.

꼬마두더지가 눈을 비비고있는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습니다.

《얘, 두더지야, 너는 이젠 나를 보고도 못본체 할래기야?》

듣고보니 다정한 소꿉동무인 고슴도치의 목소리였습니다.

《못본체 하다니, 나는 너를 보지 못했는데.》

《흥,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네 눈앞에 서있는데.》

그제야 꼬마두더지는 생각되는것이 있었습니다.

《얘, 지금 어느때니?》

《참 별걸 다 묻는구나. 지금이야 해가 쨍쨍한 한낮이지.》

《한낮이라니…?》

꼬마두더지는 밝은 해빛도 고슴도치도 더는 가려볼수가 없었습니다. 땅속에서만 살다보니 그만 눈이 저절로 멀어버렸던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꼬마두더지는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숲을 가꿀수만 있다면 눈이 먼것이 무슨 상관이겠

습니까. 대신에 밝은 귀와 십리밖에서도 나쁜 벌레를 냄새맡는 예민한 코만 있으면 그만이였습니다.

고슴도치의 손에 이끌리여 집으로 찾아온 꼬마두더지를 본 엄마두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 정말 엄마가 보이지 않니?》

엄마두더지는 믿고싶지 않아 두번세번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꼬마두더지는 고개만 숙이였습니다.

《네가 끝내 일을 저질렀구나. 누구도 몰라주는 일을 하더니 귀바퀴를 잃고 눈까지 멀고.》

엄마두더지는 한참이나 푸념을 하더니 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병을 잘 보는 부엉이할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심산이였습니다.

꼬마두더지의 손을 잡고 엄마두더지가 숲에 들어서니 쏴—아 바람이 불면서 어디선가 키가 구척인 할아버지 한분이 마주걸어왔습니다.

《꼬마두더지야, 잠간만.》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숲이 드렁드렁 울렸습니다.

(웬 할아버질가?)

엄마두더지와 꼬마두더지는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놀라지 말아. 나는 숲을 가꾸고 보살피는 숲할아버지란다.》

꼬마두더지는 물론 엄마두더지도 여태 숲에 살면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숲할아버지는 새까만 비로도옷을 한벌 들고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내내 땅속에서 일한 너에게 우리 숲이 주는 선물이란다.》

《제가요?》

꼬마두더지는 그만 목이 메였습니다.

《땅속에서 일한다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자기 한몸바칠 각오가 될 때만이 할수 있는 일이란다.》

그 비로도옷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세상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값진 옷이였습니다.

그걸 떨쳐입으니 꼬마두더지는 숲속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꼬마두더지는 발걸음을 내짚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드리나무들이 한껏 설레이고 파란 나무잎새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었습니다. 금시에 나무가지마다에 소담한 꽃이 피고 잔디풀이 가는 길에 푸른 주단을 펼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애써 가꾸는 정다운 숲이 꼬마두더지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복이였습니다.

《장하구나, 장해. 그 누가 몰라줘도 푸른 숲만이 너를 알아주고 내세워주는구나.》

엄마두더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꼬마두더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꼬마두더지를 따라 집을 아예 땅속으로 옮기고 그의 동생들도 그를 따라 다 숲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두더지들은 그 누구도 모르는 땅속에서 벌레를 잡으며 수걱수걱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는것이랍니다.

주체79(1990)년

편집후기

재미나는 동화, 우화창작으로 우리 학생소년들속에 널리 알려진 작가 박상용선생은 주체32(1943)년 6월 26일, 동해바다가의 이름난 어항도시 신포시의 아름다운 섬마을에서 태여났습니다.

중학교시절부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글짓기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있던 선생은 주체48(1959)년 1월 《소년신문》에 동시 《도시가 부럽지 않아요》를 발표하면서 장차 작가가 되려는 소중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후 선생은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에 당의 신임으로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학창시절에 품었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단막극 《성난 바다》, 우화 《흰여우의 심보》와 《너구리의 후회》 등 여러편의 작품들을 신문 《조선인민군》과 문예잡지들에 발표하였습니다.

제대후 작가는 신포제통공장에서 로동생활을 하면서 당의 사랑속에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통신)를 졸업하였으며 동화 《바다의 〈로케트〉》를 비롯한 수십편의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습니다.

선생의 창작적재능과 소중한 꿈을 귀중히 여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그를 조선작가동맹에 소환하여 전문작가의 대렬에 세워주시였

습니다.

그 나날에 작가는 《뿔없는 사슴》, 《다시 찾은 꽃향기》, 《은별선녀》, 《아름다운 바다》 등 중편동화들과 《리별초》, 《덜미잡힌 여우》, 《두 속담군》, 《속담으로 맺은 인연》, 《산촌의 물방아》, 《참새가 떨어졌다》와 같은 다양한 그림책들과 문학축전상을 받은 동화들인 《살아있는 거부기》, 《달섬과 아귀바위》, 《속담으로 키운 아들》을 비롯한 60여편의 동화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30여편의 우화와 동요, 동시, 예술산문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150여편이나 창작발표하였습니다.

소꼽시절부터 바다가에서 딩굴며 자라난 작가는 신비한 바다세계를 보여주는 여러편의 흥미진진한 동화작품들과 우리 인민들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들을 활용한 십여편의 속담동화들을 특색있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 동화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특히 선생이 창작한 《두 속담군》을 비롯한 속담동화들은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출판되여 많은 해외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파도소리가 노래처럼 정답게 들려오는 어항도시의 해빛밝은 창가에서 선생은 펜을 달리다가도 문득 가슴치는 뜨거운 생각에 목메입니다.

그것은 한갖 평범한 로동자를 공화국의 어엿한 작가로 키워주시고 높은 국가수훈과 많은 선물을 안겨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한없는 은정과 고마움때문이였습니다.

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학생소년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될 더 좋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창작의 붓을 더욱 굳게 잡고있습니다.

동 화 집

신기한 종소리

저 자 박상용 편 집 리도현
그 림 및 장 정 조정철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명희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2
인 쇄 주체101(2012)년 5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5월 20일

ㄱ－26101 값 110원

ISBN 978－9946－21－313－2